



8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8호

(루게 526)



◆◆◆◆◆◆◆◆ 차 례 ◆◆◆◆◆◆◆◆

순간도 멈춤 없는...	4
발동소리 울려온다.....	5
장군님이 그려주신 조선지도.....	6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7
인류의 향도성	7
천하절승 묘향산.....	8
집.....	9
대안의 사업체제와 사회주의경제관리.....	10
불패의 힘으로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화폭.....	12
쉬는날은 즐거워	17
구호나무앞에서 (외 1 편).....	18
종구나, 휴식참의 오락회	18
기쁨많은 시절	19
지도앞에 서면 (외 1 편).....	28
아이들이 떠난 거리	28
아버지에 대한 회상	29
소박하고 생활적인 정서로 충만된 조국송가	30
내 고향의 목소리 (외 2 편).....	35

금강산을 떠나며	36
목 표	37
시대의 향기	44
예 와서 보시라	47
숲의 교향곡	48
나는 병사였다 (외 1 편)	61
제 대 중	61
빛나는 시절	62
고 백	64
세월이 흘러도	65
대지에 피어난 꽃송이들	67
간판을 보면서	68
청와대 십자가	69
어머니에게	75
비분의 25 일 간	76

순간도 멈춤 없는...

전계승

그 옛날 그 누가 이름지었는가
사막에 사는 락타가
사막도 아닌 험한 절벽가에 멈춰선채
영원히 굳어져버린 모습같다고
그 이름 락타바위

여기 안개 깊은 압록강계곡에
치솟아오른 기암절벽 그 모습 바라보시며
감회에 잠기셨던
위대하신 수령님

항일혈전의 그 나날
여기 백두의 산발과 강들을 주름잡아 넘나들며
용맹떨친 옛전사들을 그리시는
그 목소리
저 바위이름을
천군바위라고 고쳐부릅시다

아 뜨거운 그 부르심에
전설의 천군만마
백두산의 돌문을 열고 달려나왔는가
천년이끼 걷어차고 총칼 번뜩이며
우뢰같은 함성을 터친것인가
천군바위,
천군바위여

위대하신 장군님
우렁찬 구령소리

전령병은 나팔에 담아 강산을 흔들고
대원들은 말발굽소리, 총소리에 담아 지축을
구르며
절벽을 뛰어내려, 준령을 날아넘어
순간도 멈춤없는
진격의 기상 떨치나니

항일의 자욱 어린
백두의 준령, 바위 하나도
혁명의 기상으로 후대에 빛나게 넘겨주시려
항일대전의 불멸의 화폭 새겨주시는
위대하신 수령님

한달음에 천리를 가면
항일의 그날처럼
미래를 불러 폭풍만리를 주름잡으시는
그 천리혜안의 예지를 담아
세상이 시련속에 주춤거려도
맞받아 박차고 나아가시는
그 계속전진의 기백 누리에 떨치며

아 천군바위,
천군바위여!
진격의 대군상으로 장엄히 솟아 빛나라
천억만이 따르는
항일영웅선두대오
영원히 멈춤없는 그 기상 그 발구름소리로
내 가슴도 영원히 세차게 흔들어주며...

발동소리 울려온다

리광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은은히 울려온다
통연벌의 정다운 프락포르 발동소리

그 누구를 찾는듯 부르는듯
멀어졌단 다시 오고
다시왔단 또 멀어지는
《천리마호》 사랑의 발동소리

내 고향 들판의 발동소리도 아니지만
이리도 고향의 발동소리로 뜨겁게 울리는것인가
얼마나 온 나라의 가슴을 흔들어준 발동소리였으면
기쁨의 노래처럼 가슴에 젖어드는것인가

눈내리는 겨울날에도
우리 수령님
저 소리 들으시며
기뻐서 들길을 다 걸으시였고

비내리는 날에도
우리 수령님
저 소리 들으시며 즐거우시여
해저무는줄도 잊으신듯 들에 계시며

만풍년의 열쇠를 안겨주시었나니

겹쌓인 피로도
저 소리속에서 푸시고
그처럼 안으셨던 근심도
저 소리 들으시며 다 가시고

오늘은 통연땅에서 영웅이 났다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14명 한집안 운전수들에게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니

우리 수령님
한생을 기쁘게 해드린 발동소리
이 땅에 만풍년의 노래를 안아오는
사랑의 발동소리 행복의 발동소리

울리고 울리어가라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포전과 포전을 넘어
이 땅 통연에서
이 나라 모든 포전들이 끝나는 저 한끝까지
충성의 노래 효성의 노래
만풍년의 노래로 울리고 울리어라

장군님이 그려주신 조선지도

김 석

아직도 강산에
해방의 기쁨이 넘쳐흐르던
조국해방 1돛을 맞는 그날
새로 발간한 벽신문앞에서
경위대원들은 환성을 올렸네

가로지른 38선 경계로
북은 붉은색
남은 검은색으로 그린
중대 벽신문 주화 조선지도

그옆엔
충전 병사의 모습과 함께
총대의 자량과 결의도
정성담아 써넣은 벽신문 특간호

잘 그렸다고 손벽치며
떠들썩한 대원들에게로
소문도 없이 오신 위대한 장군님
함께 독자가 되시여
벽신문을 보고 또 보시여라

뒤늦게 달려온
중대직일관의 구령소리에
전사들은 차렷자세로 섰는데
장군님은 천천히 벽신문앞을 거니신다
사색의 나래를 펼치시는듯

백두광야를 주름잡아
일제를 무찌르던 싸움의 그날에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사향가를 부르며 투사들 그려본 조국이

이렇게 돌로 갈라진 땅이었던가
하나의 내 조국을 위해
얼마나 시련많은 준령을 넘었던가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이름모를 이국의 산야에
붉은 피를 뿌렸던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우리의 조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하나로 잇닿은 하나의 조국

위대한 장군님은 지도를 그리셨네
친히 손에 붓을 드시고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푸른 산 푸른 들을

그리고 힘있게 말씀하셨네
지금은 북남으로 갈라졌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하나로 통일될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조선이라고

아, 전사들의 눈동자는 빛났네
하나된 조국땅 삼천리에
위대한 장군님 높이 모실
그날을 그려보며
별처럼 별처럼

축하합니다 김일성동지

엘미누르 아브디 모하메드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오, 사회를 이끄시는 빛나는 수령
인민의 념원안고 솟은 태양
젊은이들 그이를 높이 칭송하고
젊은이들 그이를 축복할 때
온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박수갈채 높이 환호하여라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아 시련뚫고 투쟁을 이끄신 수령
20여성상 일제와의 싸움에서
간악한 원쑤치고 중국적승리를 안아오신분
자주와 번영으로 인민을 이끄시기에
조선은 줄달음치네
보다 높은 진보를 이룩해가네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이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상
당신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대가

기쁨에 차넘치는 생활
인민이 누려가는 꽃피는 행복은
그이의 주체사상의 덕분이여라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그이 사상 풍부하고 탁월하기에
이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수령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더불어
만민은 그이를 환영하며
통일단결을 이룩해가네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우리 노래불러 축하합니다
당신께서 언제나 만수무강하시여
조선을 영원히 이끄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필자는 소말리아 공민임)

인류의 향도성

올리비우 베레이라

조선은 보았어라
항일전쟁시기
위대한 천재 주체시대의 향도성의 탄생을

일찌기 인민의 원쑤
미제의 야수성 꺾어보신 그이
인류에게 행복 안겨줄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어라

그이의 실천
위대한 품모는
위대한 사상 펼쳐주고
그이를 시대의 향도성으로 빛내주어라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
정력적인 령도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인민의 행복에 대한 념원

인류를 평화와 진보어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여라

김정일 그이는 인류의 천재
만민의 태양
그이께서는 위대한 사상리론활동 벌리시여
력사의 법칙 밝혀주시여라

고매한 덕성 지니신 그이
진심으로 만민을 돌보시고
조국을 사랑하시나니
인민은 그이를 우러르며
크나큰 신뢰안고
미래도 운명도 그이께 맡기노라
자기의 모든것 그이께 맡기노라

그이의 패기와 정열
그이의 무궁한 능력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혁명위업
빛나게 계승하는 넓은 길 열었어라

그이는 식민지명예에 짓눌렸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미주 인민들의 희망
그이는 피착취근로대중의 중심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태양

그이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오랜 세기 천대받고 억압받던

5대륙인민 위해
탄생하시었노라
우리 그이를 믿고
그이께 미래를 맡기고 따르노라

김정일 그이는 인류의 천재
김정일 그이는 인류의 향도성

(필자는 기네비싸우 당방송국 편집원임)

천하절승 묘향산

허창일

바위길 줄다리길
오르며 내리며 그 며칠
묘향산의 일만경치 다 보고
내 발길 돌리었더니

찾는듯 부르는듯 등뒤에서
소리소리 묘향산의 온갖 음향
다투어 내 귀에 흘러들어
나를 붙잡는구나

눈감고 조용히 귀 기울이나니
용맹한 군사들의 돌격함성인양
꿀안을 구르는 저 소리는
비선폭포가 바위북을 치는 소리 아니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천년수림 우듬지 파도치는 소리는
중중첩첩 묘향산의 산세를
목화처럼 우아하게 그려주고

이 산에서 땀뿜 저 골에서 쪼르릉
근심걱정 하나없는 저 새소리는
아름다운 묘향산의 모습을
눈감아도 선히 보여오게 하는구나

아, 귀를 기울여 들을수록
한가닥 잡음도 섞이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소리소리
묘향산의 일만경치 다 그려주거니

내 설사
앞뭇보는 장님이여도
이 절경 이 절승
놓침없이 다안고 가겠구나

아, 눈으로 봐도 천하절경
귀로 들어도 천하절승
참말로 묘향산은
명산중의 명산이구나

집

장 선

집이 있었나이다
아래목에 온기가 있는 그런 집
이웃이 있고
봄이면 강남갔던 제비가 날아드는
그런 집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오직 한분 당신께서만은
눈보라 울부짖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셨나이다
마을도 이웃도 없는
백두산귀틀집에 계셨나이다

이땅에는 있었나이다
울밖에 나서면 들국화 곱게 피는 벌이 있고
푸른 물이 모래를 씻어내리는
끝없는 백사장이 바라보이는...

그래도 가도가도 집없는 길
길없는 길을 걸으셨나이다
험준한 산밭과 울창한 밀림의 길
항일의 불비속에 자라셨나이다

집이 있나이다
이 땅을 행복으로 꽃피우시며
땅이 무겁게 일떠세운 집들이
기와집이 그림던 이 나라 아들딸들
하늘과 처마를 잇대고있는
그 층높은 집들에서 살고있나이다

그렇지만 당신께서만은
크고 화려한 집에 계시지 않나이다
우리들의 집과 다름이 없는
소박한 집에서 집무실에서
살며 일하고계시나이다

그리고 많은 고생속에 성장하셨고
그리고 인민에게 주신것 많으시여

큰 집에 모시고싶은
인민의 소원 세월따라 간절해지건만
그 청을 사양하시나이다

언제면 그 소원 풀어주시겠나이까
그 어느때에나
소박한 집과 집무실에 계시는
자애로운 그 영상
위대한 그 영상만 뵈오면
이 마음 뜨거움에 젖는것 아니옵니까

인민이 사는 그 모든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시며
우리가 살며 일하는 그 모든 땅을
자신이 사는곳으로 여기시나이다

자나깨나
이 마음속에 늘 계시는것은
그때문이 아니옵니까
백두밀영고향집의 작은 피창가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처음으로 바라보셨기에
우리의 집들에 해밝은 창들을 달아주는것도
그때문이 아니나이까

백두의 아들이시기에
인민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집집에 당신을 모시고 사나이다
그래서 계시는 집은 큰집이나이다
백두의 고향집에 솟은 빛발로 빛나는
우리들의 집-주체의 조국이나이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받들어갈
우리 인민의 밝은 집
미래가 해쫓는 아침같이 찬란한
어머니 이 조국이 당신의 집이나이다
김정일동지이시여! **김정일**동지이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사회주의경제관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백방으로 옹호하시면서 경제관리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따라세우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리적으로 밝히시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다.

1962년 정초의 어느날,

몸소 정치경제학강좌를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을 십여일동안이나 현지지도하시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관리체계를 새로 세워주신데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공업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앞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뚜렷이 나타날것이라고 하시면서 강좌에서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본질과 내용, 우월성을 깊이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주고 해설하는 글도 많이 써내야한다고 이리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로동신문》에 대안전기공장의 경험기사 《공장참모부》가 실렸을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장참모체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월한 생산지도체계로서 그 생활력이 크게 나타나고있다고 하시며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대안의 사업체계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2년 11월 9일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셨을 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선참으로 대학에 가지고 오시여 독보도 조직해주시고 매 학생들의 연구발취정형도 보살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원문에 대한 학습을 잘하도록 하시는 한편 새

로운 사업체계가 나온 이후 대안전기공장에서 일어난 혁신적성과들과 결부하여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속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학습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에 기초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63년 1월 위대한 수령님과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친히 조직해주시고 토론이 제값을 타고 진행되도록 깨우쳐주시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여러날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전과정은 아직 적지 않은 동무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과 특징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연구토론회를 마감하는 날인 1963년 1월 14일에 **《대안의 사업체계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물쭉린듯 조용한 장내를 둘러보시며 먼저 며칠동안의 토론회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신 다음 토론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보면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과 독창성에 대하여 아직 원리적으로 똑똑히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그 독창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었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독창성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여야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관리분야에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잘 알수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폭넓게 리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과 이전의 경제관리체계와 구별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하신 연설에 뚜렷이 밝혀져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것이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이며 혁명적본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확신에 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적으며 학생들은 대번에 눈앞이 확 열리는것을 느꼈다. 며칠째 토

론을 거둬들여도 석연치 못했던 문제를 그이께서 한마디로 뚜렷이 밝혀주신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혁명적 군중로선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이며 혁명적 본질로 되는 근거를 밝혀주시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로 된다고 전제하시고나서 그이께서는 경제를 어떤 원칙에서 관리운영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관리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풀어야 하며 기업관리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가 경제사업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경제관리의 원칙, 체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특징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할수 있도록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리기구를 새롭게 개편해주시고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바로세워주시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위력한 경제관리체제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전의 경제관리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계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은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이며 종합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기업관리를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론리정연하고 명석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학생들은 뿔어오르는 감동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단순한 관리기구의 개편이 아닌 관리방법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심오히 분석해주시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방법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통되어있는 기본방법으로 규정해주시으로써 학생들은 비로소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관리체계에서만 아니라 경제관리방법에서까지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라는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던것이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지배인유일관리체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지난날의 지배인유일관리체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점차 필요없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관리체계를 내놓지 못하였다고 하시었다. 오직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지배인유일관리체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경제관리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굳이 높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와 생산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분야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시었다.

지난날의 공장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인것이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옷사람과 아래사람들사이, 생산자들사이, 작업반들사이, 직장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기풍이 널리 발양되고 생산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어 일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넓은 경제관리체계로부터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경제관리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경제관리분야에서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의의를 심오하고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귀중한 말씀을 구절구절 뜨겁게 받아안은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옹호관철해나가시는 그이를 영명한 지도자로, 스승으로 모시고있는 비길데없는 영광과 행복감으로 하여 한없이 높뛰었다.

불패의 힘으로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 장편소설
《50년여름》에 대하여-

정우송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 장편소설 《50년여름》이 세상에 나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혼연일체로 결합되어 일심단결의 세찬 격류가 온 사회에 굽이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새로운 《9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빛내고있는 때에 장편소설 《50년여름》은 위대한 시대에 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한것은 소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요인과 비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과의 공고한 혼연일체속에 승리의 요인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적 해답을 주고있는것과 관련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소설이 총서형식의 소설창작의 요구에 맞게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의거한 력사문헌적성격과 진실하고도 감동적인 형상창조의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킴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준 의의있는 창작적성과를 이룩한것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면 어떤 원수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수령과 인민과의 혼연일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인민의 신뢰와 충성이 따르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혈연적인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력사의 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령도자의 예지의 비범성과 대담성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꿰뚫어보고 그 창조력을 믿는데서 우리나라오는것이며 혁명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의 조직적수완과 세련된 령도력도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있다.

겨레와 인민을 한품에 안을수 있는 령도자의 용

대한 포용력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일심단결의 위력도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대해같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이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가식과 변심없이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는것은 죽으면서도 그 위대한 사랑을 저버릴수 없는 인민의 끝없는 충실성에 기인하고있다.

여기에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혈연적인 공고성이 있고 무적의 불패성이 있으며 그러한 혼연일체를 담보하며 결정하는 탁월한 수령의 위대성이 있다.

장편소설 《50년여름》은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속에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시대와 력사, 인민과 민족의 거창한 운명문제와 관련된 심오한 사상을 밝히는데로 모든 형상을 집중시키고 장편소설 《50년여름》이 거둔 가장 주되는 사상에 술적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숭엄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지난 시기의 수령형상작품들에서도 수령님과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이루는 근본요인들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일련의 창작적성과가 있었다.

장편소설 《50년여름》은 수령님과 인민과의 혼연일체에 관한 문제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해방된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제도와의 련관속에서 그리고 북과 남의 각계층 군중들과의 폭넓은 관계속에서 형상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우리의 우월한 사회제도의 불패성, 각계층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의 근본원천으로,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으로 밝히는 새로운 창작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신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시여 적들의 그 어떤 침략기도도 짓부셔버리는 무비의 담력과 군사적예지의 비범성에서 숭엄하게 부각되고있다.

소설에서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믿음은 위대한 자애의 품속에서 생명을 받아안고 비로소

자기의 힘과 생명을 자각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인민에 대한 믿음이며 그속에서 더욱더 새롭게 커가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그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형상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 어떤 정세의 격변이나 역경앞에서도 바위처럼 드눌줄 모르는 강철의 의지력과 무비의 담력, 필승의 힘을 낳은 바탕이며 원천이다.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는 엄중한 사태앞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성된 인민들과 전사들에 대한 억척같은 믿음을 안으시고 긴장된 군사지휘관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적들의 준동을 살피며 끝내 쳐들어오는 경우 주동적인 작전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심, 이것은 무한대한 인민이며 익측, 이것은 피로써 맺어진 전우들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강철의 의지력과 무비의 담력은 위대한 수령님으로 하여금 적들의 전면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즉시적이며 동시적인 반공격전으로 넘어갈데 대한 단호하고도 추상같은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하신 안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이상 참을수는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놈들은 우리 인민이 어제날의 조선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모르고 덤벼들고있습니다. 어디 그 강도의 론법이 이 땅에서 통하는가 봅시다.〉

순간 그이의 눈에서는 섬광같은것이 번쩍였다.

〈이 즉시 우리는 전국에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모든 경비대들과 인민군부대들은 즉시적이며 동시적인 반공격작전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반공격작전이 기성전쟁의 경험과 리론을 볼 때는 모험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승리의 필연성이 있다는것을 보시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새 생명을 받아안은 각성된 인민의 힘에 있었으며 그 힘을 묶어세워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에 있었다.

인민에 대한 믿음은 또한 비범한 군사적예지에 기초한 탁월한 작전과 주체의 전법, 비상한 령군술을 낳게 한 바탕이며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성된 인민과 전사들의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강의한 정신력을 굳게 믿으시고 반공격전으로 이행한 인민군부대들을 가장 빠른 공격과 련속타격으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도록 하시였다.

주체의 전법을 체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이른바 《돌과교병》에만 매달려 적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채 무모한 희생만을 낸 위청사단장의 파오로 하여 52사의 진격이 늦어지자 앞서나간 53사의 진격속도를 늦출데 대한 최용건의 의견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의견을 단마디로 일축하시면서 오직 빠른 공격, 련속타격만이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주셨다.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 담력과 예지는 하나로 결합되어 거대한 기적을 낳게 한 바탕이며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들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을 지니시고 보조타격부대들이 서울측방에 진출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적의 다대한 무력에 위압되지 말고 서울계선에 진출한 주타격부대들으로써 서울해방전투를 조직할 명령을 내리시였다. 참으로 이 명령은 그이만이 가질수 있는 무비의 담력과 웅대한 배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그이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결합되어 전쟁사상 류례없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적의 5개의 정예사단이 밀집방어를 하고있는 서울을 2개 사단과 1개의 땅크려단으로 공격할데 대한 결심은 이렇게 내려진것이며 더구나 인민들과 도시의 구원을 위해 일체의 포사격을 불허하고 보병과 땅크의 소부대들에 의한 불의의 습격으로 적방어에 일대 혼란을 조성한 다음 총공격을 단행할데 대한 서울해방작전은 이렇게 구상되고 실현되였던것이다.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가 낳은 전대미문의 기적의 창조는 금강도하작전과 대전해방전투에 대한 묘사에서 더욱 웅장하고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전선사령관 김책이 도하선전대가 전투를 진행하여 적의 배후를 차단한 다음 주력부대의 도하를 개시하겠다고 금강도하작전구상을 보고드렸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하선두구분대가 적의 배후로 쳐들어가는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도하로 넘어가며 도하시간도 밤이 아니라 낮에 할데 대하여 시정시켜주시면서 전사들을 믿고 도하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것은 믿음의 작전, 믿음의 전법이었으며 담력과 예지가 낳은 최속공격, 련속타격의 새로운 구상이였다.

금강도하전투의 승리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해방전투의 승리를 위한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최현의 52사로 하여금 계속 피반공격시도를 견지케 하며 적들의 신경을 피반령으로 쏠리게 한 다음 룡산계선에 진출한 54사 18련대를 대전-령동간 도로에로 강행이동시켜 미기병1사의 대전지원을 차단하고 대전포위를 완성하며 이에 따라 기일을 앞당겨 7월 20일에 대전을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속에 최현의 52사앞에 조성된 위협과 미1기사의 대전진출에 앞서 도착해야 할 54사 18련대의 야간강행군을 비롯하여 대비할수 없는 적과의 력량차이로 인한 그 모든 난관들을 전사들의 애국심과 용맹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전사들에 대한 믿음이 굵어졌으며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승리의 지름길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비상한 예지가 빛을 뿜고있었다.

이 위대한 구상은 그대로 적들에게는 청천벽력으로, 군사예술사자들에게는 신비적인 기적으로 보여진 대전해방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실현된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민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멸망의 내리막길에 처넣으시는 세계사적위업을 이룩하실수 있었다.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다음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신의 정력을 깡그리 바치시며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무한한 헌신성에서 감동적으로 부각되고있다.

소설에서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매사람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속속들이 미치고 헤아리는 끝없이 넓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온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매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끝없이 깊고 따사로운 사랑으로 형상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고 이루어주시며 온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몸소 열어주시는 이 세상 가장 크고도 넓은 품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 나라의 평화와 안녕,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정력적인 노력에서 뜨겁게 형상되고있다.

놈들의 전쟁도발이 명백하게 된 엄혹한 사태를 놓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홍명희에게 전쟁이 터질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뜻밖에도 홍명희는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판에 칼들어오너라 하고 기다릴수는 없으며 결정적기회에 손손을 써서 싸우는것이 맑스주의원칙에도 부합되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저으셨다. 《우리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겨레가 서로 피흘리는 싸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사 맑스주의, 그보다 몇배로 훌륭한 주의로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참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원칙과 좌우명으로 내세우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였다.

그러나 놈들이 전면전쟁의 도발로 나오자 이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이행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공격작전명령은 각성된 인민의 지향과 결심을 따른 철석같은 신념에서 우리나라 온것과 동시에 미국놈들이 달려들기전에 하루빨리 조국강토를 해방하여 민족의 재난을 덜고 우리 인

민이 피를 흘리는 비극의 시간을 단축하시려는 겨레와 인민에 대한 대해같은 사랑으로부터 내려진것이었다.

서울해방전투 또한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민족의 문화적재부를 귀중히 여기시는 인민의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위대한 사랑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력사적인 전투였다.

서울시가에 대한 집중포사격을 예견한 전방지휘소의 작전계획을 변경시켜 포사격은 일체 불허하며 공격시간도 인명피해가 많을수 있는 밤이 아니라 새벽으로 할데 대한 포사격계획과 관련하여 시안에 혈육들을 남겨둔 림운학을 포함한 수많은 전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속 그늘마저 가셔주기 위해 검토되고 수정된, 아직은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담긴 경이적인 명령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준엄한 싸움에 일떠선 매 사람들, 전사들의 마음속 깊은 사연과 그들의 사랑과 미래를 헤아리고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끝없이 깊고 따사로운 사랑이다.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오랜 혁명투사들로부터 평범한 전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건강과 생활, 그들의 사랑과 미래,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몸소 보살피시고 안겨주시며 가꾸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인민의 진정한 아버지로 다함없는 친근성속에서 형상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38선의 위급한 정세에 대한 소식을 안고온 강건더러 정세에 대한 보고보다도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은 그의 건강을 더 념려하시며 1년나마 38선에 나가있는 최현을 부르시여 가족들과의 상봉을 마련해주신다.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과 슬기를 더 활짝 꽃피워주시고 사람들의 사랑과 화목을 소중히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은 리복심과 송기덕, 오영혜와 박로수들에 대한 보살핌에서 특별히 감동적으로 부각되고있다.

폭격현장에서 시신을 꺼내오고 전선원호품을 구원해낸 리복심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내 인민, 내 겨레에 대한 애정을 가슴넘치게 간직하시면서

그가 꺼내온 《승리》라는 글자가 불꽃처럼 수놓아진 세면주머니 하나를 자신께서 몸소 가져가겠다고 하신다. 그러자 리복심은 감사의 정에 몸을 떨며 장군님께 인사를 올린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해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충성스런 내 인민의 하나같은 마음의 상징인양 《승리》라는 붉은 글자가 수놓아진 평범한 세면주머니를 통해 흐르는 수령과 인민, 인민과 수령간의 혼연일체의 혈맥은 이처럼 뜨겁게 세차게 고동치는 것이였다.

더구나 이러한 리복심이 이미 알고계셨던 송기덕과 결혼했다가 갈라졌다는것을 순진한 마음으로 이

야기해놓고는 인차 당황하면서도 겁먹은 눈길을 들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욕하진 말아달라고 진심어린 간청을 드러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몽클해지는것을 느끼시며 북받치는 감격을 터치시듯 밝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적정마오, 동무같은 너인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소. 그 동무는 꼭 동무를 다시 찾아올것이요. 동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좋은 사람일테지.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물러가라고 쫓아도 올것이요. 편지도 할것이고… 나는 동무들의 사랑이 굳게 이어지리라느길 믿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평범한 너인에게서 이 나라 인민의 충성스런 모습과 함께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도 흠어지지 않고 거칠어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깊이 소중히 간직된 인민의 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으며 그 아름다운 녀에서 피여날 그들의 사랑과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시고 빛내여주시려는 뜨거운 정에 가슴불태우시는것이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서울병원에서 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고 누워있는 리복심을 찾아주셨고 그를 어떻게나 살리라고 명령하기도 했으며 부탁이기도 했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원장에게 말씀하셨던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을 가꾸어주시려는 그 간절한 소원이 가슴아픈 희생으로 하여 장군님에게서 마음속 고통으로, 상처로 남군하였으니 바로 오영혜와 박로수의 사랑과 희생이 그러하였다.

전선에서 보내온 사랑의 고백이 담긴 박로수의 편지에 오직 그만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약해질가봐 《전쟁과 사랑은 공존될수 없다.》는 회답을 써보낸 오영혜에게 동무들의 사랑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사람을 약자로가 아니라 강자로 만든다고 일깨워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오영혜의 성실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여주시고 그가 사랑하는 박로수를 비롯한 귀중한 전사들 모두를 강자로 되게 해주시려는 깊은 뜻과 뜨거운정이 넘쳐있다.

실지 박로수는 약자로가 아니라 강자로, 영웅으로 되어 장군님께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전우들 곁을 떠났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억속에서 영생하는 불패의 강자였으며 불멸의 영웅이었다.

소설에서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은 또한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무한한 헌신성으로 표현되는 위대한 사랑으로 형상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사령부로 나가시기 위해 서울로 가시던중 위험한 철교우로 건너가시는 장면은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중의 하나이다.

강부관의 무엄스런 만류도, 공병중대장의 죄스러운 눈물과 오영혜의 억지섞인 애원의 흐느낌도 아랑곳 않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이 전선에서 싸우

고있는 전사들을 잊고있다시며 검푸른 강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립진강철교우로 수원들을 이끌고 건너가시는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레루의 좌우로 두명씩 조를 짜고 각목과 통나무를 든 군인들이 해불을 들고 장군님 타신 차와 함께 달리는것이다. 만약의 경우 몸으로 차를 구하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세우고 눈물젖은 군인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보시다가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동무들, 고맙소. 그러나 이건 나를 피롭히는 일이요. 빨리 가서 다리복구를 다그치오. 전선에서는 포탄과 탄약을 기다리고있소. 다리를 빨리 복구하는것이… 나를 위한 길이요. 돌아서시오. 최고사령관으로 명령하는것이요.》

인민들과 전사들을 위한 자신의 끝없는 헌신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몸소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사랑이 넘친 눈물에 젖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였다. 전사들은 수령님의 안녕을, 생명을 바쳐 보위하고 수령님은 전사들을 위해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전선길을 헤쳐가시는 수령님과 전사들의 위대한 혼연일체를 후세에 전해주는 가장 뜻깊은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전선사령부의 새벽의 어둠속에서 대전해방작전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의 세계에 대한 묘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성을 얼마나 뜨겁게 이야기해주고있는것인가!

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철석같은 믿음과 장군님의 비상한 군사적예지에 의해 마련된 대전해방작전의 구상은 김책도, 강건도 그리고 강부관마저 다 잠들고 새벽의 어둠만이 깃든 태풍직전의 교묘속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바칠수 있는 그렇듯 위대한 헌신, 불철주야의 로고, 끝없는 심려속에서 비로소 탄생된것이였다.

장편소설 《50년여름》은 이처럼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철석같은 믿음과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의 결합속에서 빛나게 형상한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장편소설 《50년여름》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력사적사실의 충실한 재현을 심오하고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의 창조와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학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이에 있어서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의 빛나는 승리의 과정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세계적관도에서 벌어지는 신생조선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과의 첨예한 대결로 그리면서 방대한 폭의 무대와 거대한 군집단들의 전략적움직임의 묘사로부터 이 전쟁에 참가하는 매 인물들의 개성과 그들의 생활에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생동한 묘사를 주고있

다.

소설은 우선 세계적관도의 방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사건에 실재했던 구체적인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배합하여 그림으로써 역사적사실의 추상적재현으로 되게 하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적들의 불의의 전쟁도발에 즉시적이며 동시적인 반공격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빠른 공격과 련속타격으로 적들을 참패으로 몰아넣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전반적인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님을 보좌하는 인물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그리고있을뿐 아니라 리복심, 송기덕, 림운학, 성련화, 오영혜, 박로수, 전호근 등 보통전사들의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미제의 전쟁도발과 인민군대의 승리적진격에 따르는 적들의 비참한 패망과정의 진실하게 밝혀지고있다.

소설은 또한 거대한 군집단들의 움직임에 대한 로골적이고도 집약적인 묘사를 주면서도 여기에 구체적인인들의 운명선을 관통시키고 생동한 생활세부들의 묘사를 배합함으로써 단순한 현상적인 소개나 전달로 되게 하지 않았다.

소설은 또한 전쟁1계단의 반공격전의 생활적특성에 맞게 선두부대의 이동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그려나가면서도 그속에서 체험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적묘사를 배합함으로써 사건진행의 빠른 속도로 인한 생활의 피상적인 묘사로 되게 하지 않았다.

소설은 54사 18련대의 강행군과정에 대한 속도있는 묘사를 주면서도 여기에 송기덕과 전호근과의 관계, 송기덕과 리복심과의 관계, 그들의 눈물겨운 해방전생활과 복심에게 베푸신 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둘러싼 송기덕의 내면세계에 대한 다면적인 묘사를 배합함으로써 이 역사적행군에 대한 피상적전달이 아니라 그 행군에서 발휘한 전사들의 영웅주의의 바탕을 깊이있게 파헤쳐주는 인간화적인 화폭으로 되게 하였다.

소설의 성과는 또한 역사적사실에 충실하게 사건과 인간관계를 조직하면서 매 사건에 접하는 인물들의 관계속에 극을 체현시킴으로써 인간학의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한것이다.

소설에는 서로 련관된 덩어리 큰 세계의 사건이 설정되어있으며 그 매 사건은 전쟁승리의 요인을 밝히는데 이바지하는 서로 다른 형상관계를 안고있다.

첫단계의 사건은 미제에 의한 전쟁도발과 인민군대의 반공격전의 역사적사실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고있다.

민족에 대한 크나큰 사랑, 각성된 인민의 지향과 힘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시고 적들의 전쟁도발을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짓뭇개도록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웅대한 담력과 비상한 군사적예지

를 형상하는 과제가 첫단계의 사건묘사에 부여되어 있다.

서울해방전투의 역사적사실을 형상하는 둘째단계의 사건은 인민의 생명재산과 민족의 문화적재부를 구원하시려 서울시가에 대한 일체의 포사격을 불허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독창적인 우리 식의 주체의 전법의 거대한 생활력을 형상하는 과제의 실현에 이바지되고 있다.

대전포위작전의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구성된 셋째단계의 사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드팀없는 믿음과 탁월한 령군술, 주체의 전법에 의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짓부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놈들을 명망의 내리막길에 처넣은 대전해방전투의 거대한 의의를 밝히는 형상과제를 맡고있다.

소설은 이 커다란 세계의 부분형상과제들을 하나로 믿음과 크나큰 사랑이 낳은 수령과 인민과의 혼연일체의 힘과 승리와 미래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히는 총적인 과제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역사적사실의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었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간관계속에 심오한 극을 체현시킴으로써 역사적사실들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전환시켰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인간관계들이 안고있는 극의 진정한 미학적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충성에 의해 이루어진 위대한 혼연일체속에서 쌓여지고 터지는 극들은 실재했던 역사적사실들의 시대적 및 사상적 의미들로서 사람들을 끝없는 감동의 세계에 이끌고있다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인간관계들이 안고있는 극의 진정한 미학적원천이었다.

소설에서는 극이 안겨주는 미적정서도 다양하게 주고있으며 극을 터치는 방법도 다양하게 쓰고있다.

평천리폭격현장에서 리복심을 만나시는 수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엄혹한 전쟁환경속에서도 더욱 강렬히 빛을 뿜고 내려치는 인간의 아름다운 념에 대한 찬미의 정서가 터지는가 하면 박로수의 회생장면에서 터지는 극은 커다란 슬픔과 그것을 이기려는 인물들의 비장하나 영웅적인 정서로 물들여져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기본인물들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쌓아두었다가 터치는 방법으로 극을 조성했는가 하면 림진강장면에서와 같이 순간에 터치는 방법으로 극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극을 조성하는 방법과 극이 환기시키는 정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전쟁현실의 준엄성과 복잡성, 긴박성과 침예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실재한 전

쟁시기의 역사적사실들을 한본새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특색있게, 다양한 정서적충격을 주도록 그릴수 있게 하였다.

예술적형상화에서 소설이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소설의 모든 형상과 묘사들을 통하여 철학적심오성을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의 철학적심오성은 작가의 그 어떤 서투른 주장토로에 의해 손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소설은 품을 들여 정황과 관계를 조성하고 거기 에 인물들을 접촉시켜 그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내면세계의 움직임 을 그리는 방법에 의거하였다.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참예한 극적정황의 조성과 거기서 일어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의 다면적이고도 심각한 탐구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루어지는 철학적심오성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사실에 대한 높은 탐구정신과 진지한 사실주의적묘사정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전선사령부 집무실에서 대전해방작전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의 묘사는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소설은 이 장면의 내면세계의 묘사를 위해 미군의 전면개입과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다준 긴장과 초조 등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매우 긴박하고도 간고한 정황들을 설정하고있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예측과 타산, 희망과 현실, 추억과 환영, 결심과 탐구 등 복잡한 심리의 움직임들이 부단히 엮바뀌여진다. 그러나 그 모든 심리적움직임들속으로는 오직 하나 인민들과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지향과 열정이 힘있게 관통되고있다.

여기에 아무리 상세하고 생동한 전투장면의 묘사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생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의 길이 있으며 내면세계의 다각적이며 립체적인 묘사를 통항 철학적심오성보장의 정당성이 있다.

소설의 종장에 그려진 성송암의 내면세계의 묘사 또한 심오하다.

소설은 정신적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곡절 많고 수난많은 그의 인생총화에 대한 묘사로써 다른 그 어떤 인물의 정신적체험으로써는 대신할수 없는 객관성과 보편성, 그로 인한 침투력과 감화력을 지닌 령도자와 인민과의 혼연일체에 대한 위대한 진리의 발견과 확인을 주고있다.

장편소설 《50년여름》은 이상과 같은 높은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탁월한 령도사적을 가르쳐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뿐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높이 받들고 90년대의 새로운 진군길을 충성과 효성을 다해 다그쳐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값높은 위훈과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가사

쉬는날은 즐거워

오재신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은 즐거워
아이들은 아침부터 유희장에 가자네
마음은 낚시터에 끌리어가건만
아이들의 손목 잡고 길을 떠나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은 즐거워
안해와 약속 지켜 극장으로 간다네

장기관에 정신 팔려 놓칠뻔했구나
돌아오는 저녁길이 더욱 정답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은 즐거워
노래로 웃음으로 이어지는 이 하루
나날이 꽃피는 정서생활 좋구좋아
우리 생활 언제나 기쁨 넘치네

구호나무앞에서 외 1편

로창덕

청청한 숲속에서 나는 보았다
이끼오른 나무에 새겨진 글발
비바람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구나
인적드문 산중의 나무에 새긴 구호

항일대전이 쉬이 끝난다면
천년필체를 남기지도 않았으리
자기 운명만을 생각했다면
제이름 석자라도 남겼으련만...

네앞에 숭엄히 서있노라면
아버이장군님 우러러 한자
미래를 그려 또 한자
또박또박 새겨가던 그 모습
뜨겁게 안겨와라

-독립조선령수 **김일성**
만민이 일심으로 따르고 높이 모시자!

그날의 투사들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평양, 서울, 부산으로 가는
국내공작의 바쁜 길일수도 있으리

아니면 농민들과 마주앉아
10대강령의 조항조항을 해설하며
함께 만세를 부르던 때일수도 있으리
아니면 추격하는 적들과 조우하던
최후의 순간일수도 있으리

언제나 어디서다 장군님 받드는 그 마음
글획마다 글줄마다
뜨겁게 어려있구나
글발마다 투사들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누나

준엄하던 그 시절
한목숨바쳐 받들어갈
변치 않을 충성의 마음안고
투사들이 남겨놓은 불멸의 글발이어

너는 정녕 력사의 진리로
영원한 신념의 노래로
오늘도 력력히 빛나고있구나
그들처럼 수령님을 받들고 따르라고
세월을 넘어넘어 가르치고있구나

종구나, 휴식참의 오락회

흠뻑 땀흘리고 맞는
포전의 휴식참은 좋아
익어가는 금나락의 설레이미 즐거워
오락회를 펼쳤는가

무대아닌 나의 포전
관람자는 없어도
웃음많고 꿈많은 청년분조원들
풍년새 날아예고 벼이삭 설레이는
포전무대에 나섰구나

이른봄 애기모를 키우던
그 사랑 그 정성을 담아
우줄우줄 벼포기 아지치던 여름철
알뜰살뜰 포전을 가꾸던 그 마음 담아

풍년기쁨 노래로 담았구나
저보라
풀피리반주에 웅헤야 어깨춤
노래가락 춤가락에

익어가는 벼바다도 넘실대는
포전머리 오락회는 종구나

노래불러도
나라의 쌀독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일을 해도
수령님께 드릴 기쁨을 생각하는 그 마음

종구나 화려한 무대는 아니여도
얼굴마다 어리는 환한 저 웃음
노래 불려도 풍년가을의 노래
춤을 추어도 풍년가을의 춤
마음은 벌써
농촌테제 승리한 그날에 사는구나

아, 포전머리 오락회
풍년분배날
금난가리 하늘높이 쌓아놓고
온 나라가 환희에 들쭉일
그날의 춤판을 불러오는 오락회여

기쁨많은 시절

김수범

하늘이 저녁노을로 불탈 때 처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쁜숨을 돌리었다. 령에 올라서자면 아직도 퍼그나 걸어야 했다. 숲속은 벌써 컴컴해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령중턱을 가로질러 숲우를 뚫고 떠가는 광산의 삭도바가지만 아니라면 인간세상에서 버림을 받은듯 적막한 령길이다.

서로 마주 떠오던 삭도바가지가 탑우에서 당장 부딪칠것 같았다. 그러더니 순조롭게 스치었다. 처녀는 코와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안도의 긴숨을 내쉬었다. 착한 그의 마음속에서 삭도바가지가 어겼는지도 몰랐다.

잔등에 배낭을 지고 두손에다 보짐을 든 처녀의 어깨너머로 선들바람이 스쳐지나자 굵실굵실한 머리카락이 송라처럼 하르르하니 보기 좋게 날리었다. 어제는 삭도바가지도 움직이지 않고 처녀만이 가파로운 지름길을 뚫아오르는것 같았다.

처녀는 문득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저녁노을은 그의 모습을 비쳐주는 황홀한 조명이고 울창한 수림은 음악의 세계에 완전히 침취된 관객이었다. 이런 무대, 이런 관객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그렇게 알길없던 정든님 소식
집에 들은 군대동무 전해주었네
미국놈 백놈이나 쓸어놓히고
불탄 고지 지켰으니 영웅되셨네

나라의 자랑인 우리의 영웅을
그대로야 점찍해 어찌 만나나

처녀는 아주 만족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숲속의 맑은 공기와 화합된 청아한 그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분명 재청을 받았을것이다.

활짝 핀 처녀의 듣기좋은 그 노래는 입이 아니라 비둘기의 앞가슴같은 시원한 목밑에서 흘러나오는것 같았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의 설령대는 소리는 마치 반주없이도 독창을 잘한 처녀를 수군수군 칭찬을 하는것 같았다.

처녀는 혼자 깔깔 웃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노래는 《18번》이라 일컫는 지정곡이었다. 전쟁물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이 전시가오와 함께 처녀는 소녀때부터 자라났다. 처녀를 세월이 자래웠는지, 노래가 처녀를 자래웠는지...

고등중학교 4학년때였다. 하루아침 그가 집뜨락을 쫓며 감정을 잡아 이 노래를 부르자 어머니는 부엌문가에서 가만히 듣다말고 근심을 했다.

《애 영화야! 벌써 정든님 노래를 하니?》

《그럼 어때요?》

《어떻다니? 네가 스무살 넘기기 힘들가봐 그런다.》

《힉, 어머니 켜하면 그런 소리.》

영화는 그때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또 웃었다. 하지만 올해에 그는 스물셋, 학교를 마치고 판매원이 된지도 여섯해.

그의 희망은 풍성화려한 공업품매대에서 언제나 웃으며 광산마을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것이였다.

그의 희망은 실현되였다. 공훈광부이며 오랜 갱장인 아버지의 이름이 적잖게 은을 낸것이였다.

《그저 인젠 돈회계나 잘해라. 상품이 모자라고, 현금이 약차하게 비오 하는 따위의 소문이 돌고 여가저기 불리워다니는 꼴이나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잔걱정과는 달리 하고싶어서 하는 일이라 영화는 여적 힘든줄을 모르며 봉사성이 높다 칭찬도 받는다.

이즈막에 와서는 늙은이들과 아낙네들한테서 상품보다 사람을 탐내는 눈길을 반군하고 젊은 광부패거리들한테서는 결죽한 물엿같은 룡담을 받기도 했다.

《판매원아지미! 수고하우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의 마음과 억양은 여전하였다.

《거참! 사이다 맛인데... 저 판매원동무! 이 상점에 머느리감이 들어왔다는데 그걸 좀 보여줄수 없겠소?》

《우리모두 집단적으로 이렇게 직접 자기 눈으로들 보자는거요.》

《그런데 잔뜩 소문이 난데다가 값이 높다더군. 그게 사실이요? 판매원동무!》

영화는 웃으며 그들의 룡담을 서글서글하게 받았다.

《소문이 잘못났군요. 머느리감이 아니라 머느리의 웃감이겠지요. 국가가격인 그 웃감값이 오를리야 있겠어요.》

그의 말에 광부들은 재채기를 해가며 웃어댔다.

《야, 이거 한수 더 뜨누나.》

《그 〈문서〉는 졸업했군. 어! 이럴 땐 가는게 좋다구.》

《저썸하면 맞서야 손해랑이.》

《잘가세요. 다음번엔 졸업증을 갖고 오세요. 머느리감 사려.》

《히야, 이런... 사람을 영 녹이려 드는군...》

젊은 광부들은 상점의 출입문들이 찌그러지도록 한데 엉키여 나갔다. 옆매대의 정애언니가 성을 냈다. 왜 맵싸게 쏘아주지 못했느냐는 것이었다.

영화에게는 이러루한 일들이 수다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번도 성내본적이 없었다. 무엇때문에 얼굴을 찡그린단말인가. 상품판 팔아주는것이 판매원이 아니었다. 같은 값이면 기쁨도 웃음도 함께 주는것이 더 좋을것이였다.

산등성이는 해발 2천여메터나 되지만 영화는 짐을 지고도 힘든줄을 모르며 올랐다.

그에게 불쾌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몇몇 판매원들의 리기주의였다. 참다참다못해 언젠가 하루는 한마디했다.

《빛다른 상품이 오면 빈번히 제 얼굴을 내려는데 부끄럽지두 않아요. 우리한테 오는 상품은 판매원의 낯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산마을사람들의 살림을 끌고루 운택하게 하는데 필요한것이여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언니두 전엔 늘 그렇게 말하구선요, 자꾸 싸서 께짝에 넣으면 좀이나...》

하루총화를 하느라고 한창 전자수산기를 두드리던 정애언니는 탁아소생각이 나는듯 가슴을 문대다 말고 돌아보았다. 그는 계산이 엄청나게 틀렸을 때와도 같은 눈이였다. 그러더니 기쁜듯이 말하는 것이였다.

《야, 이거 정말 네가 이 상점구석에 있기는 정 가까운 재목이구나! 분명 우에서 너를 몰라 써주지 못하는구나... 하긴 이제 무슨 소식이 있겠지.》

그러면서 판매원도 자기 돈을 내여 살 권리가 있으며 제 아는 사람들에게 더 줄수도 있는거라고 장담을 했다.

《참, 언니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뭐.》

《야 야, 됐다됐어. 그런 문젠 이담 네가 취서 상점부장썸 된다음에 풀어도 늦지 않아.》

물론 이런 문제는 간혹가다 있는것이고 좀더 자주 생기는 말썽은 지금 가고있는 망일령너머 탐사대마을로 이동판매를 가는 문제였다.

영화가 거기로 이동판매를 떠나려고 하면 정애언니는 꼭 잔소리부터 앞세웠다.

《네 일이 참 답답하다.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은 말고라도 광부들을 위해 막장까지 이동판매를 하는 것두 기가 찬데 40리나 되는 거기까지 또... 애애, 판뒤, 정 급하면 오지 않으리...》

오늘도 떠나올 때 하던 그의 지청구였다. 하지만

영화는 탐사대마을사람들이 《정 급해서 올 때》를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없는 차편을 리용해보려다가 괜히 시간만 보내고 늦어졌다. 어느새 하늘에 비졌던 저녁노을도 사라지고 령길에 어둠이 따르기 시작했다. 어둠은 그대로 무서움이였다.

차라리 래일 떠날걸... 아주 어둡기전에 령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에 영화는 발을 재게 놀렸다. 당장 숨이 가쁘고 코마루에 땀이 돋았다.

그러나 영화는 애써 노래를 불렀다. 노래야말로 무인지경에서 공포를 쫓아버리는 길동무인것이다.

그렇게 알길없던 정든님 소식 집에 들린 군대...

노래가 갑자기 입안으로 잦아들었다.

뒤쪽에서 무슨 기침소리 같은것을 들었던것이다. (에그 이게 무슨 소릴가?!...)

하지만 그는 돌아볼념도 못했다. 모든것이 정치상태에서 굳어져버린듯싶었다.

저벅저벅... 또다시 군기침...

틀림없이 그것은 남자였다. 밤길에 무서운것은 범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옳았다. 영화는 금시 심장이 졸아들고 아래도리가 매시시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여 돌아서려는 순간 바로 등뒤에서 《동무, 같이 갑시다.》 하고 웅글은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였다.

그 소리에 영화는 《어마나!》하며 열결에 오른 손에 들었던 보짐을 떨구었다.

《아니 동무! 사람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오?》

보짐옆에 다가서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가슴이 짙 버그러진 청년의 말이였다.

《누구예요?》

《나말이요? 난 밤길 가는 사람이지요.》

아무 주저없이 자기의 《신분》을 밝힌 청년은 손에 쥔 몽둥이로 땅바닥을 툭툭 때리더니 허리를 굽히고 보짐에 손을 뻗쳤다.

《아니 다치지 말아요. 짐을...》

영화는 남의 소리같은 목소리로 부르짖는데 청년은 벌써 몽둥이에다 보짐을 꺾며 말했다.

《동무가 쥔 그 보따리도 마저 필요하오.》

하지만 영화는 보짐을 더 짊어쥐었다. 청년이 다시한번 요구했으나 끝내 영화가 듣지 않자 단념한듯 《하 이동무, 도와주겠는데... 정 싫거든 관두시오. 하지만 어디 봅시다. 얼마나 쎈가...》하고는 보짐을 꺾단 몽둥이를 넓고 든든해보이는 어깨에 올려놓더니 무작정 《갑시다.》 하며 제먼저 걷기 시작했다.

영화는 무심중 따라걸었다. 청년을 따라가는지

보짐을 따라가는지 아직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청년은 걸음이 빨랐다. 영화는 숨이 턱에 닿아서 쫓아갔다. 한참 말없이 걷던 청년이 불쑥 물었다.

《동문 원래 남자를 그렇게 무서워하오?》

영화가 대답이 없자 제잡담 결론을 내렸다.

《참! 락후하구만. 지금 어떤 시대라구… 아까 노래 부를 때에는 아주 용감한것 같더니 심장이 영 콩알이구만.》

청년의 말에 영화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이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나쁜 마음을 품고있을수 없다는 단순한 판단을 한것이였다.

《도대체 동문 어데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하!… 신분증검열이요? 할수 없군… 〈혁신갱〉 착암공이우다. 인젠 똥소?》

《예?!…》

(거짓말이다. 〈혁신갱〉 이면 아버지가 갱장으로 일하는 갱인데 난 이런 동무를 본적이 없다.)

《그나저나 동무, 좀 빨리 걸을수 없겠소?》

보짐을 마저 주지 않은 양값음을 하려는 심산같았다.

영화는 숨을 할딱거리며 대꾸했다.

《차라리 거기서 좀 천천히 걸으세요.》

청년은 걸음을 멈추며 영화를 향해 돌아섰다.

《동무, 좀 부끄럽기는 하겠지만 이제라도 그 보짐을 날 주는게 옳지 않겠소?》

영화는 이 보따리싸움에서 자기가 졌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년은 영화의 손에서 보짐을 받아 선채로 몽둥이 앞쪽에 걸었다.

《아예 그 배낭까지 주지 않겠소?》

《이건 일없어요.》

그럭저럭 령마루에 올라섰다.

청년은 보짐을 맨채 령아래로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동무! 힘들고 맥이 없을 때 약이 무언지 아오?》

《뭘 좀 요기를 하는거겠지요.》

청년은 웃었다.

《그저 먹는것밖에 모르누만. 이렇게 쉬는거요.》

그리고는 보짐을 내려놓더니 헐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영화는 얼마쯤 떨어져 배낭을 벗어놓고 앉아 손수건을 꺼내 이마며 목언저리 땀을 씻었다.

《어 덩군.》 청년은 단추를 벗기고 옷섶으로 흰 헝 부채질을 하더니 라이타를 꺼내어 담배불을 붙였다. 산등성이를 넘나드는 바람결에 꺼질가봐 옷동앞섶을 헤쳐막고 여러번 켜는 라이타 불빛에 땀이 흥건히 난 청년의 얼굴이 뚜렷이 드러났다.

《아!》 그 순간 영화는 가볍게 놀랐다. 언제인가

상점매대에서 본 인상이 떠올랐다. 아마 한달쯤 전이었던것 같다. 그날도 교대를 나가는 한무리의 젊은 광부패거리들이 공연히 상점에 들어와 한바탕 복새를 놓고 나간뒤였다. 저녁무렵이라 술금술금 총화준비를 하는데 대여섯살 나보이는 사내애가 두눈을 또릿거리며 매대앞에서 서성거리는것이 보였다.

《어린 동문 어디서 왔어요.》

영화는 물었다.

그제야 사내애는 키돋움으로 매대너머를 보며 발썩 웃었다.

《난 유치원에서 왔는 사람입니다.》

《유치원에서 왔는 사람? 호호.》

영화는 사내애의 말을 끝핍으며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왔는 사람〉은 무슨 일로 상점에 왔나요?》

《신.》

《신?》

《응.》

유치원에서 도망쳐나와 내가에서 동막이놀음을 하다가 그만 신발이 물에 떠내려갔다는것이였다.

《유치원선생님은 아시나요?》

두눈에 근심이 가득어린 아이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럼 어머니는?》

《엄만 직장에서 안왔어요.》

《그럼 신발 살 돈이 없겠군요?》

《있어요.》

꼬마는 발뒤축을 한껏 들어 키를 늘꾸더니 새까만 두손으로 매대우에다 50전짜리를 올려놓았다.

영화는 웃음이 터져나오는걸 애써 참으며 말했다.

《이 돈 누가 주었나요?》

《누나… 오토기배안에서 꺼냈어요.》

영화는 귀엽고 오돌진 총각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생각했다. 50전은 신발값이 절반도 안된다.

그렇다고 신발을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을것이 아닌가?

그는 주기로 결심했다. 모자라는 값은 몇푼되지도 않거니와 제 돈을 보충하면 될것이였다.

그때였다. 매대 저쪽에서 아까부터 상품을 살펴보고있던 한 청년이 다가왔다. 양복안주머니에 들어가있던 손이 나오더니 돈을 매대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판매원동무, 이 돈으로 애 신발을 주시오.》 그리고는 《자식.》 하며 손가락으로 총각애의 언덕이마를 톡 튕겨주고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

첫순간 아연해졌던 영화는 문밖을 나서는 그를

다급히 찾았다.

《손님, 손님, 이건 안돼요. 판매규정위반이에요.》 했으나 청년은 문턱을 밟은채 얼핏 돌아다보며 《동무, 다르게 생각할건 없습니다.》 하고는 가버리는것이였다.

영화는 텅 하고 닫기는 문을 바라보며 혼자 종알거렸다.

《별난 사람 다 보네. 돈이 문제인가. 남의 속은 모르고...》

그런데 바로 그 《별난》 사람을 이런데서 다시 만난것이다.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청년이 불쑥 물었다.

《한데 동문 왜 하필이면 이런 밤길을 걸소. 판매원이...》

《판매원은 밤길을 걸으면 안되나요?》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판매원이 밤길을 걷는다는건 좀... 여길 자주 오우?》

《자주는 아니래두 이따금... 저 하나가 수고하는 대가루 탐사대사람들이 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밤길두 그리 무섭지 않아요.》

《음》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감심한 어조로 말했다.

《이런 말 한다구 동무 날 나쁘젠 생각지 마우. 사실 난 입때껏 동무같은 상점판매원이나 간접부문에서 일하는 처녀들을 끔찍이 싫어했소. 우리 광부들한테는 곁을 잘 주지 않는것 같은게 어쩐지 밉더라 말ियो. 그러나 오늘날 동무를 보고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소. 중요한건 누가 어디서 일하는가 하는것이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오. 안그렇소?》

《그래요.》 하기에는 어딘가 스스로 자기 칭찬을 하는것 같아 《글쎄요.》 하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내려가는 길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굽이굽이 에돌아 마지막 산굽이를 벗어나자 앞이 흰히 트이며 고깔모양의 희뽕한 탐사대천막들이 불빛과 함께 손에 잡힐듯 내려다보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5리쯤 실히 가서야 집들어 나졌다.

《자! 여기가 합숙이요.》

청년은 이곳을 많이 다녀간듯 영화도 모르지 않는 탐사대합숙마당으로 들어가며 주인들을 찾았다.

안에서 달그락거리며 설것이를 하던 50대의 책임자아주머니가 나왔다. 새어나오는 밝은 불빛을 마주하고 서있는 두 젊은이를 알아보고는 놀랐다.

《에게나, 무슨 일루다 이밤에...》

《광산공업품상점에서 이동판매를 왔수다. 저녁식사랑 꾸짖히 해 대접하시우.》

청년은 몹시 반가와하는 책임자아주머니의 수선

에는 아랑곳없이 보침을 내려놓고는 영화더러 작별인사를 했다.

《자, 그럼 이동판매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마워요.》

청년이 떠난뒤에 영화는 식당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짐들을 날라들었다.

숨을 돌리고난 그가 저녁식사를 할 때 녀인들은 젖은 손을 씻고 연방 탄성을 올리면서 상품들을 구경했다. 아직은 팔린것도 아닌데 색다른것이면 제마끔 제것이라고 우기는 녀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영화는 식당책임자녀인에게 물었다.

《저, 아까 그 동무가 여기에 자주 다니는가요?》

《누구? 응 제대군인총각?》

《네.》

《아니 함께 오구두 모르나?》

영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두 잘은 모르는데 요즘은 뻔질나게 찾아오군하지. 광산에서 쇠돌밭이 없어졌다든가. 그걸 찾느라고 우리 탐사대 기사한테루 땀기는데... 총각이 잘났지?》

《아이참, 전 얼굴도 똑똑히 못봤어요.》

영화는 공연히 부끄러움을 타며 귀불까지 빨개졌다. 그러자 식당책임자아주머니는 묻지도 않은 소리까지 했다.

《그럼 후에 품을 놓고라도 보라구.》

《그건 왜요?》

《왜라니, 총각이 나기두 잘났지만 뒤편이는 더 훌륭하대. 오죽하면 우리 탐사대기사가 매부를 삼고싶다고까지 했으리...》

녀인이 왜 그런 말까지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영화는 모른척 시치미를 떼고 응수했다.

《그리 욕심나면 매불 삼으라지요 뭐?》

《누이가 있어야지?》

《어마나, 호호호.》

밥을 먹다 말고 영화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쳤다.

영화가 상을 물린뒤에 상품구경도 끝나서 모두들 자리에 누웠다. 종일 식당에서 맴돈 녀인들이라 인차 잠들었다. 영화도 피곤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잠을 들수 없었다. 눈앞으로는 자기의 보침을 몽둥이에 꿰어메고 함께 망일령을 넘어온 그 청년이 떠오른다.

이제 와서 영화는 괜히 아까 그 총각을 의심한것이 어쩐지 죄스럽고 미안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동무가 정말 《혁신갱》 사람이 맞을가? 우리 아버지가 혁신갱 갱장인줄 알고 거짓말을 해본게 아닐가. 하지만 그까짓것은 아무러나 좋다. 중요한것은 그가 하던 말이다.

그가 뭐라 했던가? 그래, 나같은 판매원이나 간

접부문에서 일하는 처녀들은 굶지 않게 본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밤엔 그런 견해를 바꾼다고... 그리고 또 뭐라 했던가? 응 그래, 중요한건 누가 어디에서 일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거라고 했지.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일했을까?

그 동무의 물음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일하며 살아왔다고 떳떳이 대답할수 있을까? 정애언니... 정애언니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가 뭐...라고...

그 다음은 잠이 생각을 먹어버렸다.

이튿날이었다.

가져온 상품을 다 처리한뒤에 몇가지 토산물수매까지 받고난 영화는 오전 열시경에야 탐사대를 떠났다. 수매품을 받은탓에 짐은 거의 올 때만큼 되었다. 혼자서 령을 넘느라니 또다시 그 청년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혹시 자기먼저 광산으로 돌아간것이나 아닐까? 왜 잊겨녀에 물어보지 못했담. 언제 돌아갈테냐구... 그럼 다시 같이 망일령을 넘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영화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광산마을에 들어섰다.

상점에서는 판매원들이 떨쳐나서 한창 자동차로 실어온 새 상품을 부리우고있었다. 모두 먼데 갔다 오느라 힘들겠다면서 쉬라고 했다.

그러나 영화는 함께 상품을 부리우고 날랐다. 다른때 같으면 일부러라도 쉬었으련만 오늘은 웬일인지 조금도 그러고싶지 않고 일해도 일해도 기운이 더 솟는것이 이상했다.

(마음이 기운을 낳는다더니.)

이틀후였다.

점심식사를 끝낸뒤 단둘만 있는 휴게실에서 정애언니가 알곳은 눈길로 쳐다보더니 묻는것이였다.

《애 영화, 너 어제 누구와 함께 망일령을 넘었니?》

《모르겠어요. 〈혁신큡〉 착암공이라더군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사이좋게 가는게 부러워서 키돋움을 하느라니 목이 다 늘어나더구나... 세월은 화살처럼 인생을 누벼갔지. 너희들 때가 있는것 같지 않다.》

사랑냄새를 맡는데는 귀신같다는 정애의 말이였다.

영화의 짐속에서 나온 각종 날짐승털이며 메돼지 가죽, 희나무가지들과 파비닐들은 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 보내여 《8월3일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자는것이였다.

영화는 가내작업반들과의 련계를 가지고 회솔과 털부채, 먼지떨개와 희나무저가락 등 실로 많은 제

품을 만들게 하였다.

영화는 설새없이 뛰어다니면서도 그 밤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청년을 가끔 생각했다. 어데서 또 만날것 같기도 하고 문득 자기앞에 나타날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좋은 청년을 세상 못쓸 사람처럼 여기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자기가 그지없이 맹랑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늘 한가지만을 생각하지 않는 법이여서 속구구가 가지를 치군했다.

《애 영화야! 너희들두 바쁘겠지만 우리 광부들이 여간 수고를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좀 이동판매를 또 조직하려무나.》

아버지의 말은 영화에게 전에없이 싫지 않게 들리였다.

어느날, 그는 아버지를 따라 갡으로 들어갔다. 갡입구에는 술한 속보판이 세워져있었다. 그중에서도 영화의 눈길을 끈것은 《끊어진 광맥을 찾기 위해 착암공 박동석은 기술자들과 함께 산밭을 오르내리며 투신》, 《창의고안명수, 이달 계획 또 300% 착암공 박동석》라는 속보를 들여다보던 영화는 저도 모르게 속이 활랑거렸다. 그날밤, 산정에서 만났던 제대군인 광부의 모습을 그려보며 혼자 생각을 굴러보았다. (혹시 그 청년이 아닐까.)

영화는 아닌보살을 하며 던지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 끊어진 광맥을 잇기 위해 애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음, 탐사대에서 확정한 광량이면 우리 갡에서 10년도 더 캐먹을수 있지. 헌데 얼마전부터 굴진하다가 광맥이 끊어져서 광산참모부적으로 물의가 일어났지.》

영화는 광산내막을 잘 모르는 소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광맥이 확정되기전에는 굴진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굴진공들이 어디 가만 있겠다더냐. 제나름대로들 뛰어다니며 안타까워들 하고있지. 동석이 그 사람이 분주탕을 피우며 끝내 우기는바람에 모두 들썩했단다.》

그제야 영화는 험한 산길을 함께 걷던 그 내막을 비로소 가늠할수 있었다.

《모두 떨쳐나서면 일이야 성사되기마련이지요 뭐.》

《허 참, 일이 생각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냐. 허지만 일이 성사되기만을 앉아서 기다릴수 없지않냐. 말그대로 범의 고리를 잡은셈이지.》

아버지는 안타까운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와 영화가 갡휴게실에 당도했을 때에는 광부들 모두가 작업을 앞두고 담배를 한대씩 피우며 한창 떠들썩하니 룡담을 하고있었다.

《허어! 이거 오늘은 갱장아바이가 딸까지 데리고 온걸 보니 일을 단단히 축낼 잡도리갈수다.》

광부들은 딸이 고와서 가시아버지를 반가워하는 격으로 판매원 영화가 나타나자 모두 활기를 띠었다. 본바탕이 아름다우면 작업복에 안전모를 써도 어울리기만 하였다.

갱장한테 자리를 권한다, 담배를 권한다, 불을 켜 준다, 서로 부산들을 피우는것은 영화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작이었다. 다만 결눈으로 동석을 훑쳐본 영화만이 압축기음향같은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있을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착암기에 기쁨을 치고있었다.

《그런데 저 갱장아바이! 우리 작업반에 대단한 인물이 있수다. ...어떤 과학자는 지레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겠대구 했지만 동석이 저 친구는 글썽 맨손으로 지구를 들구 훌쩍 뛰어오를수 있다우다. 감투가 커두 귀가 짐작이라구 뻔한 거짓말을 글썽...》

《뭐 뭐라구?!...》

두눈이 휘둥그레진 갱장이 그 청년을 돌아보자 막장에서는 으하하 웃음이 터졌다. 영화도 손으로 입을 막은채 허리를 고부리며 웃었다.

《저 룡담두 어지간히 통이 크군. 팬찮아. 하여튼 영똥한 그 궁냥이나 말해보게 엉?》

아버지도 딸도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갱장이 동석의 결으로 다가앉았으나 그는 하나도 신기한것이 없다고 했다.

그럴수록 갱장은 자기 나이를 다 잊은 사람처럼 그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그는 막내딸이 곁에 있다는것도 다 잊었다. 지구의 가슴속같은 막장이란 이런곳이다.

《앵이 광부답게 툭 털어놓을게지. 괜히 값을 높이누만.》

《갱장아바이! 그렇대구 해서 막눅거린 아닙니다.》

《그래? 제길... 정 그렇다면 내 저금통장을 그냥 통채로 다 주던가. 가불간 달라는건 다 주겠네.》

《딸두요? 딸이야 아니겠지요.》

《여, 그런 룡담은 하는게 아니라구.》

영화는 얼굴이 화끈했다. 부끄러웠다.

자기 생각만 하는 아버지때문에 영화는 아무데건 달아나고싶었다.

《아바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없수다. 착암만 잘되면... 그러니까 내 시원히 툭 털어놓지요.》

이야기는 간단명료했다. 만약 누구든지 두손으로 땅을 짚은채 꺼꾸로 서기만하면 다른 행성에서 볼때 지구를 들고 훌쩍 뛰어오른것처럼 된다는것이 다.

《엉?!...》

《으하하!...》

막장이 떠들썩하게 큰 웃음이 터졌다.

영화에게는 어처구니 없으리만큼 기발하고 유쾌한 그 룡담보다도 그뒤에 따르는 말이 더 놀라왔다.

《갱장동지, 지구를 들어 올릴 사람도 있는데 광맥이야 찾지 못하겠습니까. 14호편도를 끝까지 내밀시다.》

《허 엉큼한 사람들같으니라구. 그래서 한수 더 뜬게로군그래.》

입맛을 다시며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영화에게는 왜서인지 야속스럽게만 여겨졌다. 영화의 눈길은 동석에게로 피꼭 쏠리었다. 그는 열정에 타는 두눈을 빛내이며 아버지의 팔목을 부여잡고 웨치듯이 말하는것이였다.

《탐사대에서도 확신하는 일인데 우리가 맥을 놓을수 있습니까. 그 광맥만 터지는 날엔...》

《그건 나두 알구있소. 하지만 일은 신중해야 하니까. 이번 분기계획도 뻔뻔한데 다음 기회에 보자구. 갱력량을 절반이나 들여밀었다가 허탕을 치는 날엔 어떡허구.》

갱장은 듣기 좋게 한마디 하고는 달래듯이 그의 어깨를 툭 치더니 다른 마구리로 가버렸다.

영화만이 남아서 광부들의 일손을 도왔다. 그는 몸에서 땀이 그냥 흐르도록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저 전에없이 마음만 착잡했다. 바로 여기사 동석을 무언으로나마 만날수 있을것때문일것이다. 게다가 착암기를 틀어잡은 그의 모습은 또 얼마나 림름하고 믿음직한지 몰랐다. 방금 한 그의 룡담도 기발하고... 분명 아버지도 그를 좋아하는것 같았다.

영화는 광부들의 일손을 도우면서도 자꾸만 그에게 눈길을 주었고 그쪽에서 자기한테 무슨 말이든지 건네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드센 손탁으로 착암기를 잡은 동석은 이제 뿤어 할 암벽을 가슴으로 밀 궁리만 하는것 같았다.

그럴수록 영화는 마음과 달리 점점 그와 떨어져서 일을 하였다.

왕청같은 청년들만이 영화의 곁에 와서 좀 쉬라는등 땀을 흠치라는등 걱정을 했다.

드디어 휴식시간이 되였다.

영화는 상품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메고 다니는 비닐가방에 광부들이 꼭 필요해할것만 가져왔다. 순식간에 거의다 팔리였다.

《갱장아바이가 집에서 힘든 일은 동무한테 다 시키는 모양이구만... 날래 굶은 남정로력이 있어야겠는데 야단이다...》

《그럴것 없이 아예 우리 갱에서 함께 일하지 않

겠소?》

누구나 우스개소리를 하며 담배를 피웠다.

동석이만이 담배연기를 깊숙이 삼키며 또 암반을 살펴보고있었다.

(정말 별난 사람이다. 괜히 점잔을 빼면서...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건넬줄 알구 흥. 천만에.)

영화에게는 괜히 앙큼한 생각이 뿔처럼 돌아났다.

《저 판매원동무! 라아타돌은 없소? 사람이 깽지 근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서...》

그의 말이였다. 너무도 진정이 어린 목소리여서 앙큼하던 영화의 생각은 말끔히 없어졌다.

《몇알이나요?》

《열알쯤...》

영화는 라이타돌 열알을 세여주고 동석의 곁으로 맵시를 내며 걸어갔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거동을 유심히 지켜 보는것 같아서였다.

한손에는 라이타를 다른 한손에는 담배를 쥐었던 그가 영화가 다가오자 제격 담배를 입에 물고 손바닥을 펼치였다.

영화는 그 크고 두툼한 손바닥에 라이타돌을 놓았다. 몇알은 아직 처녀의 땀배인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하!... 너무 짝 쥐였구만... 그러나 동무가 옳소. 나라의 재산은 1전어치라도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하오.》

그는 유쾌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웃음소리에 얼혼이 다 날려가버린듯 한 영화는 부랴부랴 두손을 비비며 털었다.

《아쩔싸!...》

동석은 땅바닥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다른 광부들은 서로서로 마주보며 싱글거렸고 영화는 다시 라이타돌을 가지러 갔다.

(모래불에서 좁쌀을 찾는 격이지... 남자가 왜 저리 찌찌할가. 사람은 지내봐야 알겠구나.)

《필요없소. 판매원동무! 내가 공짜로 가지라오? 동무가 변상을 하겠소?》

그는 간단히 찾을수 있다면서 영화한테로 다가와 라이타돌값을 주었다.

영화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잠시 주뭇거렸다.

《자, 이걸 보오. 자석이요. 이것으로 간단히 찾소. 죄피만 착암기의 부속을 떨구었을 때에도 이게 내 손을 도와주오.》

동석은 작업복주머니에서 자석을 꺼내보이며 영화를 조용히 납득시켰다.

영화는 이제 발파시간도 될것 같고 상점에서 사람들이 기다릴것 같아서 갱을 나섰다. 기분이 좋지 못했다. 몇알의 라이타돌이 모든것을 다 잡쳐놓았다.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은 유쾌한것과 불쾌한것이 교류전기처럼 부절하게 엇바뀌는 모양이다. 그래서 회로애락이라는 말이 생겨난것 같았다.

그러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다. 영화는 두번째로 만났지만 동석의 자석에 마음이 라이타돌처럼 끌리웠다.

공업품으로 점점 화려하고 풍성해지는 상점은 무대이고 거기서 실재없이 봉사하는 영화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열렬히 보내는 박수를 받으며 소리없이 노래를 부르는 배우였다.

《애 영화야! 그때 탐사대로 같이 갔던 총각이 룡담두 일두 그렇게 잘한다지?...》

상점문을 열 차비를 하며 정애언니가 하는 말이였다. 영화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하자 그는 한수 더 떴다.

《총각을 사귄 때는 그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봐야 해, 괜히 덤비지 말구...》

그 말을 들은 영화의 얼굴은 샅시에 귀밑까지 달아올랐다.

(내가 왜 이럴가.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러나 생각을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것 같았다.

상점안에 손님들이 들어서서야 편뜻 자신을 가다듬은 영화는 옷매무시를 살펴보고 매대앞에 바로 섰다. 그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래일은 상점에서 쉬는 날이다.

퇴근길에서 영화는 갑자기 누가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것처럼 문득 멈춰섰다.

《영화동무!...》

남자의 목소리에 돌아선 영화의 가슴속에서는 무슨 큰 새가 날개를 화닥닥 퍼덕이는것 같았다. 그 청년이였다.

《잘 있었소? 오래간만이구만.》

《...》

이런 순간을 못내 기다려온 영화였지만 그는 이런 경우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가지고있지 못하였다.

《퇴근하는 길이면 같이 가지요. 나도 일을 마치구 합숙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들은 함께 걸었다.

저녁노을은 아름답게도 비끼였다. 영화는 탐사대로 가던 때를 생각했다. 그때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지금 영화는 왜서인지 웅색한 생각을 놓을수 없었다.

《저는 정말 두루 미안한 점이 많아요. 탐사대로 갈 때 집만 생각한것두 그렇구 라이타돌을 떨켰을 때랑...》

《참! 기억력이 좋구만... 그런데 동문 왜 할일이 많은 앞을 내다보며 살지 않구 뒤만 돌아보우. 그럴

래일엔 또 오늘을 후회하겠구만.》

《예?!...》

《그날 나더러 소리를 친것이랑, 라이타돌이랑... 동무야말로 뽕게 처신했소. 그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이기때문이요.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생활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엔 동무의 진심이 있거든...

사실 나는 그다음부터 늘 동무를 생각했소.》

스적스적 걸으며 한 그의 말에 영화는 그만 가슴이 뭉클했다.

라이타돌보다 더 작은것이라도 그것이 나라의 재산이라면 응당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사람은 큰일을 할수 있다고 청년이 말해주었다.

그의 말은 영화에게 너무도 친절히 들리었다. 그래서 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런 말까지 할수 있었다.

《요즘 갱일은 어때요? 광맥을 찾았어요?》

《그걸 다 어떻게 아요? 갱장동지한테서 들었소?... 하긴 광석에서 밥도 노래도 다 나오니까...》

《아뇨, 그전에 알았어요. 탐사대에 갔을 때.》

그 말에 동석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영화를 돌아보았다. 영화의 진정어린 마음을 감촉한 그는 요즘 갱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루루히 설명했다.

《이제 조금만 더 굴진해 들어가면 끊어진 광맥을 찾을것 같소. 모두 열성은 높아져서 한교대에 세발파씩 해대지만 버럭더미가 걸렸거든.》

영화는 제일처럼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했으나 동석은 너그럽게 웃는것이였다.

《일이야 어렵지요. 하지만 이제 광맥을 찾게 될 기쁨을 생각하면 그쯤한거야 큰 일이겠소.》

그 말이 영화에게는 못내 큰 미더움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그를 위하고싶은 생각이 앞섰다.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우릴 돕다니, 영화동무가?》

동석은 능청스레 눈을 끄떡이였다. 그럴수록 영화도 피어오르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채 속삭이였다.

《저두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싶어서요.》

《음 그랬구만. 그 마음이 벌써 우릴 크게 도와준 거요.》

《아니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땀흘려 얻은 기쁨이라야 진정으로 귀중한거지요 뭐.》

《영화동무! 내가 동무를 도와줄진 없겠소?》

동석은 문득 영화의 두손을 감싸쥐고는 더 말을 못했다. 아니 그 뜨거운 눈길에 더 많은것을 이야기하고있었다. 그 마음을 처녀의 예민한 감각으로 느낀 영화였다.

《아마 제일 힘든건 오른팔이 아픈걸거요.》

《아니, 그건?》

《자동차로 들어오는 술한 상품을 결국엔 그 팔로 나르고 쥐여주기도 하겠지... 순간순간에는 몰라도 매일 몇푼씩... 고마운 제도지.》

그 말을 고스적히 들은 영화의 마음속에는 그와 함께라면 무궁한 생활의 더 큰 보람을 안아올것만 같았다.

갈림길에서 헤어지기 서운해하는 영화를 지켜보며 동석은 히죽이 웃었다.

《영화동무, 우리 갱장동지를 잘 도와주요. 요즘 아름다운 일을 맡아안고 애쓰시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남긴 영화는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섰다. 난생처음 자기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깨달았다. 사람들의 한생에서 노래가 많고 꿈이 많고 웃음이 많은 시절, 기쁨이 많은 시절은 의례히 젊음이 넘치는 때여서 누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면 일 많이 하던 때가 제일 기쁘고 좋았다고 늘 추억하기마련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자기일신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언제나 진심으로 심장을 바쳐 헌신할 때 가장 값높은 기쁨이라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것이 아닌가. 일생을 고스란히 충효로 불타는 당의 딸답게 일하고 또 일하면 누구나 자기의 한생을 기쁨이 많은 시절로 충만시킬것이었다.

스스로 자기의 이런 기쁨을 찾아내고 창조해낼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의 늙음을 모르며 언제나 젊어 살수 있었다.

이런 생각때문에 그의 발걸은 점점 가볍고 온 세상에는 자기의 기쁨이 가득차있는듯하였다.

그렇다. 그는 남을 위하면 늙지 않고 사회와 조국을 위하면 오래 산다는 아버지의 말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가?

×

어느덧 여름도 가고 가을도 마가울에 접어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게 뛰어다녔다. 갱일로 해서 늘 마음을 쓰던 아버지가 요즈음은 노상 싱글벙글이다. 끊어졌던 광맥도 다시 찾고 년간계획도 거의 석달이나 앞당겨 끝냈으니 웃음이 어리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영화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혁신갱》의 성과를 감수했고 그 얼굴을 보며 동석의 믿음직한 모습을 그리곤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으며 마른일, 젖은일을 가림이 없이 알심을 보이였다. 또 동석과 자기를 비교해보며 마음의 탕개를 두번세번 조이고 또 조이였다.

영화는 쉬는날이었으나 다른 쟁으로 이동판매를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었다.

그가 상품가방을 지고 광산마을을 막 벗어나올 때 가두고성기에서는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특출한 로력적위훈을 세운 다음의 단위들에 감사문을 보내였습니다.》

영화는 가슴에 너무도 강한 충격을 느끼었다.

광산에서 맨 선참으로 연간계획을 100프로로 넘쳐수행한 아버지네 쟁에 감사문을 주었던것이다. 영화는 이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광산마을에서는 벌써 크나큰 경사로 하여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든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넘실거렸다. 영화는 어쩐지 그 감사문을 자기가 받은듯이 가슴이 활랑거렸고 온몸이 뭉뚝되는듯싶었다.

영화는 기쁜맘으로 이동판매의 길을 다그쳤다.

점심시간이 되어 영화는 집으로 들어갔다.

《어이쿠! 우리 판매원이 들어오는군.》

《아이 아버지! 축하해요. 오늘은 집에서 쉬시겠지요?》

《아니다. 광산당위원회에서 몇사람을 불러 쟁에 나왔는데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겠다. 정말 요즘엔 기운두 나구 췌어도 지는것 같다.》

수염도 번듯이 밀고 제복까지 척 차려입은 아버지의 온몸에서는 정말 싱싱한 기운이 풍겨왔다. 이때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쟁장아바이 계십니까?》

《누군지 들어오시오. 거 목소리가 귀에 익다.》

영화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정지문을 여니 문가에는 양복차림을 한 박동석이 서있었다.

영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찌자고 여길 찾아왔을가?

허나 동석은 영화의 마음엔 아랑곳 없이 싱긋 웃으며 인사를 했다.

《글쎄 자네같다 했더니... 벌써 시간이 됐나?》

《아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동석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러면 무슨 일루?...》

아버지는 의아한 빛을 띠운채 엉거주춤 일어섰다.

《에그, 당신두, 찾아온 사람을 들여놓지도 않고 그제 무슨 인사요?》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나오며 아버지를 나무랬다.

《허참, 이것보지. 어서 들어오라구.》

아버지는 들썩거리며 웃고는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다만 영화만이 어쩔줄을 몰라 옷방으로 달려올라갔다.

옷방 문뒤에 몸을 기대고 선 영화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가슴을 두근거리며 아래방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점심상을 들여오라고 호기있게 소리를 치고는 동석의 출현이 궁금한지 무슨 일로 왔는가고 대답을 재촉했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광부식으로 내밀어야 할가 봅시다. 저... 말하자면 영화동무와 저의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뭘 뭐라구, 세상에 이런 일두 있나? 하긴 있을수 있는 일이지. 으하하!...》

아버지의 절절한 웃음소리는 온 방을 꽉 채우는듯했으나 영화의 가슴은 널을 뛰는듯 쿵당거렸다.

(어마나,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댔나?)

영화는 쿵쿵거리는 가슴우에 두손을 포개여잡은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아버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여보, 이리 좀 들어오구려.》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문대며 들어왔다.

《여보, 우리 사위감이요. 어떻소? 마음에 드오?》

어머니는 아버지의 흥그러운 기색을 살피고는 《아, 애들이 좋다문야 내 무슨...》 하고 응수했다. 미끈한 체격에 듬직한 그가 어머니도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자네가 쇠돌을 캐겠군. 하긴 은근히 내가 벌써 욕심을 냈었지.》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또 영화의 등뒤에서 들려왔다.

영화는 두손에 얼굴을 묻으며 스르르 주저앉았다. 손가락짚으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사람은 기쁘거나 행복할 때에도 이러는 모양이다. 방송에서는 영화의 《18번》 《우리 님 영웅되셨네》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지도앞에 서면 외 1편

권강일

지도앞에 서면

크고작은 도시들 그 지명우에

떠오르네 안겨오네

낮익은 얼굴들이

백두산밑 도시 저 해산은

나의 첫 분대장이 제대하여 간곳

얼마전 나는 그를 신문에서 보았네

성지를 빛내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네

보기만해도 즐겁게 해변도시 원산은

푸른 바다처럼 갈매기처럼

선량하고 아름다운 대학동창처너

《인민교원》 그의 영예 내 기쁨이라네

별처럼 많고많은 지명들우에

떠오르네 안겨오네 낮익은 얼굴

마치도 그고장이 동무의 이름인듯

마치도 그고장이 동무의 소식인듯

지도에서 신평 저 글자가 작아도

나에게는 잘 보이네 꽃피는 산촌읍이

성실한 군당일군 나의 동무

키 큰 그 모습이 언제나 미더웁네

생각되네 나에게는

그고장이 들끓고 이름 높으면

거기 사는 내 동무가 일 잘하는듯

그고장의 아픔을 단 상픔을 봐도

다름아닌 내 동무의 일숨씨를 보는듯

오, 그러리 그러하리 나의 벗들도

내 사는 철의 도시 지도에서 볼 때

차판에 실려가는 강재를 볼 때에도

말하리 나를 두고 자랑도 불만도...

반짝이네 술한 도시들과 마을들이

속삭이네 다정한 얼굴들이 눈빛들이

저마다 사는 고장 일하는곳은

당의 뜻 받들어 빛내이고 꽃피울

책임이라네 의무라네 명예이라네

아이들이 떠난 거리

아이들모두

원쪽을 간 거리

창가에, 흰 벽체들에

해살이 눈부시다

조용하구나 온 마을이

넓은 보도는 한끝까지

푸른 가로수만 줄지어섰고

층층이 집집에는 인적조차 없는듯

이따금 보이느니 걸음 바쁜 어른들

할일 많던 거리가 한적해져

《아동도서관》도 해종일 문을 닫고

네거리 명랑하던 교통안전원처너도

다만 엄숙하게 차들을 바래운다

비였구나 학교의 운동장도

유치원의 쇠그네도 치렁히

공원의 숲속에선 보이잖는 새들

이날의 교요를 노래하누나

어쩌면 이리히도 다 안고갔느냐

분주하고 흥성이던 모든것을

종소리 노래소리 새된 목소리들에

생활의 숨결이 다 실려있었더냐

아, 거리에 하늘가에 그러지는

티없이 밝고 건강한 아이들의 얼굴

은혜로운 우리 땅의 햇빛아래서
세상 부럼없이 자라는 모습

복받은 너희들의 그 생활로
온 거리가 가득차 설렘이었기에
떠나간 그자리가 이렇듯 비는구나
비어놓은 그자리에 생각이 차는구나

돌아오리라 이제 해가 기울어
석양이 비낀 때

그 빛에 물든 기발을 들고
늘어난 기운에 노래도 씩씩하게

그러면 거리는 맞으리라
집집의 웃음도 자식들에게 있고
내 나라의 흥함도 후대들에게 있는
우리의 귀한 아들딸들을

아, 이 하루에 더 깊어진 생각으로
이 하루에 더 뜨거워진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회상

박함집

해방된 해 가을 어느날
책가방 메고 오며 나는 들었다
하루아침에 과장이 된 아버지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전공노릇 하던 일자무식이
안락의자에 앉았다누만...

철탑밑에서 시한탄을 들어내고도
아무일 없듯 집에 들어서던 밤
어느 아늑한 방공호속 술좌석에선
이런 말도 새어나왔더란다
-우둔한게 범을 잡는다고
그 두상 목숨이 붙은게 다행이지...

그렇게 살아왔다 나의 아버지는
사각모 출신들이 외래어를 굴리며
목이 쉬도록 기술신비를 떠들어도
령넘어 끈추 뺨은 고압선같이
묵묵히 앞으로만 간 아버지

나는 몰랐다
그때 무슨 힘이
아버지를 뒤에서 떠밀었는지

한구멍 토스레웃소매로
3대가 번갈아 팔을 끼었다는
못잊을 지난날의 추억이었던가
기울어져가는 초가집 프락에서
왜놈이 살던 호화주택으로 옮겨앉은
꿈만같던 그날의 기쁨이었던가

세월은 흘러 어느덧 40여년
어깨우에 송전선을 둘러맨채
대지에 굳어진 철탑과도 같은 그 모습
아, 지금은 곁에 아니계시여
누구더러 속깊은 마음 물어보랴만

나는 알았다 철이 들면서
기업소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서도
어찌하여 구부정한 허리춤에선
늘 뻗찌가 놀날이 없었던지

남들이 음산한 날씨를 피해
문을 잠그고 아래목을 차치할 때
비오는 진창길 무릎치는 숫눈길로
말없이 순회길 떠나는 아버지를 보며
알았다 뒤에서 성벽같이 밀어준
그 힘이 무엇이었던가를

저울에는 달수도 없고
마력으로도 계산 못하며
오직 인간 심장에만 채울수 있는
지구인력과도 같은 그 힘

아, 그것은 해방의 날
세월의 감탕속을 헤매던 전공에게
철탑과 권리와 세계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은 수령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가장 원대한 믿음이였다

소박하고 생활적인 정서로 충만된 조국송가

-김태경시집을 읽고-

리동수

시인 김태경의 시집 《배고동소리 울려라》를 펼치면서 인상깊게 느껴지는 점은 각이한 형태, 각이한 양상으로 씌여진 모든 시편들이 한결같이 소박하고 생활적인 정서를 질게 풍기고있는것이다.

그의 시집은 모두 6개부분으로 나뉘어져 묶여 지고있으며 《당에 드리는 노래》, 《고마워라 조국이며》, 《배고동소리 울려라》, 《따끔침》, 《한나산》, 《해녀의 노래》 등 그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체험된 생활의 여러 분야들을 포괄하고있다.

《당에 드리는 노래》에서는 어머니당과 조국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경모와 충성의 감정을 일반화하고있으며 《고마워라 조국이며》에서는 시 《발걸음》, 《충성의 한길을 따라》, 《우리도 축배를》, 《니이가다항구에서》, 《조선대학시초》 등 많은 시편들을 통하여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긍지높이 총련의 애국사업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한몸바쳐나아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노래하고있다.

또한 《배고동소리 울려라》에서는 우리 당의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에 의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한 긍지와 행복상을 시 《영생하리라 그 품속에》, 《군모에 빛나는 별》, 《눈내리는 겨울밤에》, 《미장공처녀》, 담시 《기쁨절로, 웃음절로》 등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밖에 《따끔침》에서는 파사로운 조국의 품을 그리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총련 조선학교 어린이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노래한 동요, 동시편들을 실고있으며 《한나산》에서는 고향과 인정세계, 조국과 통일의지를 노래한 서정시들과 시초, 서정서사시 그리고 마지막부분 《해녀의 노래》에서는 서사시 《해녀의 노래》를 실고있다.

이 시편들은 시인이 한생을 체험속에 바쳐온 생활의 자취들을 조명하여주면서 향토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격발시키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체험된 생활에 기초하여 시상을 잡고 진실하게 사상감정을 펼쳐나가는 시인의 자세에선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해당화 붉게 타는 백사장에 찍혀진 작은 발자국, 해녀들의 웃음소리, 멀어져가는 배고동소리가 방금 들려오는듯한 제주도 해변가 고향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살벌한 이국땅에서 눈물속에 흘러보낸 이역살이세월, 총련의 기치아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

고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으로 보람찬 나날을 누벼가던 시절을 거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참된 인생의 가치를 떨쳐가던 나날속에서 그의 시는 움터났으며 무르익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시인의 인생행로우에 찍혀진 가지가지의 인상깊은 생활들이 각이한 모습과 양상으로 다채롭게 부각되고있다.

시 《영원한 사랑인 조국의 품》에서 시인은 이역만리 해외에서 살다가 그리운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순간의 격동적인 체험을 노래하고있다.

넘치는 사랑의 열풍때문인가
눈시울이 더워서 가슴에 차올라서
한자리에 못박혀 서있는 우리들에게
그이께선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네
-너무 어려워 마십시오
여긴 동무들의 조국이 아닙니까!

...

조국!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이여라
그 품, 그 사랑에 안기고 받들리여
산천도 사람도 그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변하고 약동하는
속도전의 불바람 일으키며 기적을 창조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였다
얼마나 그리고 그리던 조국인가!

평생 유일한 희망으로 오매불망 꿈꾸어오던 조국, 그것은 조국에서 제일먼저 손잡아 포옹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이였고 귀국한

첫날밤에 문득 조용히 방문을 열고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품이였다.

시인은 누를수 없는 이 격동,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한 이 충격을 뜨거운 체험속에 승화시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 《당에 드리는 노래》, 《우리 기발》에도 영광스러운 당과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긴 서정적 주인공의 무상의 행복과 희열의 감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는바 이는 이국의 하늘아래 언제나 사무치게 그려보며 애타게 조국을 불러보던 시인의 절절한 체험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졌기때문이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의 심오성과 진실

성은 총련의 기치밑에 공화국 해외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며 총련의 애국사업에 불타는 충성을 바쳐가는 서정적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개방한 시들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시인은 자식을 둔 한가정의 아버지로서, 총련의 애국사업에 몸바쳐 싸우는 한 일군으로서 그리고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애국충성의 한길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평범한 로인으로서 후대교육의 전초선에 선 교육자로서의 산 인간의 모습과 그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풍부한 체험에 기초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동포혈육을 찾아 조국을 떠받들며 걸어야 할 길 천리를 넘고 달려야 할 길 만리가 넘는데 시 《발걸음》의 주인공 총련일군은 오랜 세월을 오가며 다져진 길우에 맥없이 풀썩 주저앉는다.

육체적으로쇠에 이체는 병까지 겹쳐 힘이 진한것인가.

그러나 그의 어깨에는 귀국하여 로력혁신자가 되었다는 아들이 전하는 편지가 있고 조국의 숨결인 양 언제나 가슴을 후뭏게 하는 《조선신보》가 메여져있는것이다.

하기에 그의 발걸음 한순간도 지체할수 없고 인민을 위해 걷는 사람은 늙을수 없다시며 그 어디에 살던 조선사람의 녀를 지니고 살아야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며 10년을 하루같이 걸어온 나날... 이 길은 조국으로 잇닿은 길, 동포 향해 걸어가는 애국의 길이였거늘 해빛도 따사로운 화창한 봄날 어찌 늙었다고 가던 길 멈춰설수 있으랴!

서정적주인공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전사, 총련 일군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을 안고 용용히 애국의 길을 걷고 또 걷는것이다.

얼마나 소박하고 진실한 체험인가.

지난날 오래동안 해외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의 체험에 뜨거운 공감대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시 《충성의 한길을 따라》, 《나를 따돌리지 마렴》, 《꼬부랑오솔길》, 《조국으로 향하는 길》을 포함하여 많은 시들이 총련애국사업에 몸바쳐 싸우는 공민적기백을 생활적으로 펼치고있다.

이처럼 시인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 펼쳐나가면서 거기에서 환기된 사상감정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전달하고있다.

시 《고마워라 조국여여》, 《조국은 멀고 멀어도》, 《조선대학시초》 등은 후대교육사업에 오랜 세월 몸바쳐오는 과정에 교육자의 량심과 리념에 의하여 판단된 생활에 대한 시인의 의지를 총화되고있다.

정서적침투력과 진실성은 체험되지 않은 생활에서 절대로 우러나올수 없으며 체험을 통하여 축적되어온 감정정서의 필연적결과로 실현되게 되는것이다.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가 하는것은 체험방식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규제되긴 하지만 보다 생활적이고 현실적인것은 시인 자신이 스스로 체험해본 생활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이다.

시인 김태경의 경우에 있어서 체험문제는 창작에서 언제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시는 모두가 체험된 생활을 파고들어 그속에서 시적대상으로 소화할수 있는 의의있는 문제점들에 력점을 찍고 거기에서 시적인 계기를 찾아 생활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방향에서 실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시에는 미화분식과 겉치레가 없고 현실생활이 사실그대로 펼쳐지면서 진실하게 전달되고있다.

현란한 색채를 띠지 않지만 그의 시는 언제나 친근하고 꾸밈이 없이 펼쳐지는것으로 하여 정겹게 안겨오는것이다.

시 《당신을 위한 발걸음》에서는 귀국의 배길에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안해를 그리며 조국을 안고사는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체험세계를 담담한 정서에 담아 자연스럽게 펼쳐지고있다.

분칠하지 않고 굵직굵직하게 쓴 당신의 편지에서
나는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로동계급의 대렬속에서 당을 받들어가는
어엿한 조국의 딸의 모습을 간직하오

...

-귀국의 배길을 막지 말라!-
시청을 향해 뚝뚝 행진하는
우리의 발걸음 그 누구도 막지 못하오
당신걸음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서는 길인데
팔월염천도 폭압에 날뛰는 경관들도
조국을 안고사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오 조국을 향한 나의 마음을

시에에는 조국의 품에 안겨 보람찬 조국건설에 참가하고있는 안해의 미더운 모습을 서툰 그의 편지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대오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는 길이 곧 안해의 걸음으로 다가가는 길이며 그리운 조국을 향해가는 길임을 깊이 자각한 서정적주인공의 견결한 의지가 아늑한 인정선을 타고 부드럽게 울려나오고있다.

안해의 뒤를 이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서정적주인공의 그 이후의 체험에 기초하여 씌여진 《귀국시초》, 《군모에 빛나는 별》, 《미장공처녀》, 《해마다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면》 등 많은 시편들이 모두다 소박하고 생활적인 정서로 절절하게 안겨오는것은 진지한 체험에 의하여 려과된 의의있는 전형적인 생활이 시인의 감성적파악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재현되고있기때문이다.

시인의 창작에서 새롭게 감각되는 특이한 점은 또한 모든 시들이 생동한 생활을 안받침하면서 밝은 정서적색갈을 조명시켜주고있다는것이다.

그의 시는 평상적으로 펼쳐지거나 주관적인 체험이 추상적으로 엮여지고있는것이 아니라 태반이 생활체험과 밀착된 시적동기를 생동한 생활에 안받침하여 정서적으로 펼쳐보여주는 식으로 형성되고있다.

마치 화폭적인 표상을 안겨주는 인상깊은 장면들을 현출시키면서 담시적으로 전개되어나가는것같은 인상을 강하게 준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많은 경우 이야기거리가 삽입되며 사건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들이 메마른 감이 없고 정서적으로 풍만하게 안겨지는것은 격동으로 넘치는 환희로운 생활자체의 본색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생활에 대한 시인의 막판적인 체험을 안받침하고있기때문이다.

시 《젊음이 새로워》는 공화국창건 15돐을 맞으며 명절을 즐기는 분회동포들의 놀이장장면을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보여주면서 씨름터와 널뛰기, 그네터에서 세월과 함께 젊음을 되찾는 로인들의 희망차고 낙천적인 정서를 노래하고있다.

바야흐로 가을도 질어가는 하늘아래 넓다른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이 한창이고 소나무더 그늘밑에선 씨름판이 벌여졌는데 반백이 된 분회장이 호통치며 나선다. 힘꼴로야 나를 당하라. 젊은 시절 생각이 앞서 총각과 맞다들었는데 일어서자바람으로 넘어지는 분회장, 가르르 웃음판이 터지는데 조대생 청년은 분회장을 일으키며 《아바이, 이거 죄송합니다》 그 말에 《자네들은 좋은 세상 만났네》 대답하는 분회장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함뿍 어린다.

아, 무사시노의 초가을아
륙십나이에 청춘은 새로웁고
주름살 얼룩진 얼굴에도
치녀시절 오늘따라 되살아남은
좋은 시대 로동당시대를 만나선가

부풀어오르는 고무공마냥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머니도
아낙네도
충천한 기세로
공화국창건 열다섯돐을 맞는 운동장은
젊음이 새로워라
희망이 새로워라

시시각각 젊음과 희망을 샘솟게 하는 즐거운 가을날의 한 화폭을 통하여서도 시인에 의하여 체험

된 생활의 미적정서와 밝고 약동적은 색조를 똑똑히 새겨안을수 있다.

시 《우리도 축배를》, 《꼬부랑오솔길》, 《나를 따돌리지 말렴》, 《팔십로인의 춤》도 역시 구체적인 생활을 바탕에 깔면서 시적정서를 승화시켜나감으로써 생활의 참된 의미를 밝은 색조로 채색하여주고있다.

밝고 낙천적인 정서는 어둡고 쓸쓸한 정서와 랑립되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있는바 시인의 모든 시편들은 언제나 현재를 노래하면서 과거를 개입시켜 대비형상하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그의 시의 서정적구조를 특징지어주고있는 하나의 창작적개성으로 고착되고있다.

대비적인 구성도 그것이 필요한 정황속에서 시적형상의 필수적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상되어야지 논리적인 관계나 정서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무시하고 조립식으로 삽입되게 되면 전반적인 시형상구성에 파격을 조성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경의 시집에 실린 모든 시편들은 오늘의 시집에서 과거어로, 과거로부터 다시 오늘어로 승화되는 감정의 기복과 흐름이 극히 자연스럽게 융합되어나감으로써 시의 주제사상적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돈구어주고있다.

아침해는 높이 떠서 두둥실
갈매기무리 날아며며 반기는데
하늘땅을 진감하는 배고동소리
내 마음을 흔들어주는
아,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우람진 배고동소리 들을 때면
불현듯 생각나는
눈물의 항구 니이가다항구

...

니이가다항구는 배길이 있어도 오갈수 없는 절해고도

배들은 수많이 무어져 넘나들어도
실어다줄 한척의 배도 없는 부두가는
흙흙한 바람만이 몰아치던 적막강산
(시 《배고동소리 울려라》중에서)

이미 20년전 조국의 품에 안긴 서정적주인공이 청진항부두에서 귀국의 길에 오른 동생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체험을 노래하고있다.

가슴 못견디게 흔들어주는 배고동소리를 들을 때면 불현듯 눈물의 항구 니이가다항을 생각하게 된다는 감정의 논리는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시인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적정황속에서 생활이 불어일으키는 체험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련결시키고 정서적색조를 조화시켜나가면서 대조적

인 화폭을 통해 시의 사상을 부각시키는 수법을 일관시키고있다.

시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고향과 향토에 대한 애뜻한 사랑의 정서가 전편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는것이다.

해초 뒤엉킨 도래곶이, 해너들의 자맥질소리와 서글픈 노래소리, 망망한 바다우로 미끄러져가는 구성진 배고동소리, 서귀포에서 시작하여 하루길에 닿는 북촌리어귀에 탐스럽게 열린 감나무열매, 어릴적 소꿉시절동무들의 발자국이 찍혀지고 뜨거운 숨결이 배여있는 고향땅,

시인의 살뜰한 애정이 꿈결인양 물결쳐오는 제주도 고향땅에 대한 정겨운 서정은 그의 시의 정서적 바탕에 줄기차게 관통되면서 애뜻한 향토애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섬세하게 하는 원형으로 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그의 시에 강렬한 서정을 충만시킨 바탕으로 되고있다.

시 《한나산》, 《어머니시여》, 《고향방문시초》, 서정서사시 《고향으로 가는 길》, 서사시 《해너의 노래》는 조국과 향토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엿보게 하는 대표적인 시들이다.

고향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또한 그것을 짓밟은 원수에 대한 증오와 규탄의 감정과 이어져있으며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분열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고자 말려는 결사의 의지로 충만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향토시자들은 레외없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열렬한 사랑의 노래, 불타는 증오의 노래로 되고있다.

시 《고향의 감나무》, 《어머니의 무덤》(《고향방문시초》중에서)은 미제침략자들의 발굽밑에 신음하는 고향, 꿈속에도 그리고그리던 고향땅을 찾았던 서정적주인공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봄이면 꽃향기에 취해 풀피리 불고 여름이면 산팔기로 주린 배 채우며 해가는줄 모르고 노닐던 오붓한 고향마을, 그리운 옛집의 모습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불타버린 집터엔 재가루만 날리고있다.

어린 시절 소꿉놀이동너들은 간곳없고 새로 지은 삼각지붕밑에선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만이 소란하고 높은 담벽구멍으로는 총검이 목숨을 위협하며 노려본다.

시인은 모든것이 변해버린 고향마을 한복판에서 대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알찬 열매 주렁지게 흔들며 옛친구를 반겨 맞는 고향의 감나무를 감회깊이 되새겨보며 고향을 지켜싸운 고향마을사람들의 꽃꽂한 모습을 그려본다.

감나무 감나무 고향의 감나무여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건만
고향땅에 뿌리박고 무성히 자라
오늘은 너를 불러 너를 반겨
가지마다 알차게 열렸느냐?

고향을 지켜 싸운
고향사람들의 애국충정처럼 거연히
아버지의 꿈은 성미처럼 억세게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담고
가지가 휘도록 탐스럽게 열렸어라
오만풍상 이겨내고
내 마음의 기둥으로 우뚝 서있어라
(시 《고향의 감나무》)

고향의 감나무에 의탁하여 시인의 극적인 체험을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펼친 이 시는 원쑤 미제의 간악한 파쇼통치밑에 짓밟혀 신음하는 황망한 고향땅에 대한 참혹한 표상만을 주고있는것이 아니라 그속에서도 굳센 의지를 가다듬고 곳곳이 싸워가고 있는 고향사람들의 억센 기상을 뜨거운 걱정속에 펼쳐보여준다.

시집의 마감부분에 실려있는 서사시 《해너의 노래》는 시인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온 열렬한 향토애와 애국의 열정이 집약되고있는 대표작의 하나이다.

어린 시절 시인의 발자취와 순진한 녀이 깃들어 있고 가지가지 눈물겨운 체험과 격동적인 사변들이 엉켜있는 고향땅은 시인의 가슴속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잡고있는 삶의 보금자리, 열정과 투지와 희망을 안겨주는 활력있는 품이었다.

하기에 오고가지 못하는 일본땅에서 《비수를 들고 나를 노리는 고향》이건만 시인은 세월과 함께 원쑤들을 무찌르며 분노의 걱정, 항거의 봉화를 추켜들었던 고향을 그토록 잊지 못해 모대기는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못잊는것이더냐?
만리를 가도 천리를 가도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여도
바다기슭을 치는 파도소리
봄이면 동백꽃 피고
가을이면 주렁진 감나무열매
호이호이 해너들의 휘파람소리
가까이 정답게 안겨온다

고향!
그것은 내 가슴 깊은곳에 고인
따뜻한 사랑의 젖줄기
그것은 마를줄 모르는
노래의 샘물, 기쁨의 원천

시인이 사랑하는 고향땅과 바다가 섬마을사람들의 생존과 잇닿아있는 해너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지가지의 추억과 지나온 성장의 나날을 더듬으며 총격적으로 시상을 집적하게된것도 결국은 그들과 함께 운명적으로 이어졌던 흘러간 생활이 너무나 귀중하게 안겨왔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시 《해녀의 노래》 역시 시인이 한생의 체험을 축적하여 가꾸어온 생활의 결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이 귀중한 체험속에서 북촌리 고향사람들과 바다가 해녀들의 운명의 대변자인 물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부드럽고 강직한 녀인들의 모습, 시련의 고비를 헤치며 성장해가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운 초상을 인상깊게 펼쳐보여줄 수 있었다.

악착한 일체의 주구 부가놈의 행패질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손에 쥐었던 돌맹이를 던지지 못한채 으스러지게 쥐어보던 물녀였다. 통명스러운 남편의 성미를 때때로 맞갓잡게 여기던 그가 마을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싸우는 남편을 온 동네가 우러르며 치하할 때 자신을 뒤흔치며 얼굴붉히던 물녀였다.

그러던 그가 왜놈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10년세월 어린 자식 인수를 키우며 웃음도 춤도 잊고 모진 고통을 겪어오는 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

남편을 잃었는데 이어 파업을 선동하다 불구가 된 만복의 영향 밑에 압전하던 물녀가 《비행기헌납금》을 선동하며 돌아치던 부가놈의 뺨을 후려치는 항거자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더우기 구장을 때린 죄아닌 《죄》로 한여름 감옥에 끌려갔다는 뒤로부터 물녀는 무서운 고문을 이겨내는 과정에 더욱 굳센 의지와 절개를 키우게 되었으며 감옥에서 돌아온후엔 고향사람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투쟁의 기수답게 더욱 억세게 싸워나간다.

그러나 미국놈들과 결탁된 마을주구놈들의 악착한 만행에 의하여 만복이가 체포되고 이어 바다물속에 수장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지게 된것은 물녀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이것은 드디어 만복의 복수와 《5.10단선》 음모를 짓부시기 위한 결사의 투쟁으로 폭발되게 되며 원수들을 통쾌하게 소탕하는 유격전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유격대를 무은 마을 청년들은 놈들의 선거장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기민한 매복전으로 군용차를 기습하는 등 맹렬한 보복전을 벌린다.

미국놈 찢차를 습격하여 경찰놈과 부가놈을 사로잡은뒤 부가놈의 죄행을 군중들앞에 낱알이 고발하는 극적인 장면은 원수놈들에 대한 북촌마을사람들의 증오의 격정을 격조높이 부각시켜주는 참으로 인상깊은 장면이다.

부가놈도 처단되고 《5.10단선》도 파탄시켰으나 원수놈들은 최후발악하며 북촌마을 300호에 불을 지르고 함부로 총탄을 퍼부어댄다.

유격대는 원수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면서 마을을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그럴수록 격전은

시간마다 더욱 격렬해진다.

이 전투에서 적단은 인수의 생명을 앗아간다. 또 다시 닥쳐온 커다란 시련과 슬픔 앞에서 물녀는 비통한 격정을 금치 못하며 마침내는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해녀들앞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 모두 유격대에 들어가자고 호소한다.

새벽녘 모여든 해녀들앞에
물녀는 가슴을 치며 절규한다
《여러분 미국놈이 내 아들을 죽였소
이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모두 산으로 오릅시다
이것은 내 아들의 부탁입니다.
유격대 대장의 부탁입니다》

아 마을을 지켜선 서모봉아!
사시장철 출렁이는 고향의 물결아!
섬사람 녀으로 우뚝 솟은 한나산아
너 항거의 화불 높이 처든
유격대원들의 거세찬 발걸음을 보았으리라

시에서는 미역 캐고 전복 따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며 오붓하게 살아보려던 물녀의 소박한 녀원이 미제 강점하의 남녘땅에서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결사의 각오를 안고 투쟁의 길에 나설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서사시 《해녀의 노래》를 통하여 시인은 생활과 투쟁의 시련속에서 마음과 의지를 키워나간 자라나는 물녀의 형상을 창조하였으며 개성적인 해녀의 성격속에 이 나라의 근로하는 소박한 녀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축조하였다.

시인은 해녀들의 투쟁선을 그들의 굴곡적인 운명선과 밀착시켜 형상하면서 생활적으로 의의있게 엮어나갔으며 남해바다 섬마을의 특색있는 자연풍토와 바다가 해녀들의 특유한 풍속세태를 조명시켜 한쪽의 그림과 같이 펼쳐나갔다.

그리하여 시집 《배고동소리 울려라》는 대표작 《해녀의 노래》로써 인상깊게 매듭짓고있다.

시집에 실린 시편들이 모두 체험에 기초하여 씌여진 시들로서 진실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인 정서를 풍기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반면에 시대의 한 복판에 서서 투쟁의 벽찬 숨결을 침전에서 호흡하며 시대의 기수로서 첨예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감각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정신, 시대미감에 호응하는 동원적인 자세를 높은 수준에서 감각하는데 보다 깊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부언하고싶다.

내 고향의 목소리 외 2편

리정택

해마다 찾는 고향이건만
벼이삭 누렇게 익은 들판의 설레임이
무르익은 과일 향기가
올 때마다 새로운 정 불러주어

나이는 감추지 못해 머리 희여가는
늙은이들도 반겨맞아주며
배나무집 《둘째》가 온다고
어릴 때처럼 나를 불러주는 고향의 목소리가
몽클 젖어드는 가슴을 흔들어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본다
잊은적 없었던가
잊은적 없었던가

탁아소 유치원마당
미끄럼대, 배그네우에서
은방울 굴리는 듯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드넓은 학교운동장
뿔차는 아이들의 환호소리가
부푸는 이 가슴에 묻는 말이 있어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본다
너는 저 아이들앞에
뿔뿔이 머리들고 들어설수 있는가

그렇다 고향엔
얼굴도 마음도 노래도 있어
내 멀리 떠나 일해도
그 목소리만은 이 가슴에 메아리로 남아
나를 일깨워주나니

순간이나마 그 목소리 아니 들으면
고향을 잊을가봐

조국을 잊을가봐
이국땅 머나먼곳에 갔을 때에도
더욱더 정깊이 안겨오던 목소리

그 목소리
언제나 이 가슴에 박동처럼 울려와
내 영웅의 이름으로
고향의 이름을 빗내지는 못해도
순간도 부끄럼없이
티없이 맑은 량심으로
조국 위해 진정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거니

아 그래서 고향은
어느때 찾아와도
선생앞에 나설 때의 학생의 마음
어머니품에 안기는 철부지의 마음
나이들어 찾아와도
또다시 철이 드는곳이구나

먼 나라의 《명승지》에서
가도가도
보고 또 봐도 끝없는 사막
듬성듬성 돌아난 락타폴도
해벌에 조으는듯

차창을 내다보는 눈이 시여
아픔을 느끼는 열대의 나라
외국손님으로 안내받아
구경가는 길

어서 빨리 당고싶었는데
어인 일인가 관광지

굳어진 모래산이 주먹처럼 솟은곳에
작은 샘줄기가 흐르고
종려 몇그루 듕성듬성 서있는곳

걷자니 땀이요 물쿠는 더위뿐
내 처음은 땅이에도 흥취가 없고
고적이야기 새롭지 않구나
어서 서늘한곳에 들어서고만싶은 마음

갑자기 이 가슴 깊은곳에서
꿈틀대는 자존심
이곳사람들, 이곳을 찾는 관광손님들에게
조선의 금강산 그 절묘한 경치
그 시원한 바람과 물
명주필같이 흐르는 금강의 안개에 대해
자랑하고싶어지는 마음이어

금강산
이 나라 이 땅에
네 그림자만이라도
언뜻 비낀다면
이 땅에 환호성 우주에 넘치리
너를 불안고 놓아주지 않으리

금강산
세상을 두루 돌아보니
너같은 명승이 더는 없구나

아, 금강산
너를 가진 조선사람임이
내 여기 먼 나라의 관광지에 와보니
열대의 그 뜨거운 열풍보다
더 뜨거운 사랑속에
가슴가득 공지로 부푸는구나

금강산을 떠나며

금강산아
내 너를 떠나자고 하니
일만이천봉이마다 입이 있어
날 부르는듯

천하절경 높이 솟은 바위모두가
마음이 있어
하많은 이야기 안고 들먹이는듯

아쉬워라
차마 발걸음 떼기가
비로봉의 폭포소리
구룡연의 장쾌한 노래소리
천하를 울리며
이 가슴을 그냥 내려쫓네

신선의 날개옷인양

끝마다 내리는 흰안개
정든님의 애무인양
내 몸을 감싸고 도네

아 금강산아
너와 이틀밤 사흘낮
시간은 짧아 날은 꿈속처럼 흘렀어도
내 두고두고 쌓인 정
너에게 빼앗겨서

너를 떠나자하니
한가슴에 들어왔네
조선의 금강
아름다운 내 조국의 자랑이
이 땅에 태어나 삶을 누리는
조선사람 된 끝없는 자랑이

목 표

로종의

운지리는 읍에서 삼백여리나 떨어져있는 두메산촌이다. 구름도 허리에 감기는 험산준령, 아득히 깊은 심산유곡,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 한적한 이고장에 첫 귀틀집이 생긴것은 조선봉건왕조말기라고 한다. 조선칼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헤매다가 피나리보짐을 풀어놓고 살던 귀틀집들은 흔적을 감춘지 오랬고 지금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앉았다.

이 마을에 새 문명이 들어올 때마다 크게 소문을 냈는데 그 사변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지식인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이 서있었다.

작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소조원 전상규가 소형발전소 능력을 두배나 늘켜어 수리분조는 어느 공장의 공무동력작업반처럼 꾸렸고 축산, 농산 작업의 기계화는 물론 세탁소, 타면기까지 놓아 도시기계의 신세를 지려고 먼길을 다녀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기자들을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집집승먹이시설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했다는 소문이 독일보 기자인 나를 달려오게 했다.

나는 협계철차와 잉클라인을 갈아타면서 하루길, 삼백여리나 되는 룽로는 빠스로 또 하루길을 이어대서야 운지리에 도착하였다.

나의 취재대상은 송석호동무였는데 그는 이 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책임자였다. 나는 로독을 풀사이도 없이 송석호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원산농업대학을 졸업했다는 송석호의 기름한 얼굴은 북방추위에 얼었는지 거무무름했다. 아직 총각이러는데 애리는 숨어버린지 오랬고 말씨나 행동거지는 로숙했다.

《군에서 들으니 소조기간이 끝나고 떠나게 됐더군요.》

《예.》

자기가 세운 목표를 점령한 만족을 안고 떠나게 될 송석호였다. 그는 대학과정도 최우등생이고 소조활동도 최우등으로 졸업한다고 군당에서는 칭찬이 자자했다. 우리 당이 바라는 유능한 기술지식인으로 성장한 그였다.

그는 빈 책상우에 두손을 맞잡아놓고 앉아있었다.

말도 없고 반가운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말을 걸지 않으면 제임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좀 범접하기 어려운 형의 인간이었다. 그런데다가 기자가 온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분명 말못할

꼭절을 안고있었다. 반나마 감긴 눈은 흐리터분했고 꼭 다문채 앞으로 내밀린 입술에는 피로움이 그려져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자동무가 기대했던 축사는 취재대상이 못됩니다.》

흔히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들을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송석호의 말은 확정적으로 부정하는투였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실망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는 고민합니다.》

송석호는 소조기간에 집집승먹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었다. 운지리에서 이 목표를 실현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축사는 口형으로 일떠세웠다. 각종 먹이가공설비, 축군별 먹이조리, 흐름식먹이주기설비… 설비는 물론 나사못 하나를 구하자고 하여도 삼백여리나 되는 읍으로 가야 하는 운지리에서 이렇게 차려놓는다는것은 조련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물려서지 않았다. 스위치를 넣는 날, 마을사람들은 손로동을 줄이고도 집집승마리수를 근 두배로 늘꾸게 됐다고 환성을 질렀었다. 축사는 성공의 《탑》, 충성의 《탑》이었다.

나는 군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송석호는 공들여 세운 탑을 스스로 부정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세운 목표는 누구나 점령할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나는 기술의 요새를 점령한것이 아니라 열성만 냈을뿐입니다. 그 성과는 소조원이 점령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고 깨우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리옥란동무입니다. 기자동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리옥란동무입니다. …》

《??》

내가 룽해한데 의하면 리옥란은 수리대학 전력공학부를 졸업하고 올해 정초에 이 마을에 온터여서 아직 군에서조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조원이었다.

《리옥란동무는 나보다 세살이나 아래입니다.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그를 가르칠수 있는 손우별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는 나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그가 오던 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송석호는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처음으로 만나던 이야기를 하였다.

하루종일 달려오느라고 어지간히 지친 빠스는 꺼먼 배기가스를 내뿜며 눈을 쳐놓은 상점앞마당에 와 멎었다.

새로 오는 소조원을 마중하려고 송석호는 농장간 부들과 함께 나와있었다.

빠스문이 열리자 읍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오는 종성집 할머니가 차장의 부축임을 받으며 제일 먼저 내렸다. 할머니는 빠스문앞에 서있는 간부들을 보며 수다를 떨었다.

《에그-다들 나왔구만.》

이발이 빠져서 불이 훌죽해진 할머니는 호물호물 웃으며 빠스안에 대고 입심을 뽑았다.

《체네, 빨리 내리라우. 여기 소조책임자랑, 리당 비서랑 다 나와있대네.》

키가 좀 작아보이는 몸매에 진록색의투를 단정히 입고 연한 보라색수건을 머리에 두른 처녀가 빠스문앞에 나타났다. 발목에 동그랗게 털이 감긴 가죽털신이며 손에 낀 알락달락한 장갑, 통통한 장판지를 감싼 살색 신양말... 도시의 향수가 풍기는 이채로운 차림이었다. 살갗이 흰 가름한 얼굴, 반달처럼 곱게 그린 눈썹, 예지가 번뜩이는 까만 눈, 고집스럽게 다물린 작은 입, ...리옥란은 사철 불어내리는 두운봉의 골바람을 맞기에는 너무도 가냘퍼보였다. 자진하여 왔지만 추위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 몰려설것만 같은 연약한 처녀였다.

송석호는 실망했다.

기빠 어쩔줄 모르는 사람은 종성집 할머니였다.

그는 송석호앞에 와서 제창 요구조건까지 내놓았다.

《소조책임자, 이 체네를 우리 집에 있게 해주겠나? 체네와는 약속했대네.》

《그렇게 하시지요. 허허...》

그러지 않아도 처녀소조원이 온다기에 홀로 사는 종성집 할머니와 함께 있는것이 좋겠다고 리당 비서와 사전토의가 있었다.

지나가던 농장원들, 조무래기들까지 모여들어 첫날 색시보듯 사람들속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고 황새목을 뽑기도 했다. 실로 희한한 일이었다. 한것은 지난날 군당에서는 길이 먼 운지리에는 녀성소조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온 리옥란은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은곳으로 가겠다고 자진하는바람에 하는수 없이 보냈다는것이 다.

인사가 오고갔다.

마을에서 익살꾼으로 소문난 학결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뒤에 서있었는데 불시에 어깨로 사람

들을 헤집으며 나가 소조원앞에 섰다.

《마을에서는 종축작업반 기계운전공인 나를 <천복> 이라고 부른다우다. 진짜 이름은 김학결이구요. 소조원동무, 아무리 높은곳에라도 기발만 꽃아주오다. 단숨에 달려가겠수다.》

학결은 인사치레를 하고는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키가 커서 어데서나 보이는 서민철이가 아직도 한자리에 선채 인사도 못하고있었다. 학결은 그를 보며 소리를 질렀다.

《이사람 <만길> 이, 망두석처럼 서있지 말고 어서 나와서 인사를 하게. ...소조원동무, 저 사람과 나는 무대우에서 <천복이와 만길> 의 역을 한답니다.》

앞에 나온 《만길》이가 주저주저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다.

《서민철입니다. 소형발전소 운전공입니다. 나의 소원은 소조원동무의 머리속에 가득 찬 지식을 다 넘겨받는것입니다. 많이 배워주십시오.》

《걱정두 팔자다. 어련히 배워주지 않으리. 학습장이나 준비하라우.》

학결이가 끼끼였다.

《저두 배우러 왔어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리옥란은 겸손하게 자기의 심정을 말했다.

어느새 땅에 놓여있는 트렁크를 닮은 어깨우에 올려놓은 학결이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뉘집으로 갈가요?》

송석호가 대답했다.

《숙소는 종성집에 정했소.》

《하, 종성집 할머니가 복을 받는데?》

학결은 헤벌쭙 웃으며 앞서 걸었다.

마을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송석호는 그닥 흥이 나지 않았다. 한것은 통채로 소조원이 셋인데 그중 한명이 덕이밭도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 할 책상물림의 도시처녀여서 그의 출현은 송석호에게 있어서 부담이며 짐으로 될것이 뻔하기때문이었다.

리옥란은 노상 웃고있었다. 그는 아직 마을의 총길이가 무려 50리나 된다는것도, 맹수들이 날치기때문에 밤에는 물론 낮에도 혼자 다니기 무섭다는것도, 눈은 없고 감자밭은 경사져서 기계화할수 없기때문에 다른 농장보다 곱절이나 힘들다는것도 별방보다 겨울이 길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어찌 보면 짧은 여름에 노래를 부르다가 철이 바뀌면 어데론가 날아갈 철새처럼 천진스러워보였다.

송석호의 손에서 담배가 저절로 타고있었다. 푸릿한 담배연기는 술술 솟다가 흐트러지면서 서서히 퍼졌다. 반나마 탄 허연 담배재가 그냥 붙어있었다. 재털이에 털리고 손을 드는 순간 담배재는

허리를 꺾으며 책상우에 떨어져 부서졌다. 송석호는 담배를 더는 빨지 않고 재떨이에 비벼끄고는 말을 이었다.

《마을사람들의 환영도 요란했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걱정만이 자랐습니다. 도시에서 나서 자란 그가 농촌에서, 더구나 도시와 거리가 먼 이 두메산골에서 무슨 일을 하여 당의 기대에 보답하겠는가 소조원은 활동을 끝내고 돌아갈 때 반드시 자기가 쌓은 탑을 남겨야 하는것입니다.

밥이나 축내고 간다면 당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책임자로서 그에게 일감을 마련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우리는 뜻밖에도 언쟁을 하였습니다.》

무수한 은빛 반점이 반짝이는 눈별우에 한떨기의 꽃이 핀듯 자주빛 나이론숨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보라색 수건을 쓴 리옥란이와 보위색 바지에 곤색 숨저고리를 입은 송석호가 나란히 걸었다.

우중중 높이 솟은 산발이 열기설기 뿌리내린 사이로 골짜기가 지그자그형으로 뻗어갔는데 그 골짜기가 농장원들이 부르는 《앞벌》이었다. 《뒤벌》은 산지발인데 해발고는 높지만 감자풍년을 안겨주는 옥토였다.

마을을 돌아보는 리옥란의 눈에는 모든것이 신비스러웠던지 천진한 소녀처럼 설채없이 물었다. 저 산이름은 어떻게 부르는가, 소밭구에 원목을 실어오는걸 보고는 제재소가 있는가, 집집에 쌓아놓은 아얀 붓나무장작을 보고는 아까운걸 불태운다고 안타까와하기도 했다.

《여긴 산이 많고 나무가 많지만 제일 그리운게 댈나무랍니다. 용재림가치가 없는 붓나무나 참나무를 때는데 그걸 해오자면 한해에 한달품이 든답니다.》

《그래요? 농가가 여백호라니까 그럼 년에 록천 공수나?》

《어디 그뿐입니까? 학교, 진료소, 상점, 사무실, 회관을 비롯해서 공공건물에 때는 나무를 하는데 무려 천여공수를 들여야 합니다.》

울퉁하니 뜬 리옥란의 눈은 마치도 그런 로력량비를 그저 보고만 있던말이에요? 하고 묻는듯했었다.

부족점을 보고도 대책을 세우기 어렵고 막상 일판을 벌려놓아도 걸리는 고리가 너무 많아서 끝을 보기 힘든곳이 여기라고 알려주고싶었지만 송석호는 오자바람에 실망부터 안길수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산골에 와본 일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잉클라인을 탔을 때는 사다리를

라고 구름위로 오르는 기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겁이 났어요. 여기에 오니 구름을 디디고 선 무사같은요. 호호... 천진하지요?》

《도시에서 나서 자랐으니 신기할테지요. 그 구름위에 서고보면 자기의 능력도 욕망도 한갓 꿈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비료 한줌, 기계부속품 하나를 구하자고 해도 먼 읍으로 다녀와야 하나까요.》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도 책임자동무는 훌륭한 축사를 일떠세웠으니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 수고의 보람인듯 저쪽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口형으로 지은 팽창지 큰 축사가 눈에 띄었다. 세멘트벽에 청기와까지 인 축사에서는 각가지 기계소음이 울리고있었다.

그들이 축사에 이르렀을 때 회오리바람이 눈가루를 빙그르르 돌리며 지나가면서 다루는듯한 목소리를 실어왔다. 가까이 가보니 학겉이와 민철이가 문을 열어놓은 뽕프실안에서 사대질을 하고있었다.

대바른 민철의 꾸지람은 신랄했다.

《왜 아직도 뽕프전동기를 작은것으로 교체하지 않는가? 이렇게 큰 걸 돌리면 전기가 낭비된다는 걸 몰라?》

《전기가 남아돌아가는데 뭐라나?》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아, 전기를 더 써달라고 애걸하던건 자네가 아니었던가?》

《그저야 새로운 기계를 더 놓으라는거지 이렇게 낭비하라는건가?》

《됐네, 됐어. 그런 소리는 다른데 가서나 하게. 여긴 소조책임자동무의 말대로 〈공산주의축사〉니 기계가 더는 필요없네. 코노래만 부르면 돼!》

《흥, 부엌에다 나무를 해다 때면서도 만족해?》

《나무까지 해오지 않으면 놀고먹게?》

학겉은 이렇게 비꼬아대며 민철의 엉덩이를 철썩 갈기고는 정말 코노래를 부르며 걸레로 뽕프를 닦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송석호의 입가엔 미소가 피어났다.

《신기하지요? 국가전기는 한와트도 쓰지 않는데두 전기가 남아서 저런 아귀다툼도 들으니말입니다. 떠나간 전상규동무가 발전소를 확장한 덕분이랍니다.》

전상규 못지 않게 공돌인 축사를 보는 송석호의 얼굴은 만족한 기색이었다. 새 축사를 세우고 축산물생산량을 대뜸 두배로 끌어올리면서도 11명의 로력을 줄였으니 자랑할만도 했다. 축사는 고심삼담한 열매였다.

《내가 이고장에 왔을 때는 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번에 왔던 소조원이 새 기계를 여러대 설치했으나 손로동이 많았습니다. 먼저 소조원이 닦아놓은 토대에 기초해서 우리는 저렇듯 리상적인 새 건물을 건설하고 집집승먹이시설의 종합적기계화를 도입했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눈앞이 아득했는데...》

리옥란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있다가 심각한 문제를 내놓았다.

《다음에 올 소조원은 이 축사를 인계받아서 자동화해야겠군요?》

《그래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축사는 또 한층계, 아니 마지막층계에 오를겁니다.》

《이 축사를 얼마 쓰지 않고 또 건물도 뜯어고치고 기계설비도 새 자동화설비로 교체한다면 책임자동무가 쌓은 업적은 없어지겠는데요.》

《그게 발전과정이지요!》

《뭐라고요?》

물론 우리 나라에는 자동화된 돼지공장도 닭공장도 있다. 그러나 운지리의 시점에서 놓고볼 때 그것은 리상이다. 리옥란은 먼먼 앞에 있는 그 리상을 당장 도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고있었으나 송석호는 구태여 언쟁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책에서 배운것은 뭐나 다 실천할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천진한 리상주의라고 평가할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리상적인것이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을 소유했을 때에만 도입할수 있다는것을 리옥란은 리해하지 못하는것이였다. 책상에서 물려나 현실에 첫발을 디딘 리옥란이고보면 그런 꿈을 꿀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리옥란이도 여기서는 사다리를 단꺼번에 다섯칸씩 올려던지 못하듯 기계화계단을 걸치지 않고 자동화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날밤이였다.

소조실의 벌겍게 달아오른 쇠난로옆에 송석호와 리옥란이가 낮에 다니느라고 뾰족 젖은 신발에서 김이 문문 나는걸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눈보라가 일더니 창문에 눈가루를 휘뿌렸다. 바깥창턱우에는 눈이 쌓여 아래창유리를 반나마 가리웠다. 그러나 소조실안은 훈훈했다.

침묵은 오래도록 흘렀다. 낮에 약간한 충돌이 있었는지라 서로 말을 꺼내기 주저했다. 리옥란은 태연한 자세였다. 이런류의 녀자들은 말재주로 상대방을 누르기때문에 도고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송석호는 론쟁을 잊지 않았다. 리옥란이가 소조기간에 축사를 자동화할수는 없을것이니 그가 할 일을 두고 상론해야 하였다.

《전력공학부를 졸업했대지요?》

《예.》

《무얼 전문합니까?》

《전기기구를...》

송석호는 책임자로서 또 선배로서 한마디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조책임자의 위치에서 지시하는것이 아닙니다. 먼저 왔다간 소조원들의 경험을 종합해놓고 보면 소조기간에 이 산골에서 할수 있는 일감을 능력에 맞게 골라잡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욕망을 앞세운 나머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하고 잔뜩 벌려만 놓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송석호는 리옥란이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것 같아서 이 말에 그루를 박았다. 오늘 그가 한 발언을 보면 지내 들뜬감이 없지 않았다. 첫걸음부터 옳바로 디디게 해야 했다. 만약 과제를 알맞게 정해 주지 못한다면 후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고장을 떠날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능력에 알맞는 일감을 권고했었다.

《지금 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다 쓰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조활동기간에 남아돌아가는 전기를 다 써서 높은 수준의 전기화를 실현하는 목표를 정하는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자진하여 여기에 왔다는 다른 목표를 정했는지?》

송석호는 이 오돌찬 처녀가 또 고무공처럼 뽕뽕 뛰여오를것 같아서 조심히 눈치를 살폈다.

《나는 책임자동무의 권고대로 하겠어요. 그건 제가 하고싶었던 일이고 또 의무예요.》

다행히도 생각은 같았다. 송석호는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책임자동무는 전기가 남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건대는 전기가 어방없이 모자라요.》

《오늘 발전소에 가봤기에 알겠지만 현재 생산된 전기도 삼분지 이밖에 쓰지 못하고있지 않습니까?》

《운지리에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자면 지금의 발전기능력보다 3배는 더 조성해야 할것 같아요.》

《3배요?》

결국 지향은 같았지만 목표는 달랐다. 욕망이 지나치게 컸다. 발전기능력을 두배로 확장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현재 능력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허황해보였다. 소조기간이 한 10년 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자면 소조기간이 짧지 않을까요?》

《총동원해야지요.》

리옥란은 리론과 실천, 상상과 현실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를 타산하지 않고 구호만 제시하면 뭐나 다 할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였다. 송석호는 농장이 처한 현실태를 차근차근 알려주어야 했다.

《운지리의 인구는 천여명인데 그중 농장로력이 절반가량 됩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모여앉으면 로력타발인데 여러개소의 발전소를 더 건설할 로력을 짜낼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해당한 전기기계와 자재를 사오재도 국가계획에 물리지 않고는 전기줄 한메터도 받아오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타이르는 어조였지만 이 말은 리옥란의 허영심을 짓몽개는 《폭탄》이었다.

《내가 타산 못한것이 많을거예요. 더 타산해보겠어요. 다만 농장원들이 전기로 밥을 하고 전기로 온돌을 덥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뿐이에요. 때문에 우리 소조원들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리옥란은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물론 먼먼 후날에는 그렇게 될겁니다 현실은 꿈이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권고하고싶은것은 전상규동무처럼 하나씩 먹어들어가는것도 소조원이 피운 한떨기의 꽃이 된다는겁니다.》

리옥란은 알릴락말락 고개를 저었다. 하고싶은 말을 속으로 묵새기는 자체력은 아예 배우지 않은 듯싶은 리옥란은 끝내 상대방의 심정을 건드리는 말을 뽐었다.

《그 꽃은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맨 처음에 축산기계화를 시작한 소조원이 피운 꽃은 아름다웠어요. 그후 책임자동무는 그 꽃을 꺾어버리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다음에 온 소조원이 자동화를 하면 그 꽃은 더 아름다와서 책임자동무가 피운 꽃은 시들어버릴거예요. 그 기술발전과정이 개개인의 창안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귀중하고 영원히 지지 않을 꽃을 될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창안이 아니라 도입이에요. 도입할바에야 왜 중간공정을 택하는지 나는 그게 리해되지 않아요.》

그건 운지리의 특수성때문이라고 말하고싶었지만 송석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더는 언쟁하고싶지 않았다.

송석호는 그날처럼 입을 꼭 다물었다. 이그러진 입, 반나마 감아버린 눈에는 모역당한 격분이 아니라 피로운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는 타는 속을 달려래는지 또다시 담배에 불을 달았다. 담배 한대를 다 태울 때까지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참후에야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후 리옥란동무는 이상할 정도로 발전소건설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시다. 달포가 지나도록 말입니다. 그는 영농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트랙트르운전기술도 익히고 농장원들앞에서 열렬한 언변으로 선동도 했습니다. 나의 충고가

효력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왈각 뒤집어엎는 일이 생겼습시다.》

자정이 훨씬 지났을 때였다. 누군가 소조원들의 숙소문을 두드렸다. 종성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언짢은 투로 말하였다.

《나는 자네를 아들셈치고 말하겠네. 자네는 자면서 아직 산바람에 절지 않은 우리 집 체네에겐 밤마다 일을 시키니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도대체 량심이 있나?》

《일을 시키다니요?》

금시초문이었다. 종성집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밤마다 몸이 뽁뽁 얼어들어오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앓음소리를 낸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밤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이다.

《할머니, 제가 미쳐 살피지 못했습니다.》

송석호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박동무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눈보라가 어떻게나 기승을 부리는지 낮을 들고 걸을수가 없었다. 눈가루는 운무처럼 공간을 메웠기에 앞길을 분간키 어려웠다. 리옥란은 3작업반을 담당했으나 거기에는 있을것 같지 않았다. 오직 있을만한곳은 소형발전소였다. 송석호는 곧바로 소형발전소를 향해 뛰었다.

섬없이 돌아가는 발전기실에는 서민철이가 의자에 앉아서 책상우에 펼쳐놓은 도면을 보고있었다.

《소조원동무가 지금 어데 있는지 모르겠소?》

《숙소에 갔습시다.》

《여기에 있다가 갔소?》

《방금전까지 우리는 삼치골에 있었는데 나는 교대시간이 돼서 여기로 오고 소조원동무는 숙소에 갔는데요.》

《요즘 그가 발전소에 자주 옵디까?》

《한 보름동안은 여기에 나와 함께 이 도면을 그렸고...》

서민철은 책상우에 펼쳐놓은 운지리 지형도를 손으로 가리켰다. 도면에는 수로와 새로 건설할 발전소위치가 명시되였다. 발전소는 개나 더 건설할 설계도였다. 전상규는 이 발전소의 수로를 확장하고 발전기를 큰것으로 교체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리옥란은 어벌이 크게 무려 4개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겠다는것이였다. 공상에 지나지 않는 설계도였다. 리옥란에게 부여된 시간은 3년이다. 이 3년동안 발전소를 하나만 건설한다고 해도 운지리 실정에서는 기적일것이다. 만약 이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사방을 파헤쳐만 놓고 철수한다면 그것은 씻을수 없는 수치다. 그 한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소조운동에서 군중을 잃어버리는 과오로 될것이다. 송석호가 도면을 보던 얼굴

을 듣자 서민철이 말을 이었다.

《발전소건설위치와 언제를 막을 장소, 수로를 짚 지형을 돌아봐야겠다기에 며칠째 길안내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악한 소조원을 처음 봤습니다. 나는 그한테서 충고도 받았습시다. 마을에서 유일한 전기기술자라는게 발전소 하나를 건설해놓고 만세나 부른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직 숙소에 오지 않았단말이요.》

송석호는 공연히 서민철에게 역증을 냈다. 만나면 단단히 결판을 낼 잡도리였다. 그는 서민철이와 리옥란이가 헤어진 장소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 리옥란은 이미 숙소에 도착해야 했다. 아마 가다가 또 어디에 머물러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산짐승을 만났을수도 있고 벼랑에서 굴러 눈속에 파묻히웠을수도 있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박동무는 삼치골에 가보오. 나는 그 너머 찌리골로 질러가겠소.》

송석호는 밖으로 나왔다. 립춘을 앞둔 북방의 추위는 온도계의 수은주를 령하로 떨구었다. 그가 찌리골로 가는 고개를 넘었을 때 골짜기에서 화불이 기폭처럼 날리고있었다.

불빛은 두사람과 그옆에 서있는 황소를 비쳤다. 누굴까? 낮에 소를 잃었다더니 그걸 찾았는가? 그럴듯싶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리옥란의 행처를 알것 같아서 송석호는 아래로 뛰며 뒹굴며 내려갔다.

남자가 꾸짖어대는 목소리가 울리었다.

《여기가 뭐 가로등밑인줄 아시우? 어째 혼자서 이러는가말이우다. 죽자고 이러우다?》

분명 학결의 목소리였다.

《동무는 리상적인 축사에 앉아서 코노래를 부르면 되지만 나는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하겠으면 낮에 하란말이오다. 밝은 낮에...》

《나에게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사람들을 동원시키든가.》

《누구를? 동무를요? 동무는 내가 온날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높은 고지이라도 기발을 쫓으면 달려가겠다고 했지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동무에게는 더 높은 고지가 없어요.》

〈공산주의축사〉보다 더 높은 고지가 어데 있어요? 안그래요? 그러니 동무를 동원시킬수야 없지 않아요.》

송석호는 다가가지 못하고 선채로 굳어졌다.

리옥란의 켜켜한 목소리는 그대로 화살이 되어 학결이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속에 박히는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찾아가려고 했수다. 민철이한테서 소조원동무가 하려는 우리 마을 전기화계획을 들은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자만자족했는가를 깨달았수다. 나를 동원시킬걸 그랬수다. 소조원동무는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겠지만 우리야 영원히 여기서 살 사람들이니 그 계획을 실현해야 할게 아니우다. 그러니 나도 잘못했지만 소조원동무의 잘못도 있수다. 소조원동무는 잘못을 깨우쳐줄 의무가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두 나를 그냥 치박아두면 되우다?》

《그리고보니 저의 잘못이 크군요. 학결동무! 고마와요.》

학결은 리옥란의 손에서 곡괭이를 받아들고 걸차게 내리찍는것이였다.

《이건 무슨 구멍이오다?》

《이제 찌리골언제를 건설하면 물을 뿜아 발전기를 돌리고 저 3작업반구역에 발판수로 쓰자는거예요. 그 물길을 널 말뚝을 박자구...》

리옥란의 가슴속에서는 미래가 숨쉬고있을뿐아니라 식을줄 모르는 열정이 끓고있었다.

잠시후에 허연 말뚝이 세워졌다.

학결은 소고삐를 잡고 리옥란은 곡괭이를 메고 마을로 내려가고있었다.

송석호는 그들의 결으로 가지 못했다. 간들 할말이 없었다. 이 마을의 소조책임자는 자기가 아니라 리옥란이 같았다. 마을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그의 주위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의 계획을 욕망이라고 치부한 사람은 유독 자기뿐인것 같았다.

소리없이 된매를 맞았으나 송석호는 자기가 든 반기를 놓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에 책임자의 권한으로 역습을 가했다.

《리옥란동무는 소조규률을 어기고있습니다. 합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일판을 벌려서야 되겠습니까?》

리옥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침묵으로 답변하는듯싶었다.

《난 동무가 지나친 영웅심에 사로잡혀 리성을 잃고있다고 충고하고싶습시다.》

문득 머리를 든 리옥란이 석호를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일판을 크게 벌리는것이 영웅심이라면 발동의 불을 끄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을 영웅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

《생각해보세요. 이 마을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듯이 한계단한계단 발전시키는데는 관리위원장동지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술혁명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우리는 이 농장 관리위원장이 할 수 없는 보다 앞선 기술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왔어요. 나의 목표는 마을에 완전무결한 전기화를 실현하는것이예요.

이것은 결코 한갓 공상이 아니예요. 당의 방침이며 이미 선배소조원들이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기난방화를 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는가요? 혹시 내가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건 오산이예요.

나는 전력공학부를 졸업했어요. 때문에 한생을 나라의 전기화에 이바지할 의무를 지니고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 나라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있으며 또 받을 의무가 있어요. 책임자동무는 소조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일을 다 못한다고 걱정하는데 소조기간이 무슨련관이 있어요? 소조기간에 얽매어 일을 대강하고 만세를 부른다면 그것은 죄악이예요. 목표가 정확하면 이에 따르는 속도가 창조되기 마련이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담담하던 그의 어조는 차츰차츰 격해지더니 머루알같이 까만 눈에 눈물까지 가랑가랑 맺혔다.

《나는 그때까지만해도 웅심깊은 그의 마음을 다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고 감탄한것은 며칠전이었습시다. 그날 나는 소조기간이 끝났기에 군에 가서 철수령을 받았습시다. 막상 떠나자니 리옥란동무에게 미안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시다.

〈인젠 우리 농장을 영영 떠나는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도록 놀란것은 그가 분명 운지리를 〈우리 농장〉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번 해본 말인지, 아니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말인지 며칠을 두고 생각해봤지만 그의 진속을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제야 그의 속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는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시다. 발신인주소는 ○○구역당위원회 리명훈이었습시다. 나는 이런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서야 그분은 구역당책임비서인 리옥란동무의 아버지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기자동무, 차라리 그분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송석호는 아직 손때 묻지 않은 편지봉투를 내놓았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 나는 오늘 우리 구역당집행위원회 결정을 전달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그곳 마을사람들의 심정을 대표한 딸애의 편지를 받았습시다. 나는 그 편지를 공

개했습니다. 딸애는 이렇게 썼습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 불렀지만 실상은 한소조원이 구역당책임비서에게 쓰는 편지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을을 전기난방화하는것, 이것이 제가 점령할 목표입니다. 저는 소조기간뿐아니라 한생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아직 도시를 닳지 못한 이 산골 마을을 보다 살기좋은 락원으로 일떠세우렵니다.

그때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호소합니다.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구역당집행위원회에서는 운지리 소형발전소건설용 설비와 자재는 물론 전기밥가마, 전기온돌선 등을 해결해주며 로력지원도 할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힘을 믿고 의지한것은 잘한 일입니다.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크며 그 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력입니다. 이 힘은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것입니다. …인차 대표를 파견하겠습니다.…》

나는 그만에야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렇다. 목표는 오직 하나 당의 결심이다!

송석호동무는 그제야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그리면서 자기의 결심도 털어놓는것이였다.

《나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곳을 뜨지 않을 결심입니다. 나의 파견장은 우리 농장 축산기사로 바꾸어질것입니다!》

《!!》

참으로 귀중한 청년지식인들이였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오직 충성심으로만 가슴을 불태우는 이런 혁명전위들이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혁명초소를 지키고있기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된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날리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할것이다!

창밖에는 간고한 겨울을 이겨낸 봄풍경이 황홀하게 펼쳐졌다. 흘러오던 구름은 푸른빛으로 단장한 산허리를 휘감으며 얼싸안았다.

송석호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나도 그의 옆에서서 약동하는 봄풍경을 바라보았다. 골안쪽에서 연한 회색 잠바옷을 단정히 입은 한 처녀가 마을로 내려오고있었다.

《저 처녀가 리옥란동무입니다.》

평범한 처녀였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움의 화신이였다. 그는 봄과 함께 온 제비도 아니였고 꽃을 찾아온 나비도 아니였다. 락락장송처럼 뿌리를 깊숙이 내린 우리 시대의 꽃, 영원히 지지 않을 아름다운 꽃이였다!

시대의 향기

- 《대흥처녀》들에게 이 시를 바치노라-

조래현

조국이 부르면 어디든 좋아

내 다시 정겹게 바라보노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아시고
온 나라 젊은이들 따르고있는
사랑스러운 《대흥처녀》들아!

너희네가 고향을 떠나
스스로 탄원해온 대흥땅은
단 한번도 와본적 없고
남다른 인연맺은 고장도 아니었다

산들은 그대로 백금덩이
조국이 청춘들을 여기로 불러
제대군인 총각들 고향에도 아니 들리고
곧바로 배낭을 풀었다는
그것이 너희네가 알고있는 전부였다

대흥땅은 금골을 지나서도 맨 한끝
백암령과 한시절에 눈서리 내려
추위는 류달리 일찍 오고
봄꽃도 늦추 된다는 고장
한여름에도 강물에 들었단간
소리치며 뛰쳐나온다는 고장

아직은 첫 개발지와 같건만
당의 해빛 따사론 청춘의 고향
처녀들 쉬어도 정붙이고
청춘도시 세우는 꿈을 펼치며 살아

봄이야 늦게 올테면 오란다
겨울이야 빨리 올테면 오란다
양지쪽에 피는 꽃보다
비바람속에 피는 꽃 더 곱다는
너희네가 하는 말 시처럼 읊고싶다

어제는 함흥에서 채봉공이었다
어제는 군복입은 통신병이었다
어제는 과일공장 실험공이었다
어제는 의학대학 학생이었다

너희네가 여기서 말아안은 일
하나같이 소중해서인가
삼들고 길 닦는 모습
깡 운전실에 앉아 벨트를 운전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다

광부들과 어울려 출근하는 모습
건설장에서 벽돌을 쌓거나
청진기를 들고 진료소에 앉아있는
그 어느 처녀를 봐도 하나같이 곱다

아, 좋은세월 복받은 고장에서
꽃중에서 고운 시대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처녀들아
당의 뜻으로 여기에 삶의 뿌리 내리고
노래속에 웃음속에 살며 일하는
그 충성의 향기 한껏 풍기라!

기발을 보라

그 옛날 산골집에 벌방처녀 시집오듯
그렇게 조용히 온게 아니더란 말이지

꽃속에 묻히어 두둥실 왔더란 말이지
환호성에 받들리워 열싸 왔더란 말이지

저 하나의 향락은 쉬이 버리고
혁명을 먼저 생각한 처녀들아

떠나기전에 붉은기부터 만들었고
기발에는 맹세의 글발 수놓았더란 말이지

너희네가 떠나올 때 함흥역엔
줄줄이 꽃테프, 흔들어주는 손길

답례로는 기발로 흔들었더란 말이지
답례로는 《적기가》 불렀더란 말이지

그것이든 정든 고향도시와도
뜻있는 작별이 되었던 말이지

그것이든 낯설은 대흥땅과도
기꺼운 첫통성이 되었던 말이지

지금은 백금돌 무지우에서

그런듯이 나뭇기는 기발을 보란 말이지

그 기발밑에 하얀 백금의 흐름이 있고
그 기발밑에 너희네 새 삶이 있어

오, 붉은기는 투쟁의 영원한 표대
투쟁은 위훈과 노래의 어머니란 말이지!

《처녀소대》

미더웁고 끝끝한 제대군인 총각들이
《제대군인소대》를 못고 답새긴다길래
저희네도 제대군인 《처녀소대》를 무엇다나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게

소대를 못기만 해서야 뭘하랴
《처녀소대》답게 땀 밀어야지
그래서 총각들과 내기도 걸었다나
어느 소대가 이기나 겨루어보자고

처녀들의 맵짠 으름장에
총각들 못견디는척 응하였다나
조만해 웃을줄 모른다는 갱장아바이
웃음을 터쳤으니 승낙한거라나

첫 상봉의 뜻있는 예술공연무대도
혼성합창으로 막을 열었고
높은 산마루에 나란히 올라
광산의 미래도 펼쳐본 사이

총각들이 땀흘려 캐어낸 백금돌
련민의 정이 가서 뜨겁게 대하고
한덩이라도 허실할세라 마음 쓰며
큰배아로 나르는 처녀들이건만

이제 와신 총각들이 딱해한다나
예상을 뒤엎고 처녀들이 처녀들이 이기면
들쭉은 취하도록 안겨줄수 있지만
총각소대 위신이 문제로 된다나

제대군인 총각들의 집이 되어 살수 없고
총각들이 세우는 위훈의 그늘밑에
편안히 앉아 살수는 더더욱 없어
광산이 들썩하게 경쟁을 건져라나

생각해보면 누가 이기건 상관없다나
백금으로 당을 받들자는 오직 한마음
백금만 많이 캐면 그만이라나
백금만 많이 실리면 그만이라나

아버지와 딸

한해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길가의 풀숲에 마주앉았네
하고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으랴만
마주앉은 시간은 길지 않았네

북두봉말기에서 뻗어내린 하얀길 바라보며
아버지는 걱정스레 말하였네
-오르내리자면 힘이 들겠구나
의대를 졸업하고 여기 온걸 후회하진 않느냐?

생각도 깊이 먼길 오신 아버지앞이래서
딸은 꾸미며 말하진 않았네
-스스로 택한 길인걸요
힘은 들어도 보람은 커요

그래서 내 딸이지
머리를 끄덕인 아버지
새집들이 충충을 이룬 새 마을 둘러보며
갈수록 딸의 일감 많을거라는 짐작

아버지도 의사이고 딸도 의사
남을 위해 의술을 바치는것이
우리 시대 보건일군의 본분이라고
아침저녁 들어온 딸이 아닌가

날마다 새로이 무어지는 새 가정
태어나는 아이 열이 되랴 백이 되랴
지난밤도 《금돌》이라 이름 지운
옥동자 받아내며 밤을 새운 딸의 마음

지칠듯하나 지치지 아니한
 딸의 모습에서 그 수고 헤아려본 아버지
 마음 후련해 거뿔히 일어섰네
 이제는 불일을 다 본듯
 이제는 할말을 다 한듯

하루밤만이라도 묵으시면서
 제대군인 그 동무도 만나달라는 딸의 간청에

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으며 크게 말했네
 산이 들으라는듯, 오가는 사람 다 들으라는듯

-당의 부름따라 여기에 배낭을 푼
 그런 제대군인 만나나마나
 딸이 열이라면 그런 사위
 열이라도 삼겠다!

회 답

휴가길 알게 된 제대군인 총각
 순너없인 더 못살겠다기에
 반승낙을 하고 돌아온 처녀
 가슴만 빠직빠직 태웠다네

바늘따라 실간다는 옛법대로 한다면
 대홍땅을 뚝 떠나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 대홍에 뿌리내릴
 그 맹세 그 약속은 어찌구?

깊어진 정 끊으려면
 마음의 상처도 생긴다던데
 자기는 그런대로 참아낼것 같건만
 불같은 그 총각 어떻게이지?

일신상의 자그마한 비밀도
 이들을 더 못감춘다는 처녀
 남모르게 자주 내신 한숨으로
 그 아픔 그만에야 드러내고 말았다네

그래서 처녀들 편지를 썼다네
 《대홍처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백금》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그것이 어길수 없는 조건부이니

즉시에 회답하라고...

편지를 띄운지 닷새만에
 한장의 전보가 날아왔다네
 -대홍처녀동무들 나도 광부다
 15일 대홍역으로 마중오라!

그래서 어쩌자는 셈인가?
 결판을 내고 인연을 끊자는것인가?
 처녀들 반신반의 하면서도
 들쭉을 꺾어 들고 마중나갔다네

《백금》처럼 탄탄하면 후히 받아들이고
 흠반죽처럼 멀렁하면
 미안하나 즉시에 퇴짜라고
 처녀들 치까불며 마중나갔다네

기다리던 열차는 정시에 들어서고
 류달리 어깨에 착암기 멘 총각
 제 먼저 순너네를 알아보고
 정보로 힘차게 다가왔다네

-처녀동무들, 이러하면
 회답이 될가요!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해

꽃같은 나이에 꽃같은 마음아
 생김만이 곱더냐 진숙은 더욱 깊어
 하나같이 내 딸같고 막내동생같구나
 우리 당이 부르는 힘든 일터에
 량심의 좌표를 세운 처녀들

바다가 도시에선 이미 진꽃이
 여기서는 때맞추어 한창 피는가

처녀들에게 즐거움만 주련듯이
 비구름 저 멀리 달아나고
 햇빛만이 눈부시게 쏟아지누나

대홍의 첩첩한 산밭도
 착하니 제키를 낮춘듯
 대홍의 보석 회나흔 백금돌을
 옮기는 걸음마다 반가이 다가서고

북두봉의 무성한 이깔숲은
 처녀들 마음에 그늘을 모르게
 푸르러 싱싱히 푸르러
 생기를 더해주는가

서느러이 불어내리는 산바람아
 어디서던 처녀들을 먼저 알아보라고
 누구이던 반가이 손저어 주라고
 빨간 머리수건 기발처럼 날려주는가

북두봉 뿌리에서 솟구치는 강물아
 금강의 물처럼 맑기도 하구나
 옛선녀도 부러워하게 고와야 할
 《대흥처녀》들 아침저녁 손씻고 세수하라고

눈바람도 모질다는 북두봉 겨울아
 처녀들 눈속에 땡글며 비탈길 내리면서도
 폭신한 사랑의 솜옷에 감싸여
 그저 좋기만해 웃을수 있음은

친애하는 그이의 손길이 따뜻해서

담이 크고 인정미 너그러운 제대군인 총각들아
 그대들결엔 저희네가 있어야 한다면
 화려한 도시생활 멀리하고
 그대들을 따라나선 처녀들 아닌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해주라

누구나 여기에 올수 있었다면
 누구나 여기에 보낼수 있었다면
 기자인 내 첫 보도 날릴 때
 그처럼 눈시울 적시었으랴

산이 설고 물이 선 이 산중으로
 귀한 자식 웃으며 떠내보낸 어머니들이여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흥처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거니
 그런 딸 둔것을 자랑하시라! 자랑하시라!

예 와서 보시라

-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했던 남조선음악가의 수기-

림공식

예 와서 보시라
 예 와서 보시라

악몽같이 흘러간
 분단의 그 지나간 나날
 꿈속에서도
 꿈과 같이 거닐던
 오호! 대동강의 버들숲

동명왕릉의 소나무
 청신한 기상안고 예대로 푸르르고
 금수산 모란봉에 올라
 유서깊은 평양을 굽어보니
 황홀하여 눈이 부시구나

해빛 넘치는
 창창한 하늘을 향해
 노을비낀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활기넘친 거리마다엔
 꽃물결이 흐르누나

함께 이고 사는 하늘이여도
 여기 하늘은
 더더욱 푸르고
 마시는 공기조차 청신해

예 와서 보시라
 보논이 만나는이
 모두가 하나처럼
 희망과 행복에 휩싸여
 밝고밝은 그 환한 모습들

여기서는
 말소리도
 노래처럼 들리고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나무의 잎새조차 춤을 추는듯

오, 인간 만세!
 자주 만세!
 불멸의 진리를 가슴마다 밝혀주며
 수려한 대동강반에
 운명의 등대
 성스런 봉화가 장엄히 타오르고있나니

겨레여
 이역의 동포들이여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평양, 평양은
 온 배달민족의 구심점
 통일의 한품이로다
 예 와서 보시라

숲의 교향곡

-이 글을 버력산을 록화한 산림일꾼들에게 드린다-

리창록

내가 그 처녀를 처음 만난것은 몇해전 초여름의 일이었다.

당시 음악대학 연구원에 적을 두고있던 나는 소년시절의 푸른 꿈이 깃들어있는 옛 탄전과 숲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에서 유발된 숲으로의 여행을 단행했다. 숲을 노래하는 피아노곡을 구상하던 나는 그 여행에 자못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현실이 뽑어주는 뜨거운 열정을 오션지에 태워 파격적인 명곡을 지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옛 탄광지구를 가까이 할수록 마음은 류달리 설레이었다. 어린 시절의 귀중한 모든 추억이 일시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호기심과 모험심을 안고 어른들 몰래 인차의 뒤꽂무니에 매달려 갭으로 들어가려다가 아귀센 탄부의 손에 끌려나오던 일이며 밀바닥까지 말짱 들여다보이는 로천갱자리에 생겨난 호수, 밤이면 두억시니처럼 앞을 막아서군 하던 버력산... 한번은 그 버력산이 푸른 수림으로 되여본적도 있었다. 그랬다. 나는 지금도 꿈속에서 본 버력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나의 아버지는 후날 지배인으로까지 된 공훈탄부였다. 한생을 탄부로 일하면서 아아한 산발들이 속이 텅빈 깎데기만 남도록 그렇게 많은 탄을 켰다.

그러나 내가 철이 들어가던 그지음 아버지는 무어때문인지 고민하고있었다. 소탈한 성미와는 달리 말이 적어졌고 참을성을 잃고 화를 내곤 했다.

탄광이 멀리 옮겨간다는 소문이 나돌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버력산쪽으로 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무렵 더 자주 버력산으로 가군하는것이 눈에 띄였었다. 내가 뒤따라갔을 때 아버지는 버력덩이를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얼굴색은 몹시 침울하였다.

《아버지, 요즘엔 왜 자주 이 버력산으로 오나요?》

아버지는 대답대신 크고 거울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러다가 혼자소리로 《이 버력더미가 끝내 쓸모를 못찾는가보다.》 하고 락싹 해하는것이였다. 새 탄발을 찾아 떠나가야 하는 아버지에게는 버력산이 커다란 우환과 근심거리고 되고있다는것을 나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수 있었다.

그리고보면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군한것은 다 버력산때문인것 같았다. 재빛 먼지를 풀풀 날리는, 술한 농경지와 강물을 침식시키게 될 버력산으로 하여 겪는 아버지의 고민은 나의 작은 가슴속에도 깊이 새겨졌다.

얼마후 아버지는 새 탄전으로 먼저 떠나갔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은 기별이 오기전까지 반년 가까이 그냥 남아있었다. 처음 한동안은 아버지가 없는 생활이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차츰 습관되어갔다.

해빛이 자글거리는 한여름철이였다. 나는 동네애들과 함께 로천갱 침수터에 생겨난 호수가로 버력산을 넘어갔다. 한낮이면 버력산은 뜨거운 지열에 확확 달아오르군했다.

숨쉬기조차 가뻔다. 그러나 길을 멀리 에돌아가기는 싫었다. 맑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침병침병 물장구를 치다가는 입술이 파래가지고 자라바위에 기여올라 해바라기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고개를 젓히고 누워있느라 천천히 흘러가는 흰구름이며 피라미드처럼 잔뜩 치솟은 버력산이 손에 잡힐듯 가깝게 안겨왔다. 문득 아버지의 그늘비긴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이 울적해지였다. 처음 온몸이 노곤해오며 눈시울이 내리감기였다. 가물가물 흐려지는 의식속에 백발을 휘날리는 버력산이 우렁치며 울랐다. 산꼭대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서있는데 검은산이 희게 보인것은 할아버지의 긴 두루마기자락에 가리워진탓이였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나 다 이룰수 있게 한다는 푸른 지팡막대기를 들고있었다.

《애야, 너는 무엇을 소원하느냐?》

《소원이요? 음...이 버력산두 저 산처럼 푸른 숲이 우거졌으면 좋겠어요. 돌배랑 호두랑 많이많이 먹게시리...》

《허...그래? 참, 기특한 소년이다.》

할아버지는 푸른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가 가닿자마자 버력돌틈으로 파아란 새싹이 뿔뿔뿔뿔 머리를 내밀더니 쭉쭉 자라올라 어느새 온 버력산을 뒤덮는것이였다. 온갖 꽃들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달디단 산열매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야! 정말 멋있네. 할아버지, 정말 고마와요.》

《허허허...》 호탕한 웃음소리만이 온 공간에 가득 차넘치였다.

나는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을 어서 알고싶어 목이 쉬도록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린 보배로운 버력산의 모습은 그후 오래도록 어린 마음을 유혹했다. 푸른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버력산을 헤매기까지 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온 나는 그때의 탄전을 선뜻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을이 자리잡고있던 골

안과 저탄장 그리고 갭구앞에는 백양나무숲이 키높이 자랐다. 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속의 그 버럭산만은...

뽕죽봉우리는 두리몽실해지고 한결 낮아진것 같았는데 시험적으로 심었을 어린 나무들이 들성들성 서있었다. 푸른 산들속에 외로이 서있는 거무튀튀한 그 모양은 마치 백조무리속의 까마귀처럼 서글웠다. 그 어떤 기적을 바란것은 아니였건만 실망의 구름이 마음속에 짙은 음영을 던져주는것이였다.

산림경영소에 들러 러장을 푼 나는 주로 조림공들속에 들어가 일도 하고 이야기도 들으며 현실체험을 하고있었다.

어느날 나는 호젓한 숲속에서 채양달린 여름모를 쓴 무척 아름다운 용모의 한 처녀를 만났다. 그 처녀는 물오르기 시작한 어린 잣나무앞에 점도룩 앉아있기도 했고 갓 돌아나는 떡갈나무의 야들야들한 이파리를 살짝 건드리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마치 화려한 꽃밭속을 찾아든 나비가 어느 꽃에 앉을지 몰라하는 자태였다.

그 처녀가 이번에는 연필을 꺼내들더니 뭔가 부리나케 적어내려가는것이였다.

(헐 처녀일까?)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처녀의 아침이슬처럼 청초하고 맑은 눈동자, 생기와 명랑... 고백하건대 그런 눈동자를 나는 아직 본 일이 없다.

알고보니 고개너머 나무모밭에서 온 처녀였다.

《그러니 나무모들이 자라는 모양을 보려고 먼길을 했겠소?》

처녀는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띠었다.

《저 어디 계시지요? 혹시 현실체험을 내려오셨다는...》

《그렇다고 해두지요. 현대 동무는 시를 쓰오?》

나는 처녀의 눈동자에 부러움과 동경의 빛이 어리는것을 보며 이렇게 물었다. 처녀는 쑥스러운듯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공책을 동그랗게 감아쥐었다.

《숲에 사는 재미가 어떻소? 힘이 들고 고독한 때도 없잖을텐데...》 될수록이면 심중의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솔직한 감정, 그것이 생활과 창작에 대한 나의 좌우명이라고 할지...

《그건 그래요. 어떤 때는 참아내지 못하고 운적도 있었으니까요. 호호》 처녀는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웃었다.

《그런데 이 숲에는 어떻게 오게 되였소? 말하자면 그 동기라든가 충격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왔느냐고요? 난 음악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숲생활의 선물은 그보다 더 사랑한답니까.》

《...》

《그런데 욕망처럼은 안되는가봐요. 뭔가 부족을 느끼곤하거든요.》

처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하게 울리였으나 감출수 없는 침울한 색조가 섞여있었다.

《보래 뭔가 고민이 있는것 같은데 내가 알면 안되겠소. 물론 <절대비밀>에 속하는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러니 절 도와주시겠단 말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 조언을 받았으면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처녀의 얼굴은 빨강게 익었다.

나는 처녀가 정히 꾀놓은 오선지를 받아들였다.

《나는 조림공》 노래는 제목처럼 소박하면서도 소홀히 대할수 없게 하는 그런것이 느껴졌는데 선률에 대한 예민한 감수력과 자기식의 독특한 표현력에는 은연중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역시 생활의 심오한 세계보다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반응된 즉흥적인 감정과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될수록이면 실망하지 않도록 모난 말마디를 피해가며 처녀가 알아들을수 있으리만큼 이야기해주었다. 자기가 발붙이고있는 토양에 든든히 뿌리박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좋은 곡은 생활만이 줄수 있다는것을...

처녀는 종잡을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제가 이 숲을 사랑하지 않는단말이에요?》 하고 묻기라도 하듯.

그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볼 기회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속히 돌아오라는 지시가 있어 예정보다 앞당겨 숲을 떠나게 된것이다. 숲을 다녀온후에도 여전히 그 처녀에 대한 인상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음악수첩에 참고가 될 교재들과 고무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후에 그에게서는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내주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 거친 토양에 뿌리는 내려볼터입니다.》 라고 쓴 길지 않은 회답편지가 날아왔다.

나는 아무쪼록 그 처녀만은 예술창조의 멀고 힘든 로정을 끝까지 가내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기만을 바랬다. 한동안 깃을 뿔다가 떠나버리는 철새가 아니기를...

그런데 여러해가 지난 오늘, 례외 그 처녀가 미지의 처녀림, 푸른 숲 우거진 버럭산에서 나를 맞아준것이였다. 희맑은 얼굴은 별에 타서 고동색을 띠였는데 소복이 자란 눈썹밑에서 그윽히 빛나는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 봉긋한 가슴이며 탄력이 느껴지는 몸매에서는 대자연의 향취런듯 원숙미와 지성이 느껴졌다. 어제날의 애 어린 나무모가 거목으로 자랐다고 해야 할지, 이 뜻밖의 상봉이 나를 몹시도 흥분시켰다.

전국음악작품현상모집에 《숲의 교향곡》이 응모된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교향곡이라는 형식으로 보나 노래가 포괄하고있는 심오한 정서적내용으로 보나 신인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천부적인 재능이 발현된 걸작이였다. 일부 기교상 미숙한 부분을 수정보충한다면 기필코 음악계에 헤

성과도 같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창작가를 도와 노래를 완성할 과업이 음악작품심의 원인 나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미지의 창작가가 다름아닌 그 처녀일 줄이야! 생활이란 우연과 필연의 부단한 교체속에 놓여있었다더니...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우연성도 없음을 내가 깨달은 것은 씩후의 일이다.

자기의 처녀작이 그렇듯 심오한 예술의 세계를 밝혀낸 걸작으로 돌연 과문을 일으키리라고는 감히 생각못한 듯 처녀는 두손을 모아잡고 토끼처럼 놀라더니 얼굴을 익은 감처럼 물들이며 고개를 다소 굽이 숙이였다.

잠시후 고개를 들어 저멀리 런던히 뻗은 비취색 산발을 바라보는 크고 고운 눈동자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처녀의 눈길이 가닿은 푸른 산중 한가운데는 류달리 미칠한 은행나무가 우뚝 서있었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쬄는지 부채살같은 아지를 짹짹 퍼들고 훈풍에 설레이고있었다.

토양과 기후, 그것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이듯이 인간의 성장에도 역시 환경과 조건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의 성장에 고마운 밑거름이 돼준 것인가?

×

《술직한 말로 처음에는 〈산농사〉란 것이 여간 벅차지 않았답니다. 〈온실의 란초가 심산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고 못미더워하던 동창생 혜정의 말이 없없이 떠오르군 했어요. 정말이지 욕망의 포로가 되어 끝까지 가내지도 못할 마라손행렬에 뛰여든 경우처럼 될가봐 겁이 나더군요.》

그 처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남다른 포부와 결심을 아고 숲으로 온 순미는 첫걸음부터 상스럽지 못한 일로 하여 속을 썩여야 했다.

읍지구에서도 퍼그나 상거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산림경영소 꽃밭가에는 아까부터 학생복차림의 순미가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자기를 데리러 험한 고개를 넘어온 아버지가 소장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참이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그의 해맑은 얼굴은 초조함에 젖어들었다.

좁전에 순미가 소장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소장방에는 얼굴이 칼칼한 중년의 소장과 늙수그레한 웬 아버지가 마주앉아있었는데 탁한 담배연기가 무겁게 떠돌았다.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낀 순미가 되돌아나오려는데 소장이 불러세웠다.

《참, 인사하오. 조병제아바이라고 동무때문에 우야 고개를 넘어오셨소.》

눈길을 내리깔고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있던 고집스러워보이는 로인은 순미의 목례에는 반쯤 몸을 일으켜 황급히 인사를 받았다. 그에 대해서는 어제

여기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한뼉을 숲과 연분을 맺고 살아온다는, 이 옛탄전의 초대산림보호원이요 자연보호련맹산림보호협회 위원인 조병제였다.

순미는 그들의 담화를 더이상 방해하고싶지 않아 인츰 나와버리였다. 아직 저러고있는 걸보면 아귀를 짓지 못할 큰 문제거리가 있는 모양 같다.

이윽하여 아버지가 벌에 탄 살갓검은 얼굴에 침중한 기색을 하고 앞서 나왔다. 뒤미처 소장이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따라나왔다. 《아버지 두참, 여하튼 버력산문제는 좀 더 토론을 해보구 결정합시다.》

아버지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순미에게로 다가와 말없이 배낭을 앗아들고는 몇걸음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체면때문이겠지. 소문이 자자한 우리 산림경영소가 버력산문제로 복잡해진다 그거겠지유.》 하고 그루를 박듯 찍어 말했다.

《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바인 년세가 올해 몇입니까. 더구나 신병두 그렇구...》

《넌려해주어 감사하이.》

순미는 공연히 가슴이 화드득 뛰었다. 보지 말아야 할 가정싸움이라든 구경하고난 기분이다.

아버지는 벌써 마당을 지나 저만큼 앞서 걸어가고있었다. 순미는 소장에게 작별인사할 생각도 있고 서둘러 트렁크를 들고 뺨걸음을 옮겼다.

이른 봄의 앙상한 수림속은 싸늘하고 뿡뿡해보였다. 해묵은 락엽이 해면처럼 부근부근 밟혔다.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앞을 쏘아보며 휘적 휘적 걸었다. 순미의 배낭과 함께 손때묻은 호미자루가 뿌죽 나온 훌쭉한 자기의 배낭을 걸머졌다. 이따금 목을 공공거리는 걸보면 흥분이 채 갈았지 않은 모양 같았다. 순미는 여기로 오면서 자기가 만나게 될 숲사람들을 두고 퍼그나 마음 썼다.

《네가 낫선고장에 가서 어쩌자구... 어머니는 남편없이 키운 외동딸을 외지에 내놓기 서운한지 상심했다. 그러나 정작 헤어질 때는 《하기야 우리 순미가 사람복은 있지.》 하고 위안해주었다. 어딘지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를 따라가기는 썩 마음내키지 않는다. 마음같아서는 상급에서도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속에서 일하고싶었다.

산길을 내리자 도로가 나졌다. 예전에는 큰길이였을, 지금은 버력산이 밀려내려오는바람에 뒤길로 돼버린 길이다.

《지름길을 탈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내 말이 없던 아버지가 묻는 눈길로 말했다. 순미는 반대없었다. 피라미드형의 버력산들사이로 꼬리사린 오솔길이 울려다보였다. 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버력산을 처음 본다. 하긴 그가 이고장을 뜬것은 일곱살 때였다. 쓸모없이 내버린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기 그지없다. 그러나 버력산을 고생스레 오르느라니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불만이 싹트었다. 비교적 경사가 급한 벌거숭이산은 의지할데라곤 없었고 자칫하

면 허양 미끄러질판이다. 걸음걸음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그의 눈앞에는 야영지의 등산길이 얼핏 떠올랐다. 가파롭기만 하던 산밭, 하지만 줄사다리며 든든한 지팡이가 걸음걸음 부축여주지 않았던가. 줄사다리는 몰라도 의지할 잡판목이나 풀포기라도 있었으면 싶다.

올라가면서 경사는 다소 완만해졌다. 물매가 심하지 않게 하느라고 꼭대기를 깎아내리었다는게 알리었다.무심중 주위를 살피던 순미는 그만 두눈이 휘둥그레지었다. 산허리를 따라가며 간격맞춰 줄막 줄막 파놓은 구멍이들이 널려있었다. 혹시 나무를 심자고? 아까 소장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여기서 한숨 돌리자구.》 아바이는 배낭을 풀고 그속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호빠를 꺼내들었다. 그러더니 구멍이에 다가가는것이였다. 더러 메꾸어진데를 손질하려는것 같았다. 석비레처럼 부석 부석해보이는 버럭땅은 여간 굳지 않다. 팽이처럼 단단한 호빠로 힘껏 쫓아야 조금씩 부스리질뿐이다.

《저 여기에 나무를 심게 되나요?》

순미는 무척 바재이던 끝에 조심스레 물었다. 아까처럼 파르릉 우뢰라도 울리면 어쩔가...

하지만 부드러운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더 미뤄선 안되지. 그러느라면 이 저천 버럭산도 부드러워질게고 종당에 가선 좋은 림지가 될게 아닌가.

참, 리순미라고 했지. 순미... 이름이 곱구만.》

첫인상과는 달리 너그럽고 웅심깊은 사람이라는게 알리었다. 투박해보이는 너부죽한 얼굴에서 리지적인 작을사한 눈동자가 열정을 담고 순미를 바라보았다. 뭔가 기대와 믿음에 어린 따뜻한 시선이 다. 아바이는 발밑에서 버럭을 한웅큼 쥐더니 구수한 흙냄새라도 맡을 때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점도록 들여다보았다.

순미는 그녀의 아바이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 무엇을 깊이 사랑해보지 못한 자기로서는 아바이의 이 류다른 애착이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고개를 넘어서자 시내물이 실오리처럼 감돌아든 안침진 골안이 아련히 내려다보였다. 내가주변의 빼기밭들(나무모를 심었을것이다). 스투트를 엮은 작은 토피집... 그야말로 벽촌이다. 왜서인지 서글퍼지였다. 떠나온 집과 도시, 화려한 고층건물이며 시원하게 트인 네거리, 철따라 갖가지 꽃들이 화원을 펼치던 공원이 떠올랐다.

순미에게서 숲은 참말이지 동경의 활무대였다. 천고의 수림, 하늘이 내다보이지 않을만큼 아름다리나무들이 빼곡이 서있고 달짝지근한 산열매향기가 풍기는, 뭐니뭐니해도 그 숲은 순미를 매혹케 하는 신비로운 음향들로 가득차있을것이었다. 그 수림을 가꾸며 누구도 불려보지 못한, 숲만이 안겨줄 수 있는 노래를 불려보리라던 자기였었다. 순미는 심란한 기분으로 버럭산을 내리었다.

휴계실로나 쓰일 토피집은 산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달리 크고 아담했다. 살림방처럼 장판을 한 아래방과 명석을 잔 옷방, 부엌에는 쇠가마를 걸었고 작은 찬장까지 있었다. 마을이 멀다보니 여기서 자취할 때가 많은 모양이다. 하필이면 이런 외진 골안에 나무모밭을 꾸려놓았을가...

《봉녀야!》 찾는 소리에 부엌문이 벌컥 열리었다. 순미보다 서넛은 더 우일 얼굴도 몸매도 등실한 무척 싹싹해보이는 처녀가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이젠 됐구나!》 트렁크를 받아들며 기빠 어쩔줄 몰라했다. 그가 기빠하는 까닭을 알것 같았다. 심산 유곡에서 말동무도 없이 외롭고 쓸쓸했을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친동생처럼 마음에 꼭 드는 처녀가 찾아든것이다.

봉녀는 아바이의 막내딸이였다.

사람들은 어쩐지 이 외진 나무모밭에 오기를 저어했으며 왔다가도 몇달 못있어 떠나가곤했었다. 그러나 벌써 몇해전 그들 부녀간은 함께 나무모를 가꾸고있었다. 순미는 가슴이 뭉클해났다.

봉녀는 무뚝뚝한 아바이와는 달리 여간 상냥하고 다정하지 않았다.

순미는 행장을 풀고나서 집옆을 감돌아흐르는 개울가로 나갔다. 개울 건너편은 나무모밭이다. 그런 밭들이 집앞건너에도 집뒤에도 널려있다. 거기엔 1~2년생 어린 나무들이 줄지어 촘촘히 박혀있었다. 그것들은 마치도 순미의 손길을 바라는 어린애기마냥 빠끔히 울려다보는것 같았다.(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아줄게...)

산골물은 얼음같이 차다. 세수를 하고나니 온몸이 거뽏해지고 한결 마음이 안정되는것 같았다.

순미가 돌아오는 밥상이 쟁겨져있었다. 판자 두개를 맞붙이고 다리를 해단 식탁우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올라있었다.

《어서 들어보아요. 뭐 차리게 없어서...》

그러나 순미를 위해 원심을 쓴것이 알리었다. 두릅나물과 더덕채, 고사리무침, 참나물김치에다 빨간 고추가루가 뚝뚝 뜨는 고기국물에 만 메밀국수...

《이건 버럭산특산물이야.》

《네? 버럭산에 메밀이 어떻게...》

방금전에 넘어온 벌거숭이산이 언뜻 떠올랐다.

봉녀는 그저 입가에 웃음을 띠었을뿐이다.

후에 순미는 버럭돌에 질소성분이 많고 식물의 생태발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소들이 있어 메밀이 특별히 잘된다는것을, 아바이가 오랜 세월을 두고 버럭산의 립도조성이며 암질상태를 관찰해오는 과정에 메밀을 손수 시험재배해보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밥상을 물린뒤 아바이는 순미에게 오늘은 힘들게 왔는데 꼭 쉬라고 이르고는 어디론가 나갔다.

《저, 순민 학교때 퍼뜩새였는지?》

봉녀는 눈가에 남실거리는 웃음을 담고 물었다.

《네? 그걸 어떻게 다...》

《그리구 노래도 지었다면서? 하여튼 이젠 매일 순미 노렐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우리한테 손풍금도 보내올거야. 난 노렐 잘 부르지 못하지만 정말 좋아한다.》

순미는 그만 낮이 확 붉어지었고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음악은 그의 일루의 희망이었다. 도예술단 지휘자인 외삼촌은 순미의 예민한 감정과 영약스런 성미를 그 무슨 음악가고유의 기질이라고 극구 찬양했고 소녀를 자기의 연주실로 데리고다니며 음악적 감수력을 키워주려고 했다. 순미는 그 나이에 벌써 우리 나라 명곡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쇼팽과 슈베르트의 연주곡들, 모짜르트와 베토벤의 교향곡을 익히었고 피아노를 배웠다. 총명한테에 한번들은 선율을 기억했고 자매악기도 인츰 터득할만큼 눈썰미도 빨랐다. 그때문에 외삼촌은 물론 음악선생은 한사코 예술전문학교로 추천하려 했었다.

그러나 순미는 지방란에 산림전문학교를 적어넣었다.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것은 아니었다. 숲으로 향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음악에 대한 그의 지향도 커져갔다...

다음날부터 나무모캐기가 시작되어 순미는 개울가를 따라 띠엇띠엇 널려있는 뽕기밭으로 올라갔다. 아바이네 온 식솔이 초막을 짓고 밤낮없이 돌을 취내여 이렇게 나무모밭을 꾸리었다고 한다.

다른 작업반들에서 지원을 왔는지 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순미가 나타나자 모두 눈이 둥그래졌다. 무용배우처럼 날씬한 몸에 꼭 맞게 차려입은 주름세운 보위색작업복이며 하얀 손장갑, 레스가 달린 여름모자... 그 무엇에도 때묻지 않을 순결함에 속이 찢로해진것이다.

순미는 1년생 잣나무모들이 립추의 여지없이 빼곡이 서있는 밭두둑에 홀린듯 서있었다. 부지중 심장속의 그 《천고의 밀립》이 우렷이 떠오른것이다...

구령없이 시작되고 구령없이 끝나는 산농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가을에 캐서 잡채운 아카시아나무모들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이었다. 순미는 아바이가 시범을 보여주었고 어제저녁 《강의》에서 들은 나무모선별규칙을 지키려고 원심을 썼다. 뿌리와 줄기의 균형상태와 발달상태는 물론 나무모의 키와 굵기 그리고 병해충피해정도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나가야 하는 어지간히 품드는 일이었다. 참을성과 근면성, 아니 적응력이 필요할것이다. 자칫하면 권태와 무료감에서 헤어나지 못할것 같다. 정말이지 숲속에서의 시간은 한정없이 길고 길었다.

《가만, 짚이 적네.》 순미가 나무모단을 묶으려는데 아바이가 제지시켰다. 짚을 더 퍼고 뿌리가 드러날세라 꼼꼼히 싸고 포장을 했다. 기계손처럼 정확하고 드림이 없다. 익숙되고 날랜 솜씨에는 그 어

떤 툴동이, 음악성이 안배되어 흐르는듯했다. 어깨에서 팔쪽으로 투박하고 아귀센 손으로 조화롭게 굵이치며 툴동을 이루는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여 더디고 무료함을 낳던 시간들은 금시에 생기와 열정으로 충만되는상실였다.

순미는 은연중 로동의 흥겨움이 낳는 선물에 심취되어버렸고 그것을 오선지에 담으려고 헛된 시도를 거듭하였다.

사흘후에는 아침부터 자동차들이 들이닥쳤다. 나무모를 실어가려는것이다. 손포가 딸리었다. 그들은 어뜩새벽부터 일손을 잡아야 했다. 부엌일을 맡은 봉녀가 더 바빠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식사준비를 해야 하니 말이다. 그리곤 또 자기들과 꼭 같이 일손을 잡아야 하고...

순미는 피곤이 가득 실린 봉녀를 곁에서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이런 긴장한 작업은 며칠내내 계속되었다.

나무모들은 산지사방으로 실려갔다. 립산작업소가 있는 삼락등판으로, 읍지구에 새로 건설되는 주택지구와 그 어딘가로... 이제 나무모밭이 가을뒤의 허허벌판처럼 빈번해졌다.

순미는 마지막 자동차가 떠나기바쁘게 싸리비를 들고 마당가에 널린 검부라기며 흙덩이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큰 짐을 벗어놓았을 때같이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노래라도 부르고싶었다. 그때 순미는 문득 아바이가 마당한구석에 우두커니 서있는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어깨가 축 처졌다. 방금전까지도 딸자식 세간넌 때처럼 흥분하여 뛰여다니던 그였다.

《왜 그러세요, 아바이?》 순미가 다가가는것도 모르고 서있던 아바이는 무춤거리었다. 뭘가 서운해하는 표정이 어린 짓물린 눈귀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불현듯 숲으로 탄원해가는 자기를 바래주러 뺄스정류소까지 따라나섰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애지중지 자래운 귀한 살붙이를 품속에서 놓아버려야 하는 아쉬움과 애모쁨, 모성애가 따뜻한 물기로 자꾸 고여올랐었다. 어쩌면 그때의 어머니를 마주한듯싶었다.

그것은 순미가 아바이에게서 발견한 전혀 놀라운 세계였으며 후날에도 두고두고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것이였다.

(이젠 나무모밭일도 한시를 덜었으니 음악공부 좀 해야지...) 저녁식사가 끝난뒤 순미는 책상에 마주앉아 음악리론책을 펴들었다. 책꽂이에는 조립학, 토양학, 산림경영학이 꽂혀있었다. 아마 아바이와 봉녀언니가 보는것이겠지...

산촌의 밤은 빨리도 다가왔다. 래일아침준비를 하느라고 부엌에서 서성대던 봉녀도 이젠 잠이 든 모양 조용한데 이따금 옷방에서 아바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줄음이 왔다. 눈이 깔깔해나며 글줄이 제대로 안겨들지 않았다.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안되겠어. 래일부터는 작업을 좀 일찍 끝내고들어와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불현듯 옷방에서 아바이의 말소리가 났다. 《순미야, 이제 그만 자거라. 래일부턴 버력산에 올라가야 한다.》

《네!》 대답인지 물음지 모를 어쨌쩍한 소리가 순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뒤따라 《호…》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니 또 미루어야 하는가…》

다음날 새벽, 소란스러운 새들의 지저귐소리에 순미는 눈을 떴다. 고것들이 남의 달콤한 잠을 깨우면서…일어나기 싫어 선하품을 하며 새들을 원망했다.

부엌에서는 벌렁벌렁 밥가마 끓는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냄새가 물씬 풍긴다. 터벅터벅 불시에 아바이의 발자국소리가 났다. (이 새벽에 어디에 갔었을까?)

발자국소리는 열채에 달린 창고쪽으로 가더니 이어 다시 부엌문쪽으로 온다.

《애, 물을 좀 다구. 그리고 점심엔 힘들게 내려올것 없이 아예 밥을 싸가지구가게 준빌해라.》

《알겠어요.》

《순미는 아직 일어나지 못한 모양이구나.》

《네… 어제밤 늦도록 공불하더니… 참, 아버지 차라리 순미에게 시간을 좀 내주어요.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엔 또 책을 보자니 오죽 피곤하겠어요.》

《책볼시간두 따로 있냐? 그러구 지금은 일을 해야지, 나무를 키워야 해…》

그루를 박듯하는 아바이의 그 말은 순미의 가슴을 찔렀다.

(이젠 다로구나.)

순간 눈물이 흘러나오더니 베개잇을 적시었다. (난 어쩌면 좋아, 차라리 소장동지를 찾아가 조림반으로 돌려달렐가…)

...

아침일찍이 그들 셋은 나무모를 등에 지고 버력산으로 올라갔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산림편지나 기본식수를 끝내고보자고 권고했으나 아바이는 일찍 심어야 나무가 가물을 덜 탄다고 우기면서 부득부득 나섰다. 애당초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것 같지 않았다. 아바이는 환절기에 도지군하는 신경통으로 밤마다 신고하던 사람갈지 않게 미끄러운 산언덕을 비척거리며 앞서 올라갔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힘겹게 걷는 그 모습을 순미는 측은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국가적계획에 있는 림지도 아닌 버력산복화때문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 버력산이 아바이의 그 진정을 알기나 하겠는지…

산등성이에 오르자 쌀쌀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었다. 봄은 어딘가 저멀리에서 소심스레 궁쉴거리고 있을뿐이다.

나무심는 일은 또하나의 창조였다. 순미는 한포기한포기 정성들여 심었다. 뿌리가 마르지 않게 진

흙물에 잠그어내기까지한 아카시아모를 거적속에서 한뿌리씩 꺼내여 구덩이속에 곧추 세우고 뿌리는 잘 퍼준다음 흙을 넣으면서 퐁퐁 다졌다. 나중에는 지푸라기를 덮기까지 했다. 아바이가 특별히 강조하는 《가물예방》이다. 정말이지 그 빈틈없는 식수준비에는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해를 두고 이 술한 구덩이들을 뚫고 부식토까지 저울렸을것이다. 그때문에 더구나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아바이는 시종 마음을 못놓고 여간 원심을 쓰지 않는다. 뿌리에 덮는 흙속에 돌맹이 하나만 있어도 골라내고 순미에게로 봉녀에게로 오가며 살펴준다.

산림경영소장이 버력산에 나타난것은 그들이 3단계 계획한 첫해 나무심기작업을 거의 끝내가던 어느날이었다. 소장은 버력산을 갈지자로 오르내리며 심은 나무를 돌아보았다. 시종 무거운 표정을 하고있었는데 뭔가 생각되는바가 큰 모양이다.

《삼락등판식수나 끝내놓고는 곧 로력을 돌릴 작정이었는데…》 소장은 아바이에게 담배를 권하며 사과조로 말했다.

《이젠 한이들 더 품들이면 뵈테니 여기 걱정은 말게.》 아바이는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내뿜으며 혼연히 대꾸했다.

《아바이말대로 여기 버력산들이 다 록화되면 굉장한 국가적리익으로 뵈테지요. 그때가선 림산작업소를 하나 따로 내와야 할거우다. 헛허허.》 소장은 저로서도 자기의 말이 흠족한지 큰소리로 웃었다.

순미는 비뚤은 뒤의 하늘을 보았을 때처럼 마음이 개운했다. 그러니 소장도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제 비로소 깨달은것 같았다.

×

오늘은 휴일이어서 순미는 늦도록 자려고 했으나 아직 어둠이 활짝 걷히지 못했을 때 깨어났다.

창너머로 푸르른 야산등덕이 마치 텔레비죤화면처럼 명료하게 내다보였다. 한창 자라는 키낮은 개암나무의 넓은 잎새며 억새와 새초… 그속에서도 줄맞춰 심은 사슴뿔모양의 어린 잣나무가 이채롭다. 어릴적부터 제모양을 고집스레 갖추어가는 양중스럽기만한 나무다. 버력산의 아카시아들도 저렸으면…

나날이 숲은 푸르러가건만 약동하는 이 계절의 힘찬 메아리에 좀처럼 화답해나서지 못하는 그때문에 순미는 얼마나 애앓는지 모른다. 어린 나무모발에 나무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하는 분망한속에서도 버력산에 오르군하는것을 번지지 않았다. 늦은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기가 옮긴 나무들에서 돌아날 푸른 잎새가 얼른거려 쉬이 잠못이웠다. 야들야들한 이파리에 입맞추게 될 그 시각이 못건디게 기다려졌다. (파연 나무들이 제대로 뿌리내려줄

가?) 차츰 처녀의 가슴속에서 기다림은 의혹으로, 실망으로 쉬임없이 파문을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나서 순미는 합숙을 나섰다.(버력산 식수가 끝난 후 리합숙으로 거처를 옮겼었다.) 어쩌다 차례진 휴일이었지만 방구석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제저녁 쓰러다 종내 못 쓰고만 편지지를 책사이에 끼워 놓고나서 합숙 어머니에게 잠간 나갔다고겠노라고 말했다. 골짜기를 따라 산마루로 올라갔다. 선들선들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순미는 버력산이 있는 오른쪽 등성으로 가려고 했으나 억새풀이 길길이 자란 무연한 등판에 더 이끌렸다. 이 산의 기본수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철 푸른 나무들이었는데 큰밤나무, 오리나무, 떡갈나무 같은 잎넓은 나무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초본식물들인 억새와 대사초, 그날사초, 양지꽃, 우산나물 그리고 다래와 머루 등 덩굴식물들이 다양하게 군집하여 소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등판에는 약초밭들도 있었다. 삽주와 도라지, 당귀, 천나성, 단나삼, 오미자...

오래전부터 품을 들여 수종을 배치하고 가꾸는 산이라는 것이 대뜸 알리었다.

저멀리 산아래로 호수가 햇빛을 받아 유리처럼 번쩍이었다.

순미는 물끄러미 호수에 시선을 던지었다. 로천 갭자리에 생겼다는, 아직은 잠재력을 시위해본 적이 없을 죽은 물... 아마도 지금이라도 물길을 열어준다면 굉장한 마력으로 타빈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러자 호기심으로 생기를 뿌리던 맑은 눈동자는 불시에 흐려지고 말았다.

그는 울적한 기분을 누르지 못한채 버력산쪽으로 접어들었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고깔에 갈색뿔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 같던 버력산의 나무들이 다가갈수록 푸른 기운이 려연했다. 착각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부비었다.

산에는 이미 아바이와 봉녀가 올라가 있었다. 순미를 띠여본 봉녀가 손을 흔들며 반색했다.

《그러니 성공이란 말이지요?》 벽찬 환희가 순미를 휩쌌다. 얼마전까지만도 모살이를 하느라고 앓고 있던 나무가지들마다 쿵알만큼이나 작고 연연한 초록색이파리들이 잔뜩 돌아나 미풍에 흔들거린다.

《아이 귀여워...》 순미는 그만에 어린애가 되버렸고 포옹이라도 할듯 작은 이파리에 불을 가져갔다. 가슴이 빠근했다. 이런걸 두고 애착이라고 하는 걸가, 그저 목청껏 웨치고만 싶었다.

버력산아- 푸른숲아-

런런히 굽이쳐간 산발들이 그의 음색맑은 광량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되돌려보냈다. 《화답해다오. 나의 목소리- 숲의 메아리를- 메아리를-》

야들야들한 이파리, 연연한 푸른빛은 검디검은 산천과 진한 대조를 이루며 그지없이 진귀하고 청

청해보였다. 그러는 순미에게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 나무들이 대지에 깊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절대로 안심해선 안돼.》 하고 봉녀가 의미있는 말을 했다.

《온참, 언니두... 어쨌든 나무는 뿌리내리지 않아요. 일단 뿌리를 박았으니 자라서 거목이 될거예요.》 순미는 굳이 믿고만 싶었다. 어떻게 자래우는 나무들인가...

불쑥 봉녀가 《이 기쁜날 노래라도 좀 부르렴.》 하고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어마나?》 순미는 얼굴이 빨강게 되어 아바이를 돌아보았다. 아바이의 얼굴에도 흡족한 웃음이 어렸다. 참으로 처음 보는 웃음이다. (아바이도 기쁜 모양이구나!) 순미는 봉녀의 손을 잡고 산아래로 내리 달렸다. 그쪽에서 순미의 맑고 그윽한 노래소리가 울리더니 뒤이어 봉녀의 목소리도 합쳐졌다.

그날밤 순미는 편지를 쓰려고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했다. 정작 필을 들고보니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숲에서 보낸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컸고 번민도 많았던 그 나날이 커다란 의미를 띠고 떠올랐다. 지금 그는 자기가 이 숲에 그 어떤 정을 느끼고 있음을 명백히 의식했다.

《한번 상상해보아...》 달포전에 동창생인 혜정에게서 받은 편지에 대한 뒤늦은 회답인 세이다. 학교때는 음악소조에서 쌍둥이로 불리우기까지 한 그들이다. 《제 손으로 심은 나무에서 첫이파리가 돌아나고 생명이 움트는 다정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무대면막을 펼친듯한 수림, 그 너머로 눈부신 조명마냥 쏟아져내리는 햇빛... 그속에서 어린 나무들은 이파리를 흔들거리며 춤을 추고 또 춘다. 이때라고 숲의 가수들인 솔새며 짝바구리, 물레새, 휘파람새가 겨금내기로 목청을 돋군단다. <쭈리쭈> <삐히요삐히요> <쭈글쭈글> <호르륵 빗쭈> ...

대자연의 연주회라도 열린 것 같아. 나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의 <수확>의 계절처럼 생각되었어. 농민들이 호합진 벼이삭이 드리운 전원에서 맞는 그런 계절의 가을과는 달라. 뿌리내린 나무, 자기 손으로 낙근히 대지의 젖줄기를 찾아 생존할수 있는 자립적창조물을 보고싶었을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움텄어...》

처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다. 산림경영소에서 협의회가 진행되는 데 참가해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가 작성한 현재의 아카시아 대신 잣나무로 교체하기로 한 버력산 산림개조안이 비준되어 그 토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조만간에 이 버력산이 기름나무림으로 전환된단 말이지...) 나는 벽차오르는 흥분을 누를 수 없었다. 손을 내밀어 거악스레 뿌리내린 아카시아나무를 가만히 움켜잡았다. 신기한 생명체처럼 야릇한 생각을 자아내는 것은...

흔히 사람들은 처녀림이라고 하면 인간의 발길이

미처 가닿지 못한 머나먼 고장으로 생각하기마련이다. 하지만 이 버럭산이야말로 미개척지요 처녀림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며 청신한 숲향기를 날라왔다. 나는 폐부깊이 들이마셨다. 공기는 얼마나 맑고 상쾌한지 이루다 형언할수가 없다. 산림공기 가운데는 여러가지 향기와 함께 피톤치드라는 항생소가 들어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숲을 가꾸는 사람들의 피가 제일 맑다고 하는것도 이래서일것이다. 술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일사귀와 줄기로만 아니라 뿌리로도 흡수한다고 한다.) 막대한 량의 산소를 대기속에 내보내며 살균작용을 하고 먼지를 잡으며 소음공해를 억제하는 숲... 그러고보면 수림이 인간에게 베푸는 혜택이란 미처 다 헤아릴수가 없다. 어느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의 정서교양에 록화가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고 하니 말이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다시 그 처녀와 마주앉았다. ...그 하루도 그들은 버럭산에서 나무들과 씨름하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해서야 산을 내리었다.

순미의 희뜩한 얼굴은 별에 타고 바람에 터서 거칠어져갔다. 나긋나긋하던 손도 장알이 배기었다. 그는 밤에 나무옹이처럼 뚝뚝한 손바닥을 만지며 손이 굳어지면 손뼉금도 못타겠구나싶어 더럭 겁이 났다.

저녁준비때문에 앞서 산을 내려온 봉녀가 무엇이 기쁜지 그를 손짓해 불렀다. 토방우에는 신문이며 새로 나온 소설책, 《국토관리》잡지가 놓여있었다. 아마 통신원이 왔단 모양이다. 그러나 순미가 고대하는 편지는 없다. 봉녀가 손에 들고 기뻐하며 내보인것은 알박한 《새노래》였다.

《아이, 언니, 이 책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그러게말이야. 통신원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우리에게 보내준다는거야.》

《그래요? 이 책은 수요자가 많았던데...》

순미는 걸탐스레 책장을 번지였다. 그러다가 새로 나온 영화주제가 한곡을 골라잡고 시창을 했다. 《솔레씨 도레도 레솔씨라레...화솔씨 씨라솔...》

《저참, 순미가 대단하구나!》 신문을 들여다보면 아바이가 대견한지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검스레한 얼굴은 온화하고 눈빛은 더없이 다정하게 빛났다. 《그게 요즘 유행인 <도라지꽃>의 주제가 아니냐. 참 듣기가 좋더구나. 어디 한번 불러주지 않으련.》

(아바인 그저 산과 나무밖에 모르는줄 알았더니 음감도 풍부하구나!...)

다음날부터 순미의 노래소리가 가는곳마다에서 명랑하게 울리었다. 아직은 숲이 아닌 버럭산에서 피꼴새를 대신하여 노래를 불렀고 줄줄 흐르는 시내물마냥 실새없이 흘러나왔다. 그럴 때면 아바이의 철색 얼굴에는 응심깊은 미소가 흐르곤하였다. 숲의 고요를 흔들어깨우며 명랑히 울리는 처녀의 노래는 그 어떤 명상을, 깊숙이 묻어두었던 추억을

불러오는 모양이었다. 한번은 휴식시간에 아바이가 《애, 순미야.》하고 찾더니 《아버지얼굴이 생각나느냐?》하고 묻는것이였다.

《잘 생각 안나요...》 아바이는 순미가 어릴적에 아버지를 잃었다는걸 다 아는것 같았다.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지도 모른다. 순미의 아버지는 한때 이곳에서 산림보호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순미가 일 끝살때 산불을 끄다가 그만 잘못되였다. 순미가 아버지에게 아는것이란 이게 전부다. 아버지가 그토록 산을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함께 일하던 친구들은 아버지의 거명계 탄 시신을 그 산에 안장했다. 그 산천과 함께 영생하라고...

어릴적에 순미는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 숲을 위해 돌아가셨지요? 그건 훌륭한 일이지요?》하고 묻곤했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꼭 품어주곤하였었다.

외삼촌을 따라가 도시에 살면서 그의 영향으로 순미가 음악계로 발을 들여놓자 제일 섭섭해한것은 어머니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순미가 대를 이어 아버지의 피가 스민 숲을 가꾸는것이 남편의 넋을 잇는 길이요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외삼촌의 의견은 달랐다. 인제요, 음악적감각이요 하면서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순미는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음악때문에 숲을 외면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며 또 숲때문에 음악을 버린다는것도 말이 안된다. 나는 영원히 산을 가꾸면서 숲의 노래를 창작할테야, 선물로써 악보로써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이처럼 순미의 리상과 포부는 컸다. 그래서 산림경영소장도 신중한 생각끝에 바로 조병제아바이한테 그를 보냈던것이다...

(그런데 왜 이리도 마음이 고독스럽기만 할가?)

숲생활에 적응되어감에 따라 차츰 덜리라싶던 적막감은 웬일인지 더해만 간다. 환희끝에 찾아드는 고독마냥...

나무모를 가꾸고 버럭산에 심은 나무를 돌보는 힘겹고도 단조로운 산농사... 호젓한 숲속에 있느라면 시간마저 흐르듯마듯하며 몇번이고 굵든 해를 쳐다보게 된다. 고등중학교때 순미를 가르친 두터운 도수안경을 낀 학자형의 수학선생은 《학생동무들, 시간을 잃지 마시오. 쟁취하시오. 시간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하고 자주 강조하곤했었다.

《그래 시간은 창조를 의미하는거야!》 무슨일이나 흑해버리기 잘하는 순미는 그때 시간을 잃지 않고서 학교에서 돌아온후에도 시간을 두부모 썰듯 잘게잘게 쪼갠 일과표를 작성하여 앓은뱅이책상앞에 붙여놓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흘러가는 한분한초가 아쉽고 귀중했던 그 시간들이 견딜수 없는 부담으로만 생각되는지...

그러나 아바이에게는 시간에 대한 그런 예민한

느낌이란 거의나 없었고 어찌보면 무시되는듯했다. 자기처럼 해를 지을 일때문에 안절부절한다거나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쉬워 눈물을 보이는 일도 없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변화없는 숲생활이다 목적으로 되고 즐거움을 주는것 같았다. 호미를 잡고 나무모를 가꾸는 그를 보면 꼭 장난에 옴한 아이들 같다. 잔등이 팜으로 꼭 젖도록 허리펴는 법도 없이 묵묵히 깐깐스레 나무모를 손질하고 복을 돌구었다. 온 일생을 바치고 깐그리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그 무엇이라도 있는듯...

하늘에는 옅은 구름장이 한가로이 떠돌았다. 비구름은 아니었다.

순미는 이처럼 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는 난생처음이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한소나기 퍼부어주렴...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물초롱을 지고 오르내리기를 그 며칠, 산을 오르다 쭈르르 미끄러져 물을 쏟칠 때면 땅속에 스며드는 물이 너무나도 아까와 막 흠채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적은 그 몇번... 새들새들 노랑게 말라가는 이파리들이 마치 엄마젖을 찾는 아기의 타드는 입술만 갈아 얼마나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앓던가.

그런데 고대하던 비는 며칠후에 끝내 오고야말았다. 그 비가 얼마나 반갑던지 순미는 고스란히 내리는 비를 다 맞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하루일뿐 비는 멎지 않고 그냥 퍼부었다. 고생스레 부어준 물이 약이 되어 간신히 살아가는 나무들이 이번에는 폭우의 세례를 겪어야만 했다. 비, 장마... 마치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이 그들을 향해 반기를 들고 《전면전쟁》을 선포한듯싶었다.

그들은 온종일 버럭산을 떠나지 못했다. 아바이가 장마를 예견하여 짬짬이 계단식옹벽공사도 해놓았고 라선형으로 물길을 짜놓기도 했지만 별반 도움이 못되었다. 짹짹 채찍질하듯 퍼붓는 세찬 비발에 언제 손쓸 사이도 없이 여기저기서 사태가 지고 사막의 모래무지 꺼져내리듯했다. 아직 풍화과정의 점토성을 못가진 버럭산은 떠밀리우는 물줄기의 물사격에 움작을 못했다. 순미는 속상해 어쩔바를 몰랐다. 한창 모살이를 끝내고 싱싱해지던 어린 나무들이 그냥 파묻히는가 하면 꽤운 자리가 흉하게 드러났다. 잔디라도 덮여있었으면...

그날도 그들은 찬비속에서 미역이라도 감고난듯 흠뻑 젖어가지고 사태와 싸우고있었다. 속옷까지 폭 젖은지도 오렸다. 비발은 비웃을 뚫고 그냥 흘러들었다.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을 때의 그 끈적거림... 따뜻한 온돌방이 못건디게 그리워났다. 학교에 갔다 갑자기 소나기를 맞고 들어서면 어머니는 장농속에 포개두었던 속옷으로 그의 젖은 몸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가마닐 더 가져오라구-》 아바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순미는 와썹 놀라며 산아래로 미끄러지듯 달려내려갔다. 폭 젖은 가마니는 천근무게로 어깨를 눌렀다. 비청거리며 언덕을 오르

던 그는 그만 앓소리를 질렀다. 아바이가 막 아래로 떠밀리우는 흠가마니를 부둥켜안고 모지름쓰고 있지 않는가. 시꺼먼 흠탕물이 팔팔 웅벽을 넘어 그의 목덜미로 흘러내린다.

《아바이, 물러나요. 위험해요!》 순미는 눈앞이 아찔했다.

봉녀가 달려왔다. 그들은 미처 숨돌릴 사이도 없이 흠가마니를 맞들여다 덧쌓았다. 그렇게 하기를 그 몇번...

아바이를 부축여 일으키자고보니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온몸의 진기가 깐그리 빠져버린듯 물웅덩이에 주저앉은채 가쁜 숨을 토틀기만 했다.

저녁무렵이 돼서야 비발은 잠잠해졌다.

산을 돌아보니 몇십그루 잘되는 어린 나무들이 사태속에 묻혀버리었다. 뿌리가 들춰진 나무를 세우자고보니 모체비로 자꾸 넘어진다. 허리가 부러진 나무아지에는 눈물방울처럼 진액이 맺혔다. 순미는 살릴수 없게 된 나무를 멍청히 들여다보았다. 손끝에 피가 지도록 공력을 들인 나무다. 경사가 급한 이 서쪽릉선의 나무들은 가뭄도 몹시 탔었다. 한번은 물초롱을 지고 땅거미 지는 언덕을 오르다가 발목을 풀치고 온밤 쭈시는 고통으로 시달린적도 있다. 어떻게 살린 나무들인가...

순미는 그만에 어깨를 떨며 흑흑 느껴울었다. 어쩔 버럭산은 우리의 애라는 마음을 아랑곳도 않는 단 말인가.

그러는 순미가 민망한지 고개를 돌리고있던 봉녀마저 더는 못참겠는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말았다.

《그만들 하렴.》 아바이가 가슴이 아픈지 상을 찌프리였다.

아래컨 하늘에서는 떼구름이 서서히 이동해오고 있었다. 재편성된 대군단의 이동을 보는듯싶다. 어찌나? 혹시 우리가 모태성을 쌓고있는건 아닐까?

일단 가슴속에 의혹의 돌덩이가 떨어지자 쉬임없이 파문이 일어났다. 수십년간 나무 한대 자라지 못한 버럭산이다. 비록 버럭돌이 퇴적암이고 식물의 생태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탄소와 질소, 린, 칼시움 등 여러가지 영양소를 가지고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하나의 가설일뿐이다. 결코 가능성과 현실성이 같은 개념일수야 없지 않는가. 하두 오랜 세월이 흘러 자연풍화과정에 이루어질 버럭산의 록화... 그러자 버럭산이 범접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물처럼 두려움을 자아냈다.

순미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며 산을 내리었다. 합숙까지 갈 맥도 없다. 당분간은 아바이와 봉녀처럼 그냥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았다.

아바이는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느라 고심하고있었다. 비에 젖은데다 썩기까지 한 나무들은 불이 잘 달릴리 없다. 그렇게 술한 나무를 키워내면서도 설푸재기나 고목그루터기를 캐다가 화목용으로 쓰군한다.

《잠, 순미한테 편지가 왔더구나. 도예술단 혜정이라던지. 어서 방에 가보아라.》 아버지는 내굴이 통하는 아궁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일러주었다.

《그래요?》 순미는 대답을 해놓고도 얼마를 더 앉아있다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내굴내가 콧 벤 썰렁한 방안에 들어선 그는 밥상머리로 다가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녀 어머니가 왔다면 모양인지 상우에는 꽃강냉이그릇이 놓여있었다. 벌써 꽃강냉이철이 되었는데, 그러니 이해도 또...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순미의 얼굴은 흠뻑을 띠었다. 은연중 밝고 화려한 무대가 떠올랐고 박수갈채에 귀가 멍멍해진다. 혜정의 편지에는 만사람의 찬사속에 사는 자부가 짙은 향수내처럼 푹푹 풍긴다. 행복한 무대생활, 순회공연...

(그러니 내가 이곳에 와 있든말든 생활은 앞으로만 전진하는구나...) 마치 자기가 지구를 떠나 어딘가 머나먼 행성에 와있는듯한 외로움과 고독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벽에 걸린 철이 벗겨져가는 거울이 헬썩해진 그의 얼굴을 드러내보였다.

《정말이지 남달리 뛰어난 예술적재능으로 해서 모두의 경탄과 부러움(시샘이었지)을 자아내던 순미 네가 산골에서 썩고있는걸 생각하면 막 안타깝다.

생각해보면, 땃새의 노래가 아무리 훌륭한들 그걸 누가 들어주며...》

불쾌했다. 더 읽고싶지 않았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모멸감에 달아올랐던 열기도 식고 허무감이 전신을 휩쌌다. 막연히 느껴오던 불안과 위구... 그러니 언젠가는 닥쳐오고야말 그 것이 왔을뿐이다. 언젠가 본 로천정자리와 호수가 얼핏 떠올랐다. 그 때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거야.

숲에서 보낸 나날 순미는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학창시절처럼 독서계획을 세웠고 일기를 썼으며 선물의 상을 발견하고 저 밤을 꼬박 패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도 신성시하고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리 콧 움켜쥐려 해도 종당에는 술금술금 새버리고가는 모래처럼 그에게서 달아나버리고말았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젖은 옷도 벗을념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순미를 유심히 지켜보다 《웬일이냐?》 하고 이마부터 짚어본다. 장알박힌 찢찢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순미는 왈칵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러는 순미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졌다.

《...너두 이 땅과 숨결을 같이하고있구나. 장하다. 파시 산림보호원의 딸답다.》

(아니, 그럼 아버지는 아까 그 나무들때문에 우는 줄 아나보지...)

《순미야, 너무 상심말거라,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데 아무렴 버럭산이라고 무심

할터이나. 마음을 크게 먹고 어떻게 하나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꾸나.》

인정이 푹푹 풍기는 아버지의 그 말에 순미는 고개를 더 푹 숙이었다. 《아니예요, 난 한번 먹은 마음을 굵히지 않음테야요!》 이렇게 뿔뿔이 이야기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어쩐지 이 순간 자기자신조차 믿기가 어려웠다.

밤이 이슬하도록 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이밤중에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가마닐 좀 알아봐야겠다. 순미를 잘 돌봐줘라. 몸이 불편한것 같구나.》 밖에서 소곤소곤 주고받는 말소리...

잠을 설친 순미는 새벽녘의 호젓한 숲속으로 들어섰다. 하늘은 찌뿌둥한채 개일념을 앓는다.

호르륵 빗쫂...

선잠 깬 휘파람새가 나무가지에 앉아 무엇이 기쁜지 정답게 우짖어댄다. 하루일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돌아오던 저녁이면 저렇게 울어예곤했었다. 그 울음소리가 그에게는 《힘들었지? 빗쫂 쪼르르...》 정다운 속삭임처럼 들리었다. 지금도 휘파람새는 순미의 울적한 기분을 알아채기라도 한듯 《숲이 싫어? 숲이 싫어?》 하고 조롱하는것만 같았다. 이 숲과 이 산천, 그토록 애뜻한 정을 자아내던 그 모든것이 갑자기 식어버리고 매운 연기처럼 공허감이 꾸역꾸역 피어오를뿐이다.

순미는 서걱서걱 밟히우는 버럭산을 지척지척 걸어올라가고있었다. 하루해룰 지을 일이 끔찍했다. 배우고 씻긴 자리들, 뿌리가 허영게 드러난 나무들... 그 모든것이 다가올 이 하루의 시련을 예고해 주고있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애어린 가지들이 애처롭게 바르르 떨었다. 밤새도록 고통스런 생각에 시달린 그에게는 이 나무들이 전혀 낯설게 여겨지었다. 숲과 나무... 아버지는 숲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심장이 요구된다고 말했었다. 피동적인 수용이나 맹목적인 적응이 아닌 식지 않는 순결한 사랑이...

과연 끝까지 뜨겁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

...

순미는 아까부터 봉녀와 아버지가 자기를 찾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사태속에 떠밀리우는 순간 눈앞이 아득했다. 《어머니!-》 그의 가냘픈 몸은 차갑고 탄탄한 갑질속에라도 둘러싸여 어디론가 뚱뚱 떠가는듯 싶었다. 가슴이 옥죄여들고 숨쉬기가 답답했다. 손맥이 풀리었다. 그는 그만 손에 쥐고있던 어린 아카시아를 놓아버리고말았다. 그걸 건지려 하다가 이지경이 된것이다. 그의 손에서 풀려난 어린 나무는 설거져 내리는 흙무지속에 순식간에 묻혀버리고말았다.

《순미 정신차려! 순미야...》 누군가 그의 어깨를 꼭 붙안고 애타게 소리치고있었다. 뿌영게 흐려진 시야로 근심에 싸인 등실한 얼굴이 안겨왔다. 상냥

하고 인정미있는 눈물어린 모습이...

봉녀라는것을 알아보는 순간 웬일인지 설음이 복받쳤다. 봉녀는 손미를 더 꼭 껴안으며 머리수건을 풀어내려 험상궂은 얼굴이며 목덜미를 차례차례 닦아나갔다. 그러나 할퀴운 자리를 보고는 또 눈물을 흘리었다. 《하마트면 큰일 날뻔했구나. 아버지가 때마침 달려가보았기망정이지...》

순미는 그 소리를 멀리서처럼 들으며 대줄기마냥 허공중에 자욱히 서린 비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서운 세레라도 치른듯 약해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다.

《맥을 놓아선 안돼. 이젠 그만 내려가자꾸나. 응? 오늘은 순미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앓겠어.》 그래도 반응이 없자 《에이참, 미워죽겠네.》 하고 순미의 오탁 솜은 코등을 튕겨주려고 손을 쳐들었다.

《저...언닌 믿어요?》

《?!》

《이 나무들이 황량하고 거친 들판에 꽤 뿌리를 내릴것 같으나말예요. 난 어전지 자꾸 의문만 드는게...》

순간 봉녀의 얼굴이 흐려졌다.

《난 정말이지 꿈이 컸어요. 그 모든걸 다 버리고 숲으로 왔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린 돌우에 꽃을 피우려 하고있지요. 벌써 1년반째나...》

《그러니 순민 여직껏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있었다는거냐? 애착없는 생활을...》

그제서야 순미는 봉녀의 해쓱해진 얼굴을 보았다. 《봉녀야, 그만해라.》

어느새 다가왔는지 아바이의 컴컴한 얼굴이 내려다보있었다. 비물에 젖고 형클어진 술이 적은 허연 머리칼, 수척한 얼굴에 어린 복잡한 표정, 인생 고초를 다 겪었을 심뇌에 찬 그 모습...

순미는 자기가 커다란 후사경앞에 서있기라도 한듯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마음속 어두운 구석까지 죄다 비쳐보이는 어마어마한 후사경...

숨막힐듯한 순간 순간... 아, 차라리 채찍으로 종아리를 맞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바이는 돌파서서 산릉선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흙물은 손에는 아지가 부러진 아카시아가 들려있었다.아까 순미가 묻혀있던 그 사태무지속에서 파냈을지도 모른다. 순미의 손에서 수건이 맥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눈은 뜨고있었으나 동공은 영영 굳어져버린듯했다.

커다란 실망감과 막급한 후회... 낮동안의 충격으로 하여 순미는 잠자리에서 오래동안 뒤척이였다.

그는 나무모단을 무겁게 지고 범람하는 강을 허우적거리며 헤엄쳐건느고있었다. 강폭은 얼마나 넓고 물살은 또 얼마나 세찬지... 가도가도 끝이 되지 않는다. 맥은 빠질대로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나무모단을 벗어던지든지 아니면 이대로 물속에 가라앉든지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그런 순간이 온것이다. 숨이 막혀왔다. 생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나무모단을 벗어버리려고 황급히 매끼를 풀었다.

어디선가 《버리지 말거라!-》 혼미한 의식속에 그 말이 메아리마냥 아련히 들려왔다. 그는 와들 놀라 고개를 쳐들고 허공중을 휘둘러보았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나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석척하고 인정깊은 목소리만이 공명을 일으키었다. 《버리지 말거라!-》

《저더러 무엇을 버리지 말라는거예요? 이 나무 때문에 목숨을 바치라는거예요?》

《너의 생명처럼, 아름다운 지향과 꿈처럼 이 땅을, 이 숲을 사랑하거라. 사랑하거라.》

짜르릉 짱!

순미는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꿈이었다. 식은땀이 즐벅이 흘렀다.

밖에서는 소나기를 퍼붓고있었다. 평곳 날카로운 섬광, 잇달아 짜르릉 하는 둔중한 울림...

순미는 비속으로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와와 범람하는 골개물에 어꾸러지며 버력산을 향해 종주먹을 부르짖고 내달리었다. 비옷을 잊고나왔다는것을 알았으나 개의치 않았다. 얼마를 달렸는지... 버력산중턱에서 전지불이 병긋거리었다. 가슴이 후터워지며 안도의 숨이 후- 나왔다. 누군가 줄곧 뒤따라오는것만 같던 무섭증도 더는 그를 위협하지 못했다.

자박자박 고여있는 물웅덩이들, 은저가락 꽃히듯하는 세찬 비줄기, 더는 떠밀리우지 않게 든든히 눌러앉은 흙가마니들, 흙썩 썩은 부석부석한 버력땅... 순미는 전지불을 밝혀들고 그 어떤 위훈의 자취라도 찾듯 이 모든것을 살펴나갔다. 그러나 아바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바이!》

질은 어둡, 소연한 비소리, 우우 숲의 설레임이 순식간에 순미의 목소리를 삼켜버리었다. 그는 어둡속으로 허둥지둥 내달리었다. 마침내 지각운동이라도 일어났듯 폭 패워져나간 서쪽 산릉선에 쓰러져있는 아바이를 찾아내었다.

버력산을 한가슴에 그리안으려는듯 두팔을 짚벌린채 아바이는 의식을 잃고있었다. 피멍이 들고 터져오른 손등, 험상궂게 터갈라진 손바닥... 짝 움켜쥔 손이 뿌리가 드러난 아카시아 밑둥을 그러쥐고있었다. 그 어떤 사태에도 뿌리 뽑히지 않게 든든히 억척같이... 버릴수 없다는 뜨거운 애착심! 어떻게 하나 뿌리내리우려는 강렬한 지향!

순미는 눈곱이 뜨거워났다. 아아, 얼마나 크나큰 심장이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면...

《순미구나!》

얼마후 의식을 회복한 아바이는 그런 경황중에도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믿음이 헛되지 않은데서 오는 안도감과 기원이 담긴 그 억센 미소...

순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暇도 않고 《아니예요. 그렇게 아니예요!》 하고 중얼거리었다. 한생 거짓이란 모르는 오직 성실과 량심만을 고이 간직해오는 순결성의 화신! 아, 어쩌면 그렇듯 진정한가요...

《그러니 폭풍우를 넘어왔구려. 그속에서 자기의 참모습도 찾아보았을것이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선물의 상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후의 일입니다.》

담담히 울리는 그 목소리는 깊은 바다속에서 퍼 울리는 정화수처럼 맑고 유정했다.

《아바이가 없는 숲속은 뭔가 허전했어요. 기둥과 석가래를 뽑아낸 지붕없는 집처럼...》

아니예요. 아바이가 우리곁에 앉아있는것만 같았고 밤늦도록 울방자를 틀고 앉아 손수 그린 조림계획도를 펼쳐들고 미래의 《금궁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것 같았습니다. 잣나무의 대수림지대로 되어 《청춘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버력산!

어느날 나는 아바이를 찾아 또 병원으로 갔어요. 아바이는 불편의 살이 빠지고 가뜩이나 체소한 몸이 더 허약해보였어요. 그 몸으로 힘겨운 산농사를 지탱해왔다는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더군요. 평시에 아바이는 어깨는 굽었지만 언제나 머리만은 곧추 쳐들고 의젓하게 걸군했지요.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전진의 기상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바이는 하루속히 숲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걸 두고 죄스러워하는것 같더군요. 장마를 이겨낸 어린 나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북을 어떻게 둔구어주고 부식토는 얼마나 주며... 이렇게 일일이 당부하고 줄곧 마음썼어요.

《아무튼 순민 꼭 음악을 하라구. 나는 순미가 그만한 재능을 갖고있다고 본다. 글썄 난 음악을 잘 몰라. 하지만 송진냄새가 풍기고 나무잎들이 사그락거리는 숲한가운데 서있느라하면 여기서 좌좌 저기서 우우 참, 기가 맥히지. 숲에서 나는 음악이 산림다운 투박한 맛은 좀 있긴 하지만...》

(아, 아바이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가 간직되어있는가!) 정말이지 숲이 연주하는 음악처럼 듣기 좋은 곡조는 있을것 같지 않아요. 좌좌 설레는 그 소리가 때로는 어리광부리는 어린애의 청얼거림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날 키워주어 고맙소.》 하고 절을 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걸 듣고있느라하면 가슴이 다 뻘근해진답니다. 그렇게보면 숲의 선물이야말로 고귀한 노래이고 찬가가 아니겠어요. 그건 이 숲이 간직한 하많은 사연때문일거예요.

아바이세대들이 흘린 뜨거운 피와 땀이 토양이 되고 밑거름이 된 이 숲은 명실공히 창조의 결실이에요. 그래요. 조국의 대지를 푸르게 하려는 그 피타는 노력과 투쟁... 과연 그들이 없이 어떻게

무성한 수림과 풍만한 이 땅을, 청신하고 맑은 공기를 생각할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화려한 무대, 만사람의 찬사... 어리석은 동경이었어요. 진정 삶의 진가는 어디에 있는것이었어요.

언젠가 아바이는 어린 모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 모가 장차 거목으로 되자면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하구 그러자면 토양과 밑거름이 좋아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나는 이 땅을 밟네. 그건 이 땅이 우리의 진정을 거짓없이 받아주기때문이야. 조상대대로 살아가는 이 크나큰 대지보다 더 귀중한건 세상에 없네.》

아바이한테는 이 땅이, 메마르고 뻥뻥한 굴내풍기는 버력돌마저 다 귀중했어요. 방사선이 나오는 라듐광석을 품고다닌 큐리부인처럼 버력돌을 안고 린근농장 토양분석실로, 지질연구소로 오간 길은 얼마였는지...

아바이가 저에게 넘겨준 두툼한 일지에는 또 얼마나 방대한 산림식식과 경험의 수록되어있는지. 찹찹이 적고적었을 거기에는 성실과 량심, 인간으로서의 조병제가 있었어요. 점판암, 사암, 석회분, 석탄으로 구성된 버력돌의 성분분석표며 식물영양에서 개별적원소들이 노는 역할과 버력산록화의 가능성문제, 버력에서 시험재배한 식물들의 생태발육과 성장에 대한 고찰, 지어 밑그루로 심은 아카시아나무잎의 비료적가치에 이르기까지...

그러고보면 아바이가 숲에서 보낸 그 한생은 단순한 시간들의 연장이 아니라 보다 립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숲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응결체라고 해야겠지요.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보태주려는, 그것이 아바이의 지향이고 좌우명이었어요. 삶의 목적도 보람도 그에 있었어요.

《아바이,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어쩐지 아바이앞에서 어리광이라도 부려보고싶어졌어요. 아니, 그저 아바이와 함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끝없이 길었으면 했어요.

아바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는데 그 친화력에 온 심신이 스르르 녹아버리는것 같더군요.

《저 버력산은 어떻게 되어 가꾸게 되었지요?》

저의 물음에 아바이는 눈을 찡프리고 어딘가 한점을 응시한채 기억을 더듬는듯했어요. 워낙 과묵한 성미여서 절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가로챌거나 속단하는 법이 없고 한마디한마디가 다 의미심장했어요.

《아주 오랜적 일이었다. 내가 산림보호원으로 있을 때인데 탄부 한사람이 찾아오질 않았잖나. 얼마후에 탄광이 이동해가는데 푸른숲 한가운데 버력산을 남겨놓고 떠나자니 밭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가슴을 치더군. 글썄 탄을 캐느라하면 버력이야 나오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탄부의 량심때

문에 피로와하면서 나에게 버럭산을 부탁하고 떠나갔네. 후대들한테 탄부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아무쪼록 힘써달라더군...》

보매 이야기하기가 무척 힘이 든것 같았어요. 몇번이고 숨을 돌리더군요.

《그날저녁 나는 잠을 못갔네. 그 탄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

그런데 하루는 버럭산근처를 지나가느라니 웬 소년이 쿨적쿨적 울고있질 않겠나. 무슨 일이나고 물어도 씨원히 대답을 안해. 얼굴이며 손이랑 온통 탄가루투성이여서 버럭돌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나부다 했는데 그런게 아니더군. 글썄 꿈속에서 버럭산이 온통 수림으로 뒤덮여있는걸 보았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렇게 버럭산으로 달려왔다고 하더군. 그애 아버지 탄부였다네.

나는 그때 정말이지 생각되는바가 컸네. 꼬마의 말을 한갓 철부지의 꿈이라고만 여길수 없었지. 기특한 소년의 꿈, 탄부가 한 부탁... 그게 조국아, 미래가 나에게 주는 믿음이요 부탁이라고 생각했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였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처녀는 말을 끊고 내 기색을 살핀다.

《아, 아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서 계속하오.》

처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바이의 말이 끝나자 저의 가슴속에는 후더운 것이 짙 차올랐어요.

아바이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크나큰 사랑의 세계가 웅심깊이 자리잡고있는것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나무모나 키우고 버럭산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해온게 아니였어요. 그것은 조국애, 미래에 바치는 한 인간의 성실한 약속이였어요. 이 순간 저의 눈앞에는 한그루 아름답리 나무가 우뚝이 떠오르더군요. 뿌리내린 그 땅을 락락장송이 되어도 뜨지 않는 거목이... 그 나무가 지금 술한 잎사귀를 떨구어 땅을 걸구고 비바람을 막아주며 어린 나무모를 자래우고있었어요. 하여 불모의 버럭산은 수백년후에나 가능할 대지의 행운을 받아 안게 된것이 아니겠어요. 아, 애국의 거목!...》

...순미는 온몸이 커다란 불덩어리로 되어 활활 타번지는것만 같았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도 바로 쉴수가 없었다. 귀전에는 거대한 메아리가 쉬임 없이 공명을 일으키고있었다. 식을줄 모르는 사랑

의 선물이, 그 어떤 신앙심에도 견줄수 없는 그렇듯 뜨겁고 강렬한 조국애의 레찬이...

드디어 오션지우에서 무수한 부호와 표식들의 대행렬이 줄달음쳐나갔다.

×

내가 대학강의실 불밝은 창가에 앉아, 혹은 심의실의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 복잡하고 미묘한 리론과 음계속을 헤매고있을 때 이 처녀는 리론보다 훨씬 위력한 생활속에서 일생의 값높은 진리를 체득한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내가 도달하게 되리라고 막연히 공상해온 그 신비의 세계를 단숨에 치달아오른것이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떠밀어주었기에?...

나는 지금껏 토양과 기후를 떠나 식물은 생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이 불모의 버럭돌우에 나무들이 뿌리내린것이 과연 토양이나 기후의 덕이었을가. 물론 모든 생명물질에 있어서 환경과 조건은 필수적이다. 허나 메마르고 거친 저 버럭돌에도 생명을 키워내는 온기와 숨결을 준 자양분이 없다면 우리 생활의 바탕이며 근본인 사랑이 없다면 보람찬 삶을 노래할수 없을것이다.

따사로운 햇빛이 푸르른 수림우로 즐기차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술한 땀과 눈물과 정성이 메마른 땅을 걸구고 또한 씻겨내리지 못하도록 옹벽을 쌓은, 그래서 이루어진 푸른 숲이다.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 저 무성한 수림속에서 조국애로 충만된 무수한 조병제와 봉녀, 순미들의 모습이 우뚝이 떠오른다.

나의 온몸으로 교향곡의 장중한 서곡이 숨배인 것은 그 순간이었다.

좌좌- 우우- 무성한 숲이 일시에 설레임을 일으켰다. 푸르려 설레는 버럭산과 련봉들이, 아니 온 산천이 음향이 되고 리듬이 되고 선율로 되어 하나의 장엄하고도 즐기찬 화음을 이루었다.

앞가슴을 활짝 펼치고싶도록 맑고 청신한 음조, 희망과 포부로 설레이는 선율의 물결, 생의 열광적인 환희다. 조국애 바치는 사랑과 헌신의 격조높은 메아리였다.

나는 뚫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강그리 쏟아붓고 싶어 어머니대지에 깊숙이 머리를 숙이였다.

나는 병사였다 외 1편

송현수

옷방에 걸려있는
폴색배낭을 바라볼 때면
내 공지높이 웨치는 말이 있다
오 나는 병사였다

아지랑 물결치는 지평선머
아직도 들려오는 나팔소리 나팔소리
정보로 걷는 대렬합창 행진속에
나의 군화자욱소리도 울려나오나니

잊을수 없노라
그 시절에 내 정이 들었던
전호여
눈비오는 낮과 밤 내 심장 뚫여주던
초소길이어

은행나무집 막내가 아니라
조국의 아들로 자라야 했던 그 시절에
나는 배웠노라
응석과 어리광이 아닌
만형의 응심을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익숙이 된
목달개 다는 법도
사랑하는 처녀도 허를 차는
잔음식 만드는 주부의 일썹씨도
그 시절에 나는 알았거니

오 땀에 늘 젖어있던
나의 군복이여
뒤축뺨은 군화여
헤쳐 넘은
산과 강은 얼마이나

군용밥통에 전우들이 차려주는
후더운 생일상 눈물속에 받으며
사나이의 진정을 쏟을줄 알았고
꿈속에 샘솟는 고향의 박우물을
조국애의 젖줄기로 안을줄 알았거니

떠나온 고향을 심장으로 사랑하고
지켜선 조국을 심장처럼 아끼는
참된 아들로 자라는 그 시절에
오 나는 병사였거니

자서전에 자랑으로 새겨진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있어
조국은 아직도 나를 불러
창조의 전초선에 불러 믿을 주나니

그 시절처럼 살자
한생을 다잡으며
내 심장으로 웨치노라
오 나는 병사였다!

제대증

나에게는 지금
한장의 증서가 있다
전호를 내리였던 그 아침
군화뒤축 붙이며 받아주었던
제대증이

내 초소에 서던 날
군기앞에서 쥐었던 군인증 대신
나에게 안겨진 이 증서
오 제대증

이제는 병사가 아님을

또박또박 명령한 싱그런 글밭
 아쉽노라
 내 다시 전호에 서지 못함을
 깨우치는 증서 다시 봄이

인제라도
 이 증서 들고가면
 나이 지긋한 로동과장은 반겨맞으리
 취미와 성격까지 물으며

이것만 있으면
 빨간 령장의 군복대신
 넥타이 맨 양복차림의
 풀색 공민증도 받을수 있으리

허나 이것은
 누구나 쉽게 지닐수 있는건 아니여라
 가장 성스러운 시절을
 수호의 시절로 조국에 바친
 참된 아들만 가질수 있는
 믿음의 징표

오 제대증
 나의 제대증
 몸엔 비록 그날의 군사칭호도
 만탄창한 자동보총 메여있지 않아도
 조국이 부르는 준엄한 언덕에
 다시 병사로 설수 있음을
 명령으로 보증한 징표구나

수 필

빛나는 시절

박창민

래일 아침이면 나의 맏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그를 축하하기 위해 친척, 친우들이 찾아온 우리 집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있던 나의 형님이 무슨 쓰거운 일이라도 있는지 입을 꾹뾰 다시며 말하였다.
 《정말 한심하군.》
 《큰아버지, 왜 그래요?》
 맏이가 호기심이 부쩍 동하여 물었다.
 《이걸 좀 보렴.》
 형님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가리켰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기 싫어 도주하기때문에 초모를 못하고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한심한 일이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다. 얼마나 판이한 두 현실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조국보위를 위해 인민군대에 입대하는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데 그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군대를 기피하여 도주하고있다는것이였다.
 우리 청년들과 그 나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높이와 삶의 방식, 리상과 포부는 얼마나 아득한 차이를 가지는가.
 부지중 혁명의 대가 튼튼히 이어지고있는 주체의 조국에 사는 궁지와 무성하는 혁명의 계승자들에

대한 대견함과 기쁨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파란 전사의 령장을 달고 조선인민경비대에 입대하는 저 맏이만 해도 스스로 대학파견장을 조국보위의 입대증과 바꾸어준 새 세대이다.
 작가가 되겠다는 학창시절의 리상과 포부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꽃피워가겠다는것이였다.
 혁명의 대를 이어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에 들어서서는 아들의 모습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니 잊혀지지 않는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지난해 여름,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전우의 아들을 바래주려 역에 나간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군복을 입은 신입병사를 축하하여 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들의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군복을 입은 한 외국인이 다가왔다. 그는 자기를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구라파의 어느 한 나라 군사의교일군이라고 소개하였다.
 《축하합니다! 조선청년들이 부럽습니다!...》
 그는 저으기 걱정예 넘쳐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
 자기는 우리 나라에 오래동안 주재하여 조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조선청년들은 조국보위를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여기기때문에 초모때가 되면 온 시내가 명절처럼 흥성하는데 참으로 부럽다고, 이 모습을 자기 나라 청년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전에

자기 조국으로부터 아들녀석이 군대입대를 기피하여 다른 나라로 도주했다는 기막힌 전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앞가슴에 빨간 꽃송이를 단 전우의 아들에게 물었다.

《조선청년들은 군대에 나가는것을 왜 그렇게도 좋아합니까?》

전우의 아들은 긍지높이 말하였다.

《조국이 있어야 청춘의 행복도, 이상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청춘의 이상은 투쟁속에서 꽃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감동했다.

어쩌면 열여덟살밖에 안된다는 애젊은 학생의 정신세계가 그처럼 높고 숭고할까. 그도 신입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혁명하는 조선청년들의 모습을 자기 나라 청년들에게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잊지 못할 시절이 있다.

자기 생애에서 군사복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가장 빛나는 구간에 있는 시절이 바로 병사시절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것이다.

그때문에 어깨우에 금빛견장을 엮은 머리희스한 장령도, 나라의 큰 기업소를 책임진 지배인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농장의 로당원도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나도 한때는 병사였다!》고.

열한살짜리 나의 막내도 사진첩을 펼칠 때면 무슨 큰 신기한 일이라도 있는지 좋아라고 웃군한다.

《하하. 아버지도 〈벽돌장군〉(전사)이었구나. 〈한줄배기〉는 몇년만에 됐나요?》

이 철부지소년은 어깨우에 중성이 주련이 박혀있는 이 아버지가 《벽돌장군》이었다는것이 우스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값높은 시절이었다는것을 이 열한살짜리가 어떻게 알수 있으랴.

돌이켜보면 병사를 키워준 중대는 학창시절에 열변을 토하며 론하던 《조국과 청춘》, 《청춘과 이상》이 무엇인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준 혁명의 대학이었다.

나의 병사시절은 대덕산 기슭에서 시작되었다.

눈보라치는 겨울밤 언땅에 가슴을 대고 밤을 새울 때 나는 조국의 안녕, 인민의 행복을 지켜선 병사의 의무를 십장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천리강행군의 숙영의 밤, 철갑모를 쓰고 군용밥통에 밥을 지

어 먹을 때 나는 장구한 나날 백두밀림에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을 그려보며 조국과 병사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 험치 않았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해동안 눈우에 얹드려 조국이 안겨준 혁명의 무기와 함께 밤을 새우기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스스로 택한 길, 스스로 선 위치이기에 자랑스럽고 보람찬 길이었다.

조국보위를 위한 드팀없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신념과 의리로 지켜선 병사의 위치!

병사생활은 가르쳐주었다. 그자리를 잘 지키면 학창시절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여기던 영웅도 되고 충신이 된다는것을. 그러나 그자리가 힘들다고 순간이나마 마음의 동요가 생기면 간신이 되고 물러서면 영원히 저주받을 반역의 길로 떨어진다것을.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보위의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시고 남먼저 찾아주시는 병사! 우리 당이 언제나 위대한 결심의 첫자리에 세워주시는 병사!

하기에 우리 시대 병사의 이름은 위훈으로 빛나고있다. 병사와 위훈은 언제나 나란히 놓이고있다.

아직 조국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어있고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침략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없는 우리 인민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행군길이 아직 끝나지 않아 날라리를 부리며 살수 없는 우리 청춘들이다. 그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위해 가장 값높은 삶을 바친 리수복, 김광철 등 청년영웅들의 숭고한 모습을 마음의 거울로 삼고 혁명가요를 높이높이 부르며 그들처럼 살고있지 않는가....

군복을 입고 거울앞에 서서 제모습을 비쳐보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충성과 위훈의 그 높이에 언제나 마음을 얹어두고 사는 우리의 한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바로 병사시절,청춘시절이라고.

나는 아들의 군복깃에 령장을 바로잡아주며 정색하여 말하였다.

《초소를 잘 지켜라!》

그것은 아침마다 학교로 갈 때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공부를 잘하라고 하던 그런 당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호자의 무거운 임무를 안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병사에게 하는 이 나라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엄숙한 부탁이었다.

조국의 명령이었다!

고 백

리준식(독일교포)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펼 펼 뚫는 불덩어리를 삼킨 가슴이었습니다
조국의 한쪽 북녘땅에
첫발을 내딛은이래
내 가슴은 활화산 같았습니다

자본으로 인해 말살당해가는 인간의 존엄
오직 돈과 명예만이 최대가치인 사회
흘려야 할 눈물마저
간혹 텔레비전앞에서나 나오는 사회에서
내 찾아온 북녘땅은
보통사람들이 사는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낳아준 땅우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과 조국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산촌마을 처녀로부터
세살자리 고사리손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오셔서
백두에서 한나까지 달려가는 통일대행진에
뜨거운 가슴으로 타오르는 눈물의 웨침
조국통일!
조국은 하나다!

나는 두눈 뜨고 똑바로 보았습니다
조국땅 허리를 자른 미제와
미제국주의 앞잡이 군사독재정권은
범민족대회 참가 동포들이
판문점에 도착한 그 시각에
조국통일을 웨치는
남녘땅 민중들에게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풀어
최루탄과 쇠몽둥이로
도깨비들처럼 날치는 뉴스를
다른곳도 아닌 판문각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한겨레 한피줄로 살아왔고 살아갈 땅에서
통일만이 살길이라 웨치는 백성에게
병역의무로 입대한 전투경찰을
독재의 방패막이로 써먹는 남쪽과
같은 병역의무로 입대한 인민군전사들은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수없는 건설장에서 삼복더위도 아랑곳없이
건설에 구슬땀을 흘리는 북쪽을 보며
또한번의 불덩어리를 삼키고말았습니다

교활하게 웃음띤 독재자가
교묘하게 독재의 철벽을 쌓을 때마다
들려오는
분신, 투신, 타살, 고문, 투옥 소식들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가
불타는 가슴을 가리고
참사랑을 짓밟개버리면서도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며
입술로만 부르고 찾아온
참으로 통곡할 시간들이었을뿐입니다

기도가 없이도 북쪽 조국은
알수 없는 경이로 가득차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듯
끝모를 마음속에서 뜨겁게 솟아올라
오직 하나로 뭉친 마음들
이것이 조국의 웅골찬 기둥임을 확인한것입니다
부족해도 서로들 위해주며
우리 식대로 잘살수 있음을 확인한것입니다

평양하늘에 타오르는 주체의 봉화는
결코 한쪽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7천만을 위한것임을
밝아올 찬란한 통일조국과
가슴 벅찬 통일의 새 력사로
우리모두를 부르는 통일의 해불임을
목매여 뜨거운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범민족대회의 나날에-

세월이 흘러도

림재성

장편소설 《분수령》은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를 몸소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내용으로 창작되었다.

내가 장편소설 《분수령》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지체험의 길에 오른것은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인 1985년 정월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확립을 생활소재로 하여 장편소설을 창작할 결심을 품고 현장에 내려갔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아마도 그것은 프락또르나 대형집배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로동계급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내용으로 소설을 쓴다면 몰라도 경제관리체제를 쓴다는것이 처녀지를 개척하는것과 같은 사명감과 함께 위압감을 주었기때문인것 같았다.

하지만 물려설수 없었다. 나는 이미 장편소설 《분수령》을 창작하기로 당앞에 맹세했기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에 대한 파악이 얼마간 있어 자신심과 창작적욕망이 있었다. 교통성운수국사령원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북중기계공장, 평양철도국 등 여러 단위에 나가 대안의 사업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실무사업에 참가했던것이다.

나의 전직 사업경험이 소설창작사업에 크게 도움을 준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에게 보다 큰 창작적충격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킨것은 변천된 새 환경에서 받아안은 대안의 사업체제의 우월성과 거대한 잠재력, 생활력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그전의 사업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우월한 사업체제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가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종전의 경제관리체제보다 우월하다는것은 경제기관에서 다년간 일해온 나는 누구보다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80년대에 와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우심해지는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은 많은 나라들을 파국적상태로 떠밀어넣었다.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이든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나라이든 그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위기를 피할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개편》과 《개혁》, 《개방》에 의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였다. 결과 그 나라들에서는 기업소들이 파산되어 실업자들을 무리로 산생시켰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생산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로동대중은 그에 반발해서 태업, 파업,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된 대안의 사업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력사밖에서 치부의 대상, 로동도구로밖에 인정되지 않던 생산자대중이 공장의 참된 주인으로 되어 나라와 자신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깡그리 바치고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 우리 식의 위대한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의 그 과학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를 휩쓰는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나가는 현실을 보고 나는 창작의 붓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나는 현지체험과정에 한 직장장과 사귀었는데 그의 과거와 오늘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실태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 생산자대중이 공장의 참된 주인이 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내가 사귀 직장장은 전쟁시기 부상을 입고 제대된 영예군인이였다. 그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싸운 위훈과 공로로 하여 편안히 쉴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입은 조국의 처참상은 자기 몸에 생긴 상처보다 몇십배로 더 가슴아픈것이였다. 그는 친지들과 전우들의 따뜻한 권고를 뿌리치고 입대전에 일하던 대안전기공장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작업반장을 하다가 직공장을 거쳐 직장장사업을 하게 되였다.

그는 일에서 성수가 났다. 눈만 뜨면 새로운 건물

이 신기루처럼 우뚝우뚝 일어서고 넓고 끝은 포장도로로는 이사집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였다. 그러나 전후복구건설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3개년 계획을 완수하면서부터는 자기가 지고있는 집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드는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생산공정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자 생산지휘와 기술지도, 보장부서들이 발을 맞추지 못해 엄청난 빈틈이 생기군했다. 그때마다 손탁이 센 지배인은 생산현장에서 말뚝잡을 자가면서 직장장과 공장종업원들을 다물아치군했지만 효험은 적었다. 그러면 직장장은 무능하고 전개력이 없는 일군으로 평가되어 빈번히 비판무대에 나서게 되였다.

이렇게 곤경에 처해있을 때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구있다는 구라파식 생산지령표인 《임금표》가 날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다. 직장장은 물질적자극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추동한다는 《임금표》가 어텐가 미타한곳이 많아 계륜한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격으로 받아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는 극적이였다.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자극을 위주로 하는 《임금표》의 도입은 생산자들속에서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와 기관본위주의를 낳았고 생산공정간의 엄청난 불균형을 조성하였다.

그때의 형편을 이야기해주면 그는 나에게 자기의 안타까웠던 심정을 토로하였다.

《나는 마침내 직장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를 해임시켜줄것을 당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병사가 사회주의건설장에서 자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일선에서 물러설라니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는가.

이렇게 절망감에 잠겨있는 그에게 소생의 불사약을 마련해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기업관리실태를 꿰뚫어보시고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새 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신것이다. 하여 생산자대중은 공장의 참다운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언제나 상승일로를 걷는것이다.

내가 현실체험과정에 보다 강한 마음의 충격을 느낀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겪었거

나 겪고있는 나라들의 곡경을 우리도 겪을번했다. 전후복구건설이 끝나고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을 련이어 앞당겨 끝내자 생산적련계가 강화되고 생산공정이 복잡해지는데 그에 비해 준비된 경제지도일군은 많지 못했다.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겨우 십수년밖에 되지 않는데다 3년간의 가렬한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을 잃었던것이다. 이런 피치 못할 엄혹한 사정에 남을 쳐다보는데 버릇이 고약한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의 작간이 있어 가슴아픈 실책도 범했다.

이런 때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장편소설 《분수령》의 주인공은 남은 기업관리형태인 지배인유일관리체의 희생자였던 직장장으로 선정되였다. 아울러 소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내용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적견지에서 엮었다.

부연해서 말하지만 장편소설 《분수령》은 창작초기부터 곡절을 겪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느 시기의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일부 작가들은 1961년 12월 16일이후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된 이후시기의 생활력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된 전후시기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는 창작지도일군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장편소설 《분수령》은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에 이바지하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어떤 력사적환경에서 수령님에 의하여 탄생되었는가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마감장에 생활력을 안반침하는 방법으로 소설을 구성하였다.

물론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철학적심도성에 비추어볼 때 부족점이 많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관리에서 극적인 곡절을 겪고 그것으로 하여 혁명적신념도, 의리도 다 켜버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금강석처럼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는 주체적인 새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될수록 그 부족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앞으로 창작하는 소설에 충성심을 기울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는데 기여하는 작품으로 만들겠다.

대지에 피어난 꽃송이들

송병준

얼마전에 나는 들판에서 김매기가 한창인 서해기슭의 한 농장을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곳은 나의 교원생활이 시작된곳이었고 잊을수 없는 제자들이 농사를 짓고있는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그곳을 찾는 나의 감회는 매우 컸다. 더더구나 그 반도의 기슭에는 내가 작가의 소환장을 받고 떠나오며 남겨둔 스물다섯명의 졸업생들, 집체적으로 농촌에 진출하여 청년분조를 못하고 일하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있는지...

농장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진출한 처음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하지만 생활에는 순탄한 일만 있는것이 아닌것이다. 그들 중에는 농장에 진출한것을 후회도 했고 이제라도 상급학교에 갈 궁리로 농사일에 뼈힘을 바치지 않는 동무들도 있었다. 그무렵에 나는 수업을 끝낸후 이면 그들이 일하는 포전으로 달려갔고 저녁이면 책을 싸들고 리소재지에서 20리가 넘는 청년분조의 합숙으로 찾아가곤했었다.

참으로 그들의 생활에는 환희와 랑만도 있었고 투쟁과 포부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과 헤어진지도 10년세월이 흘렀으니 이 나날에 그들의 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어이 알랴.

깊은 추억속에 농장을 찾아가니 관리위원장은 변함없이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 농장의 호주로서의 그의 모습은 예나제나 여전했다. 변했다면 그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는것이다.

나는 만나자바람으로 반도의 마지막 포전머리에 합숙을 짓고 농사를 하던 옛제자들의 소식부터 들었다.그러자 관리위원장은 《역시 선생은 선생이군!》하면서 그들을 만나자면서 성큼 발걸음을 떼는것이였다.

《그러니까 그 거부기바위기슭에 아직도 우리 동무들이 있단말이지요?》

홍분에 잠긴 나의 소리는 한껏 커졌다.

《있구말구요. 이젠 그들이 가정을 가진 당당한 주부이지만 여전히 청년분조성원으로 있지요.》

관리위원장은 자못 흡족하여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

나는 영문을 알수가 없어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긴 10년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처녀들도 출가할

나이가 된것이다.

관리위원장은 바다기슭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청년분조원들은 농사를 시작한지 4년만에 통신으로 농업전문학교도 졸업하게 되었고 포전도 거의 정리하였으며 많은 땅도 개량하였다. 그들은 스물다섯명이 아니라 열명의 로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제기하여왔다. 하여 청년분조는 열명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처녀들은 어차피 시집도 가고 가정도 이루어야 하겠기에 그들모두를 소환하고 남자들을 보낼것을 토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치를 단호히 거절했다.

《관리위원장동지,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자고 맹세를 한 청년분조원들입니다. 우리의 맹세를 어떻게 남이 대신 실현해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무들이 남을것입니다. 명옥이, 순실이...》

초급단체위원장은 미더운 자기 동무들의 이름을 꼽다가 그만 격동되어 눈물을 반짝이였다. 관리위원장도 눈굽이 젖어들었다. 처녀들이 너도나도 남겠다고 자원하여나섰다. 그러나 정작 헤어질 때는 모두 붙잡고 울었다.

세월은 또 흘렀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초소를 지키는 인민군군관들이였다. 점차 청년분조합숙결에 아담한 문화주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군관의 안해가 된 그들은 여전히 청년분조원들이였다. 마지막 처녀가 바다가초소에 새로 온 군관과 잔치를 할 때 농장에서는 큰 경사처럼 축하하여주었다.

《아, 그렇게 됐군요!》

나는 마음이 숙연하여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제자들은 끝내 이 땅에 뿌리를 억세게 박았다. 남편들은 조국을 지키고 안해들은 그 땅을 가꾸고...

나는 걱정애 사무친 눈길로 제자들의 구슬땀이 스배인 강냉이포전들을 둘러보았다. 어느 포전이나 한결같이 작황이 좋은 강냉이잎들이 바다바람에 춤을 추듯 설레인다.

이때 《선생님!-》 하는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사래긴 강냉이밭 저쪽에서 녀성농장원들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푸른 머리수

건을 손에 감아쥐고 탄력있게 달려오는 그들은 분명 나의 제자들이었다. 나는 순간 전기에라도 붙은 듯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가슴이 후두둑 뛰고 눈굽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분명 머리를 가웃이 숙이고 앞에서 뛰어오는 애는 언제나 쾌활하고 열정적이던 초급단체위원장 옥순이다. 그 그다음에는 명옥이, 순실이!... 몸매도 부해지고 얼굴도 검실검실 탔다.

나는 뿌옇게 흐려드는 눈을 닦으며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자랑스럽고 미더운 제자들을 향해, 이 대지에 억세게 뿌리박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향해...

그렇다. 이들은 부모들이 피흘리며 이 땅을 지켜간 것처럼 대를 이어가며 사회주의농촌을 억세게 지켜갈 것이다.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 농촌들에 이처럼 미더운 새 세대들이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문화농촌은 날로 더 튼성하고 번영하리라.

간판을 보면서

조래진(남조선)

더는
참을수도 속을수도 없는 해방의 팔뚝으로
《사원을 가족같이》
《공장을 내 집같이》
뻔뻔한 자본가의 낯짝같은
저 허울좋은 간판을 패대기쳐야 할 때가 왔다

짜냈다
끓어버린 욕신을
생산량 초과달성으로 납품기일 완수로
수많은 낮과 밤을
조출잔업
특근철야
휴일특근...

그랬었구나
뼈마른 우리들의 몸뚱이를 조이고 후려치면서도
기름칠도 해주질 않았구나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들의 람루한 희망을 위해
돈 한푼 들지 않는 허바닥으로
로사는 한 가족입네 꼬들기며
지친 욕신을 삶아먹었구나

아니다, 결코 아니다
피대오른 분노의 눈빛으로
사장놈의 화려한 승용차와 화사한 간판을 증오하며
가슴깊이 썩어가는 한숨만 키우는것은

로동자의 운명이 아니다
로동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다, 결코 그렇다
투쟁의 전의를 상실케 한 저 분렬의 바람과
해방세상 가로막는 체념타령을
로동자의 무죄단결로 분렬시키고 승리의 전선으로
역전시켜야 한다
굼뜬 몸 망설이는 발걸음은
파쑈의 개에게나 옛다 던져주고 어서 서두르자
빠루를 들고 함마를 메고
어둠이 포박하기전에 거짓 론리를 처날리려
로동자의 드센 전진으로
투쟁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낡은 세계 쟁기질하러 가세

로동의 벗이어
붉은해 치며 지친을 비춘다
애 굶던 가슴 흐벅지게 달구던 거친 함성으로
우리들의 생명인 투쟁으로
거짓 화해와
거짓 론리와
거짓 사랑을 패대기치고
벗들아
낮 뜨겁게 낮 뜨겁게
저 공장벽에 원대한 우리의 노래를 쓰자구나
《로동해방투쟁 만세》

청와대 십자가

김근엽

△ 때 현대
△ 곳 서울
△ 인물
로태우역적
역적의 주치의
역적의 줄개
가짜소경 점쟁이너인
△ 풍자음악속에 너설화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설화 청와대의 비화!
살인마 로태우역도를 고발하는 또 하나의 추문, 신문, 방송이 특보!
△ 까마귀소리.
소리 까-옥!-
△ 무대 밝아지면 서울시내의 어느 공원이다.
△ 까마귀소리.
△ 외국으로 여행한 차림새의 로태우역적의 줄개가 쫓기듯이 뛰어나온다.
줄개 (꽃나무덩굴뒤에 숨으며)에에... 기사들이란 참... 내가 비행기에서 내린건 어떻게 냄새를 맡구 쉬파리 달라붙듯 따라오는지 원...
△ 반대편에서 헐떡거리며 달려나온 로태우의 주치의사놈 역시 덤불뒤로 숨다가 줄개놈과 이마를 쫓고 비명을 지르며 나가넘어진다.
의사 (이마를 찌른다)아이쿠! 이마에 사꾸라꽃이 핀다?!...
줄개 (동시에 이마를 찌르고)아이쿠! 내 대가리야?!...
△ 둘은 눈을 뜨고 다시 비명.
줄개 아, 난... 로태우의 비서실 줄개가 아니요!
의사 아, 난 로태우의 주치의가 아니요.
줄개 (눈길을 주며)주치의사가?...
의사 (눈을 빨며)비서실 최장관이?
△ 마주 나온다.
의사 아니 최장관?!...
줄개 이런... 로태우의 주치의사로구만?!...
의사 아니 《유엔단독가입》 문제를 가지구 비밀리에 유엔사무소로 갔다구 하더니 언제 왔소?
줄개 방금 비행장에서 내리던참이요. 그런데 기사들이 어찌 달려드는지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의사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줄개 어떻게가 뭐요? 제기했다가... 《그래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건가?》 하는 규탄만 받구 쫓겨왔소... 그런데 대통령의 주치의는 왜 여기...
의사 글썸 서울시내에서 로태우대통령의 병치료시간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 글썸 대통령을 만나서 《조국통일》 문제를 묻겠다구 뒤따르는통에 나두 이렇게 피해서 여기까지...
줄개 이리다간 대통령이 임기두 못채워.
의사 그럼 그렇게 안되리라 생각했소?
줄개 물론 장기집권은 힘들다는 생각을 안하는바는 아니네... 그런데 앓는데는 명수이지만 죽을줄은 모르니...
의사 엉?... (혼자소리)교활한 벼은 품속의 뱀이라더니...
△ 이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
줄개 아니 우리를 알아보구 오는것이 아니요?(갈팡질팡한다.)
의사 글썸?... (가방 든 손을 댄다.)
△ 소경 점쟁이너인이 나오며 웃는다.
녀인 호호...
△ 까마귀소리.
녀인 퇴-이!- 요새 청와대지붕우엔 웬 까마귀가 저리두 성하는지 원. 퇴-이!-
의사 허어?... 요새 서울거리에는 웬 미친 사람이 저리두 늘어?
녀인 (웃다가)미치긴 누가 미쳐? 미친거야 청와대놈들이지. 호호...
줄개 (귀속말로)의사! 저게 소경 점쟁이가 아니요? 그게 무서운 년이오...
의사 그 점쟁이야! 전두환이가 점을 쳤던... 그 유명한 점쟁이!...
녀인 (듣고있다가) 옮겨 봤네. 소경이구 점쟁이야! 바로 내 이 신세가 이 이남사회의 실패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민중의 한사람이지.
줄개 (혼자소리로)저게 누구앞이라구 반말질이야?(나선다.)
의사 (말리며)지금은 참는게 유리해.
녀인 맞았네, 호호... 이 량반이 푹푹해.
줄개 저것이?

의사 아, 참으래두.

줄개 (깡패행동을 하다가) 내 참는다!... 네 입이 시끄러워서...

녀인 뭐? 남의 손으로 불똥칠놈같으니.

줄개 (분통을 참아 누른다)야- 참는것두 한도가 있지... 여! 표범 굶주리면 풀도 씹는줄 몰라?

의사 (줄개의 입을 막는다)

△ 까-옥!-

녀인 (또 웃는다)호호... 이애들아!

의사 } 이애들?

줄개 }

녀인 참 너희들두 그 오물장같은 청와대 뒤골방에서 새어나온 소문을 들었겠구나?

줄개 무슨 소문? 너와는 맞서지 않으려다.

녀인 호호... 너 캄캄이로구나? 호호... 로태우가 요즘 심한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대.

줄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비행기를 타고 유엔 사무소로 떠나는 날두 밀실에서 배웅을 받았는데?

녀인 음, 그러니 너두 간단치 않은 죽속이로구나?... 퇴이! 더럽다!

줄개 저... 저... 저게?... (의사에게)그래 병의 원인이 뭐요?(기뻐한다.)

의사 아니... 그런데... 청와대비서실 최장관은 왜 그리 기뻐하오? 대통령이 앓는다는데?...

줄개 하하... 이 세상 만물의 역사는 신진대사과정에 있지 않소. 하하...

의사 아-니?... 그럼...대통령자리를... 꿈꾸나?

줄개 어서 병의 원인이나 듣기오.

의사 하긴 나두 이 고달픈 대통령의 주치의사 생활을 끝장보구 좀 폭 쉬여라두 봤으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구 고달파서야...

줄개 주치의사! 어서 병의 원인이나 들읍시다.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한다)로태우두 다 됐구나, 호호...

의사 이런?... 당신을 믿고있는 로태우의 집권두다로구나...

줄개 역사의 신진대사법칙에 따라 앓는 그 로통령의 병이 어떻게 생긴 병이라구?

의사 글썽 어린 녀학생을 놓고 재판놀음 벌렸을때... 그래두 명색이 대통령인데 어린 처녀와 1대1이라구 국제 망신을 한데다가...

줄개 또?(바짝 구미가 동한다.)

의사 그런데다가... 로통령은 콩크리트장벽을 장벽이 아니라고 우겨오지 않았겠나?

줄개 그랬지.

의사 허허... 그런데 그만 요 입이 실수를 해서 말이야. 《이북에서 그 무슨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에 콩크리트장벽은 허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야.

녀인 그야 제 입으로 콩크리트장벽을 인정한거지, 제 입으로!

줄개 그게 무슨 망신인가?

의사 그러니 글썽 입이라느거야 나오는 말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있는건데 그 억제신경이 그만 마비된 모양이야.

줄개 거 잘됐군! 호호호...

녀인 그뿐인가, 원... 로태우가 《8.15범민족대회》를 파탄시키려구 얼마나 날치였었나.

의사 그것두 성공 못하는데다가 범민족통일음악회까지 이북땅에서 열리었은즉...

줄개 결국은 로대통령이 해내의 전체 동포들한테 고립된것에서 온 병이겠구만.

녀인 그야 두말 하면 잔소리가 되지.

줄개 거기서는 뭘 안다구? 가만 있소.

녀인 내가 가만 있어?

줄개 아, 저게?

녀인 뭘 저게?...

의사 아, 뭘 앞을 못보는 불쌍한 사람과?...

녀인 이자 누가 말했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군... 그래 로태우의 병의 원인은 또 뭐라구요?...

줄개 의사선생! 어서!

의사 원래 사람이나 동물두 림종을 맞는 순간엔 병이 들어나는법이 아니겠소. 그래서 로통령이 요즘은 열두쌍줄기 뇌신경까지 형클어져서 오장육부가 완전 마비된 그가...

줄개 (더욱 기뻐하며)그래서?

의사 로태우의 병으로 말하면야 민중의 규탄을 받는 목소리에서 얻은... 죽어야 고치는 병이 됐으니...

줄개 그러니 로태우는 틀림없는 림종기군그래, 호호...(박수를 친다.)

의사 그건 100프로 확정적이지!

녀인 그야 전두환과 다름바가 조금도 없지요.

줄개 당신은 어떻게 전두환이를 잘 아요? 로태우에 대해서두 그렇구?

녀인 그래 그가 로태우와 대구고등공업학교때부터 서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니란 말인가요?

줄개 정말 알긴 아는데?! (혼자소리로)어떻게 하면

로태우에게 분통이 터지게 해서 지레죽게 만든다?...

△ 이때 시내 어디선가 고동소리.

녀인 또 데모를 알리는 고동소리군! 나두 가봐야겠구나.

줄개 아, 점쟁이?!(잡아 세운다.)

녀인 또 뭐요? 난 데모에 가겠소.

줄개 로대통령의 학력이나... 세상에 태어나던 경위를 알수 있겠소?

녀인 나를 점쟁이로 아오? 뭐루 아오?...

줄개 (시계를 보다가)이제 한시간후에 서양거리라고 하는데루 와줄수 없겠소?

녀인 점을 치려우?

줄개 (야심을 먹으며)그렇소.

녀인 그렇게 하지요.(나간다.)

△ 의사도 서두른다.

의사 나두 빨리 가야겠군. 로통령의 치료시간이 다됐는데 이러구 있군.

△ 줄개와 의사 나간다.

△ 암전속에 풍자음악.

△ 무대 다시 밝아지면 서양거리 주치의사의 치료실이다.

△ 로태우역적이 앉았는데 줄개가 보고를 한다.

줄개 그렇게 되어 이번에도 《유엔단독가입》문제는 된욕을 받는것으로 끝났습니다.

역적 그만하고 썩 물러가라! 아이고 심장이야... 또 아프군...

줄개 (물리신다.)

의사 (진찰을 한다)허... 이거 맥박이 지독하게 빨라진다?...

역적 그래 내 병증세가 왜 이렇게 되는것 같은가?

의사 해마다 북침전쟁연습으로 미국과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열을 올린 그 후파로 심장병이...

역적 뭐라구?... 그럼 내가 심장병까지 걸렸어?

의사 예.

△ 까-옥!-(까마귀소리)

역적 아이구, 저놈의 까마귀가 무슨 냄새를 맡았게요새는 저렇게 나만 보면 날아드는가?... 아이구 아프다! 이제는 심장단계를 넘겨서 간장까지 아프구나...

의사 예, 간장두 아프게 됐지요.

역적 내 간장은 언제 또 이렇게 됐나?

의사 그야 전에 이북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개막식이 있던 날 텔레비존앞에서 《5월1일

경기장》 봉화대에 불이 달리는것을 보실 때 화김에 술을 마신 그때부터이지요.

역적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설명이 그리 길어? 간단히 말하게.

의사 예, 병의 원인은 구체적일수록 치료방약이 정확히 나오는 법이니깐요.

줄개 (활기를 가지고)그건 옳습니다. 대통령각하!

역적 비서실장관은 뭘 안다구?

줄개 예, 그저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넘려해서...

역적 허튼수작? ...속으로는 내가 잘못될것만 바라면서?... 네 그 흑심을 내 몰라서?...

줄개 그럴수가 있습니까?... 전 각하께서 종신대통령으로 계시기만 기대할뿐입니다.

의사 (작게)입에 침을 바른 소리...

줄개 췌!...

역적 의사! 어서 내 병의 원인이나 말을 해라.

의사 예, 그날 로통령께서는 봉화대에 불이 달려올라가는것을 보시다가... 불이 경기장 지붕사이를 지나면서 잠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불이 꺼져서 개막행사가 실패한줄로 아시고 기뻐서 박수까지 치려 하셨었지요?

역적 엉?... 음 그래서?

의사 그런데 잠시후 불길이 봉화대우로 타고르면서 온 장내가 《주체조선 만세!》 《평양축전 만세!》의 환호로 끓게 되자...

역적 그때 난 분통이 터져올랐댔다.

의사 그래서 각하께서 쓴 술을 마신다는것이 그만 술잔까지 함께 마셔버린탓으로 간장이고 뒤통 철광석처럼 굳어져버렸으니...

역적 이자식아!(소리친다.)

△ 의사와 줄개 깜짝 놀란다.

역적 그때 봉화가 죽었어야 하는건데...(헐떡거리다가 기침을 하면서 손수건을 꺼내여 입으로 가져가는데 그것은 녀자의 긴양말이다)음?... 어디서 고랑내가 나느냐?

△ 긴 녀자양말이 손에서 드리워진것을 보고 웃음이 터지는것을 참는 줄개와 의사.

줄개 흐흐흐 아... 내... 코야?!...

의사 (역시 웃음을 참으며)각하! 그 입에 대신건 손수건이 아니라 녀자의 긴양말 허허...

역적 엉?... (양말을 던진다) 예익... 이제는 그 빌어먹을년들까지... 날?... (기침을 한다.)

줄개 (웃음을 참으며)아니... 그 몸에 무슨 기력이 계셔서 지난밤에도 또 《명월관》출입을 하셨습니까?

역적 장관?!...(소리를 친다) 의사! 어서 내 약처방이나 내려!

의사 예, 그런데 간장에서 굳어진 그 고뿌를 녹여내려면 먹는 간장에다 류산을 타서 식사하셔야 하는데... 그럴순 없고...

역적 아니 내 간장에다 류산을? 그 술고뿌보다 내 간장이 먼저 녹을텐데두?

의사 온몸이 편하게 되자면 그것밖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역적 아이구 나 죽겠다...(헐떡거린다.)

의사 각하! 쓸데없이 숨을 너무 크게 쉬지 마십시오.

역적 그러니 이제는 내가 숨까지 크게 쉬면 안되다는건가? 아이쿠...

의사 예, 안됩니다.

역적 빌어먹을것... 그래 내 이 숨가빠지는 병의 원인은 또 뭐가?

의사 예, 그건 전에 《범민족대회》대표들이 백두산에서 한나까지 평화를 위한 통일의 대행진이 있던 날 그 보고를 듣고 분김에 입에 물었던 담배꽂초를 훌쩍 삼켜버린통에 폐가 온통 니코틴에 질어서... 그만...

역적 아이구 내 폐야!... 내 운명이 장차 어찌 되겠는지?...
△ 줄개는 시계를 보다가 자주 거리를 살핀다.

△ 녀인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소리가 가까와진다.

△ 줄개는 기뻐하며 창문을 연다.

역적 (머리를 들며)아니, 이 서양거리로 데모행진대가 밀려오는게 아니야?

줄개 저... 흐흐흐...

역적 넌 좀 가만 있어!

줄개 예. (밖을 살핀다)

역적 내가 청와대밖으로 나온줄 알면 저것들이 또 달려들어 썩은 닭알이구 뭐구 막 던질텐데?...
줄개 하긴 각하께서 그 언젠가 거리에 나섰다가 썩은 닭알세례를 받았겠지요.

역적 넌 좀 닥쳐라! 예익...

△ 다시 노래소리.

줄개 저 노래를 부르는건 소경점쟁이지요.

역적 소경점쟁이? 그럼 저게 혹시 내 병을 보구 장차 어찌 될지 알아내지 못할가?

줄개 (독백)음, 내 낚시에 걸려들었구나. (역적에게) 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역적 아니... 저까짓것이 뭘 알아?

줄개 전 대통령 전두환이두 저년에게 점을 쳤는데 꼭꼭 알아맞추더라는겁니다.

역적 그래?!...

줄개 한번 불려서 우선 대통령각하의 족보를 알아내나 시험을 해보구서...

역적 그것을 못대면 저것의 점두 허튼 수작일게구?

줄개 예.

역적 그럼 어서 불려라.

줄개 예. (나가다 말고)그런데 이 방에 대통령각하께서 계시는것을 알면 점쟁이는 진속을 말하지 않을텐데요?... 그러니... 기분이 나쁜 소리를 해두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역적 내 듣기만 하지, 그런데...만일 점쟁이한테서 기쁜 소식보다 상스럽게 되면... 모르기보다 내 병은 더해질텐데?...
줄개 (혼자소리로)내 그걸 바란거다. (나가면서 찾는다)여보! 점쟁이!

역적 아이구!(신음소리를 한다.)

△ 잠시후에 줄개가 녀인을 데리고 들어서는데 소경은 떠든다.

녀인 아니, 내 입에다 그 더러운 살인마 로태우역적놈의 족보를 담으란 말인가요? 퇴-이!-

역적 (까무라칠듯 악이 오르나 참는다.)

줄개 어서 점피를 잡아보지요.

녀인 예익... 기왕지사 내친걸음인데 말을 해 불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 역적으로 전락된 이남의 력대통치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로태우놈 역시 친일주구의 피를 물고 세상으로 빠져져나왔는걸요, 호호...

역적 여?!-(소리를 치고야만다.)

줄개 (달려가서 진정시킨다)이러시면 점을 치지 못합니다.

녀인 (분한듯 섰다)거기서 버릇없이 개떡같은 턱을 난닥 쳐들고 입구멍 열면서 목심줄 늘쿠는 건 어떤 개아들 후레자식이여?

줄개 점쟁이? 계속하라구. 그래 대통령네 가문이 어떻게 되어있대구?

녀인 로태우놈의 족속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권력에 아부하며 야심적인 리기와 출세를 일삼아온 세습적가풍을 조상대대로 물려왔겠다...

역적 (참지 못하고)선조할아버님에 대해 말해보우.

녀인 선조할아버님은 일찌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그 무슨 《대신》이라는 감투까지 쓰고 농군들로부터 략탈한 재물을 섬겨바치면서...

역적 뭐 략탈한 재물? 그건 불손해!

녀인 빛이 어째? 거 아직도 시궁창 움두꺼비처럼
너풀너풀 지껄여대는게 어떤 놈팽이여? 저 거
랑패같은 자식 방에서 내쫓소. 구린내가 나오.

△ 역적은 악을 참고 줄개는 말린다.

의사 점쟁이! 어서 계속하오.

줄개 그래서 재물은 어찌됐다고?

녀인 그야 략탈한 재물을 섬겨바치면서 왕의 발굽
밑에 붙어서 살아온 놈이지요. 그리구 로태우
의 애비놈은 일제시기 경상북도 달성군 공상면
신흥리에서 면서기노릇을 한 친일주요.

역적 (혼자소리로)저년이 귀신같은데?... (줄개에게)
이보라구, 거 족보를 좀 뛰어넘으면서 물어보
라구.

줄개 예.

녀인 아니 거기서 아직도 석유먹은 생쥐새끼처럼
비리비리해서 쏠락거리는건 또 어떤 놈이여?

줄개 아, 나요 점쟁이!... 대통령각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오.

녀인 그거라고 모르겠소. 점피에 다 있는걸...(무엇
을 흔드는척하다가)음... 그 태우의 어미년 역
시 부유착취자의 집에서 고이 자라 일제놈들을
제 애비 에미 모시듯 따라다니면서 섬겼지요.

역적 (분기를 누른다.)이거야 어디 참겠나...

녀인 년은 더러운 치정관계에서 온 병때문에 결혼
한지 7년이 넘도록 새끼를 낳지 못해서 안달아
돌아치다가 《선의사》요 《파계사》요 하는
절간을 찾아다니면서 중놈에게 붙어서 8년간
이나 섬겨서야 겨우 하나 생긴게 그 벼락맞고
뒤여질 못된 인간백정 로태우놈이 아니었던말
이요?

역적 야!-(소리치며 권총을 꺼낸다.)

녀인 뭐-야?... 암개 쫓던 수캐처럼 버릇없는 저 자
식 내 가만두지 않겠다.(달려들어 친다.)

△ 줄개와 의사는 녀인을 떼내고 로태우를 진정
시킨다.

역적 또 한번 참는다.

녀인 이자 그 자식 아직 방에 있소?

줄개 나가고 없소.

녀인 에에... 천하의 협잡군같은 놈팽이.

줄개 대통령의 학력에 대해서 들어보지요. 학력!

역적 (혼자소리로)저게 정말 별건 별거다 그...

녀인 그놈의 학력이야 새끼때부터 친일사상이 농후
했은즉... 10대에 벌써 미국놈의 첩자로 전락
된데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고등공업
학교라는데를 입학했구 거기서 전두환역적두

알게 됐는데...

역적 정말 귀신같은데?!...

녀인 그것두 호호호... 략제생명단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나, 호호... (허리가 끊어질듯이 웃다가)
그후 로태우놈이 갑자기 그 학교를 뜨면서 뭐
라고 지껄여댔는지 아세요?

역적 뭐랬긴 《여기서는 대학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배워주지 않아서 떠난다》 그랬지.

녀인 호호... 그래그래. 너두 그걸 아는걸 보니 정
천치는 아니구나! 호호... 서울 오수에다 그 대
가리라두 빨아주고싶은걸, 그랬지만 이 천치야!
사실은 그래서만이 아니야, 바보!

역적 (참으며)그럼?...

녀인 머리가 아둔한 태우놈은... 그 까마귀대가리로
는 공학도 할수가 없거니와 그래두 놈은 앞으
로의 출세를 위해서 미국놈을 등에 업어야겠다
는 생각만은 했기때문이야.

역적 그거야 잘한것 아니야?

녀인 바보같은 소린?

역적 바보?(무섭게 된다.)

△ 줄개는 또 달려들어 말린다.

녀인 바보두 상바보지. 상바보지. 상바보!

역적 (권총을 또 내든다)점쟁이! 그래 대통령의 경
북고등학교시절에 대해서는 모를테지?

녀인 그걸 모르다니, 그 학교 졸업당시의 학적부에
서 성적을 보면... 로태우놈은 2백명의 학생중
10명밖에 안되는 략제생들중에서두 첫자리에
있었다니, 원 더럽지, 퇴-이!-

역적 (입을 딱 벌린다)저게 정말... 그걸 어떻게 다
알아낼가?

녀인 더 들어봐! 그후 태우놈의 살인마적인 기질을
충분히 시험한 미중앙정보국요원 맥그란놈은
로태우를 《육군사관학교》에 끌어들였구 미
군사관학교 류학까지 보내지 놈은 극악한 살인
마요, 흉악한 음모가로서... 광주봉기자들을 대
학살한 그 하나만 봐서두...

역적 그만해! 저게 아무래두?...

녀인 뭐 저게?

의사 아, 이러지들 마시오.(말린다.)

줄개 (로태우를 말린다.)

의사 점쟁이! 진정하오. 이제는 로대통령의 운명이
어찌 되겠는지... 그걸 좀...

줄개 그렇소, 그걸 말해보우.

녀인 역적의 운명이라... 이제 로태우가 2년하구 몇
달이 지나면 대통령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줄개 그렇소! (기뻐한다)호호호...

역적 (조용히)너 왜 그리 기뻐서 그래? 음?...

줄개 예?... 예... 기뻐거야 뭐...

녀인 이제 당장에라도 로태우의 선거를 한다고 하면...

줄개 (기대를 크게 가지며)그러면?

녀인 이 남한민중은 《못살겠다! 더는 이렇게 못살겠다! 로태우 당장 잡아치워라!》

할테니...

줄개 그 다음은?

△ 역적 머리를 싸쥐는데 줄개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줄개 그다음은? 어서! 호호호...

녀인 이렇게 정치적위기가 닥친데다가...

줄개 그래서? (다그쳐 묻는다)또?

녀인 날을 따라 반정부투쟁은 높은 수준에서 조직화되는데다가...

역적 (또 머리를 싸진다)아이쿠!...

줄개 또 그다음은?

녀인 거기에도 또 경제적위기가 로태우의 목을 조이고있겠다...

역적 뭐뭐?...

녀인 보시오. 자립경제를 못가져서 무역을 못하면 살수 없는 이 남한에서 지난해 무역적자만두 60억달러가 났다고 했지, 그러니 생산전반에서 혼란이요, 보시오. 지난해 상반기에도만해도 7만의 실업자가 났다고 신문, 방송이 보도까지 날렸은즉...

역적 어이쿠!-(비명을 지른다)

줄개 로통령각하께서 집권한후 물건값이 3배로 뛰여올라간건 사실입니다요.

역적 3배나?

줄개 예, 지금 오이 한개값이 백원에서 2백원, 3백원 이상으로 올라간게 사실입니다.

역적 그러니 내 병이 그만큼 더해지겠다는 소린데?...

의사 그것도 대통령각하의 병의 큰 원인의 하나로 되지요.

줄개 대통령각하! 읍습니다.

녀인 (놀란다)뭐뭐?... 아니 대통령각하?... 여기가 어디오?

△ 침묵

녀인 내가... 꿈을 꾸는가?... 내가 대통령앞에서?... 꿈인가?...

역적 꿈이 아니다! 너는 바로 로태우 내앞에 서있

다.

녀인 로태우앞에?(더욱 놀란다.)

역적 음! 이년이 누구앞에 서있는지 보게 해줘라. 소경치군 믿기 어렵게 사상사를 많이 알고있으니... 위험한년이다!

녀인 (자세를 바로 하며)그래! 나도 네앞에 이렇게 서서 말해줄 날이 오기만을 바랐던거다!

역적 이년이 소경인체하는게 분명하다. 그 눈을 뜨고 나를 똑똑히 보도록 해줘라.

녀인 그만되라, 내 부모님들은 이 썩은 남한세상을... 차라리 보지 않는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나를 어머니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나다! 난 이 세상에 한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뜻을 그리치지 않겠다.

역적 야! 이년 말하는걸 들어봐라! 이년은 소경이 아니다. 거기에 누가 없어? 저 유명같은 년, 영국의 샤일록 홈스 같고 중국의 아쿠크같은 저년 잡아 넣어라!

줄개 각하! 진정하시고... 이 남한에서는 소경까지 감옥에 넣는다고 소문나면?... 잡아넣는건 차차...

녀인 잡아 넣구말구할것두 없다. 이 남한땅은 통채로 감옥이구 생지옥이 아니냐.

역적 뭐라구? 저년의 눈을 뜨게 하구 세상을 똑똑히 보게 해줘라.

녀인 흥, 내 눈을 뜨게 해주겠다구? 호호... 너같은 강자의 권리가 가장 큰 무권리라는걸 넌 알아야 해.

역적 뭣이(치려든다)

녀인 모기도 황소처럼 부러먹을 이놈! 막대기로 물을 때려야 소용없다.

역적 뭣 뭣이?... (또 권총을 잡는다.)

녀인 악한에게서 귀신이 났다고 한 그것밖에 너는 모르는구나.

역적 내 네년이 세상을 똑똑히 보게 하겠다!

녀인 그만둘테다! 이제 우리 7천만 민족이 힘을 합쳐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이 되는 그 날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스스로 눈을 뜨고 하나된 진정한 내 조국을 볼것이다. 로태우 이놈! 그와 함께 네 운명에는 종지부를 찍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해라!

역적 뭣이? (소리를 지르다가 가슴을 움켜잡는다) 아... 저-년-을?... 또 진통이... 이제 더 큰 진통이 오는구나...(자리에 주저앉는다)

△ 의사가 달려들어 진찰을 한다.

△ 줄개는 은근히 기뻐하며 돌아친다.
줄개 (혼자소리) 모든 만물은 신진대사가 빠를수록
 좋은데, 호호...
역적 (신음소리) 아이쿠!... 내 진통...
녀인 호호호... (웃다가) 그것 참...
역적 아, 저 웃음소리에... 내 이 진통이... 진통이...
 더해만진다...
녀인 (그냥 웃다가) 호호호...
의사 점쟁이! 좀 가만있소.
녀인 (그냥 웃다가) 호호호...
의사 점쟁이?!-
줄개 의사선생! 기쁜 사람은 기뻐게고... 가만둬두
 시오. (점쟁이를 추진다) 일없소. 그만한 자유,
 민주주의두 없어서야 되겠소. (조용히) 난 정
 치를 하면... 지금처럼은 안하겠소. 호호호...
역적 음... 청와대 비서실장판이라는것들두 하나 믿
 을것이 없구나... 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
 나?... 에-익- (몸을 일으키다가 다시 쓰러진
 다) 아이쿠! 진통이야...
녀인 호호... 그 진통을 멈추는 처방은 있소.
역적 (마지막 기대를 안고 머리를 든다) 아, 봉사!...
 봉사!... 어서 말해주시오! 은혜는 은혜로 갚
 을테니...
녀인 그건 지상으로부터 한메터가량 밑으로 내려
 판 두평방 땅속에 여섯면이 널로 된 구형의 긴
 널집에 누우면 아픔도 없이 영영 잠이 들어버
 릴테니... 그렇게 되면 당신자신도 편안하고 이
 남한 백성들의 마음도 다 편안해질거요.

역적 엉?... 그러니 내가 벌써 관속으로? 아이쿠!...
 △ 까마귀소리. (까-옥-)
녀인 호호... (웃으며 나간다)
역적 그러니 나는 지금 무덤으로?... 십자가를 지
 고 가는가?...
 △ 다시 까마귀소리.
 소리 까-옥!-
줄개 각하! 고이 쉬십시오, 고이... 까마귀떼가 또
 날아듭니다.
 △ 역적 움직이지 않는다.
 △ 의사가 시름을 놓으며 청진기를 거둔다.
의사 아, 피곤해!... 이제야 나두 좀 쉴수 있겠구나!
 (하며 역적을 베고 눕는다.)
줄개 에... 나두 좀 눈을 붙여볼가(하며 의사의 배
 를 베고 눕는다.)
 △ 그 모습은 십자가 모양이 된다.
 △ 여기로 다시 나타나며 웃는 녀인.
녀인 호호호... 청와대가 큼직한 십자가를 걸머지었
 구나! 흥 내가 소경이라구? 천만에!...(눈을 뜬
 다.) 동서고금에 파썸로 유명해진 나폴레옹이
 나 히틀러보다두 더한 너같은 역적이 가는 길
 이야 따로 있을수 없지! 호호...
 △ 까마귀의 울음속에 암전이 되면서 다시 울리는
 너설화자의 목소리.
설화 다시 기다려지는 특보!
 청와대의 비화!...
 △ 풍자음악이 높아진다.

가사

어머니에게

정화흠

어머니 얼굴은 주름졌지만
 보아도 보아도 또 보고싶어요

어머니 음성은 맑지 못해도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싶어요

어머니 두손은 거칠지만은
 만져도 만져도 또 만지고싶어요

우릴르 안아서 키워주시는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이지요
 (재일본문학예술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 위원장)

비분의 25 일간

동기춘

피의 금요일

쇠몽둥이
란타에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터진
피의 금요일

부른 민주가 죄던가
부른 통일이 죄던가
백골단의 철되는
꽃나이 갓스물 청춘을
백주에 타살했다

피방울
피방울
항쟁의 가도를 뛰며

강경대렬사여, 그대는
피로 말하며 갔구나

피를 내고
무사한놈
력사에 없었다
하늘밑에 없었다
땅우에 없었다

분노, 분노, 분노!
아-아-
렬사의 복수를 웨쳐
피에서 불이 일어난
오, 너 4월 26 일아

너 어디 누웠느냐

-누나 강선미의 애소-

너 어디 누웠느냐
나의 동생아
이 누나가 왔는데
눈이라도 한번 떠주렴

얼굴은 어이 이리 창백하고
덥던 손이 얼음같아졌느냐
굶던 피는 어디 뿌리고
이 찬데 온기없이 누웠느냐

어머니가슴이 미여터지라고
아버지머리가 백발이 되라고
이 누나가 통곡에 미치라고
이 빈소에 누웠단말인가

죽을수 없어
죽지 못해
이건 아니야
일어나라 경대
여긴 네 누울데 아니야

집으로 가자
지금은 밤 11 시

아직은 어머니도 모르시고
아버지도 모르고계시는데
밤이 더 깊기전에
아닌듯 웃으며 일어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구나

배고프겠구나 동생아
어머니는 네 좋아하는 별식을 해놓고
네가 너무 늦어진다고
너 가보아라 하시며
나를 보냈는데
아- 너는 어디 누웠단말가

저주여, 너 내편이거든
창이 되고 칼이 되어
백골단의 머리에 떨어지라
분노여, 너도 내편이거든
눈물의 방울방울을 독으로 만들어
살인마의 아가리에 부어넣으라

공정하다는 하느님은 어데 있어
원쑤를 징벌하지 않노
너는 민주를 부르짖어 나섰는데

독재자가 떠벌이는 민주정치는
너를 타살하는 정치였더나

운들 일어나라만
땅을 친들 눈을 뜨라만
너 살수만 있다면
너를 밀고 내 눕고싶은
이 절통

아니다, 동생아
그게 아니다
너의 뉘를 안고 내 일어서마
일어나서 갈테다, 살인마한테
살인 두목 로태우를 끄집어다
이 사체실에 던질 때까지
네가 달리던 항거의 거리에서 이 누나는
사생결단할테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백골단 백정들이
아들을 죽이라고
어머니는 키우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시여
까무러치고
다시금 숨을 뿜으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

다 큰 오늘은 생각나지 않고
다박머리를 탈삭이며
엄마 엄마-달려오던
어린 시절만 자꾸 밟혀서

않던 어느 해
생일을 건넬
먹이지 못한 사과 몇알이
아프게 마쳐서

대학모를 의젓이 씌워
옷걸이를 두세번 당겨주고
바래주던 아침
뒤돌아보며 웃던 얼굴이
파아랴게 살아서

줍줍한 몽렁이를
울컥 토하면

비릿한 입안

혼미함속에서도
들려오는 소리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항전을 부르며
누가 또 누가
분신하고 분신했다는 비보

-내 아들을 살려내라!
마지막으로 뿜아낸 절규
그것은 술한 혼령을 안고일어선
렬사의 어머니의 부르짖음 아니었던가

아들을 살려내라는 웨침은
정의를 살려내라는 소리
펄펄 끓는 증오를
눈에 숯불처럼 담고
울수만 없는 절박함에
어머니는 몸을 떨며 일어섰다

최루탄의 불소나기를 뚫고
기발같이 나아가는 나뭇길이며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무서운것이다
일을 내고야말기에
무서운것이다

분향

검던 머리
하루밤새
분분한 백설,
젖은 손수건
부은 눈 누르는 떨림

만장의 수풀속
대형초상을 앞세운

아들의 령구
발인을 재촉하는
로제 분향

아버지여, 어찌하겠는가
아들을 보내야 하지 않는가
꽃나이 스무살앞에
아버지밖에 아버지밖에

누가 분향할 사람도 없지 않는가

기막힌 일이어
아버지가 상제가 되는
인륜에 없는 비사를
이 하늘밑에서
어느놈이 자행했느냐

초에 불을 달아
제단에 세워놓고
오열이 뚫어올라
영결말도 못하는
분향의 비애

바라던 민주는 오지 않고
키우던 아들은 숨지고
봄은 봄이여도
죽음만이 시커먼
악마의 동굴

사랑하는 학도들아
내아들을 메고 일어서라

더는 민주제단에
초불을 켜지 않도록
너희들의 죽음을 막아
내 나서리라-는
조의 입은 아비의
시퍼런 눈의 소리

향불을 끄고
초불을 끄고
웁쫄 일어난 아버지
령구가 웁쫄
웁직이는 대오
앞에는 백골단의 무리

주먹을 틀어젖
결사의 인파
이발을 앓다문
그앞엔
검던 머리
하루밤새
분분해진 백설

서울에서 광주로

서울에서 광주로
머언 장지
30 대의 차량은
묵묵한 조객을 싣고
광주로 망월동으로

미천한 목숨도
발인하는 걸음은
예로부터 멈추면 안된다 했는데
렬사 강경대여, 그대는
진퇴의 고개 그 몇을 넘어
이 길에 올랐느냐

연희동의 공방전
아현동고개의 치렬전
최루탄을 맞받아
바리케트를 넘어
15 만과 더불어 서울을 누빈 이 걸음

묻힐수 없는 넋이
데모의 23 일로 서울을 불태우고
떠나 오른 길엔
던진 돌맹이
뿌린 화염병
시가전의 피자욱

슬픔에 찬 곡성이 아니라
눈물젖으며 걷는 행렬이 아니라

경찰의 저지선을 육탄으로 켜기치며
렬사는 살아서 앞에 서고
민중은 따르며 분노한
항전의 천리

오, 몇몇이 이 길에 앞섰거나
배를 가르며 이 길을 가고
분신 투신하며 이 길을 가고
뼈가 으깨지며 가고
살이 찢기며 가고
용맹한 애국의 사자들이
눈 못감고 앞서간 자욱은
광주 천리에 아리게도 찍혔구나

쓰라려도 쓰라려도
자주, 민주, 통일
그것을 위해
또 하나 아까운 청춘이
서울을 떠나
새 투쟁의 전구
광주로 광주로 가는 천리길이어

피흘린 려사는
피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피젖은 도시로 간다
서울에서 광주는
머언 천리
싸움의 천리

싸우는 도시

광주는
역시
광주다

도시는
슬픔에 잠겨
렬사를 기다리지 않았다

력사의 갈피갈피
꺾이지 않는 민족의 의기를
원쑤의 가슴에 창끝처럼 던지며
분기했던 혈투의 도시
오, 광주는 다시
피를 딛고 일어섰다

-미제를 몰아내라
-살인정권 타도하라
경찰의 쇠병거지를
몽둥이로 내려치며
낮에 밤에 새벽에
싸움으로 거리를 달구며
렬사를 맞이한 도시여

경찰차들이 불타고
놈들이 피 쏟으며 퇴진하는속으로
령구를 웅위한 광주는
민주의 성스러운 넋을 메고
걸었다 걸었다 도도한 행렬로

분노의 노도 물결쳐간
5월의 언덕이여
너 다만 묘지라면

잔디는 어이 그리 푸르르나
잔디를 삼가 밟으라
민주의 넋인지 어이 알리
사진앞을 삼가 지나라
순직한 청춘이 바라보거니

자주의 봄을 위해
민주의 푸름을 위해
통일의 아침을 위해
삶의 청춘을 태운 영령들이
푸르게 일어서는 언덕
또 하나의 렬사
스무살로 여기에 온 오늘이다

현세계는 모르고있어라 아직
그 어떤 인물도
숨지여 사흘, 닷새 간혹 이레는 있어도
강경대렬사처럼
비분의 25일을
투쟁으로 빛은 사실을

얼마나 그악한 살인정권이더냐
얼마나 지독한 파쑈의 사막이더냐
세상에 없는 이런 사태를 산출한
희세의 야만통치

그 살인마와의 결단을 위해
렬사는 싸우러 온것이다
결사항전으로 피불이 튀는 도시여
원쑤들아 전를하라
광주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

철퇴엔 철퇴로

-고 강경대렬사의 령전에-

부르던 민주는 어찌하고
바라던 통일은 어찌하고
이렇게 가야만 하느냐
갓 스물 분한 청춘
고 강경대학우여

창자를 오열로 쏘아낸대도
쓰러진 넋은 살릴수 없어
렬사여, 그대의 령전에
겨레 7천만의 타는 분노가
묵묵히 호상을 선 이 시각

하늘의 벼락은 어데 있어

우뢰 한소리 터뜨리지 않느냐,
시퍼런 대낮에
정의의 사자를 쇠몽둥이로 타살한
파쑈독재의 야차같은 《백골단》은
피 묻은 손을 씻고있는데

이렇게 몇다발 꽃을 엮어
제단에 드린 위로는 저리기도 하구나
하지만 이 봄의 꽃을 다 꺾어놓은들
그대 잃은 우리의 설음이 가시며
구천에 사무친 그대의 원한이 풀리라

물어보자, 하늘아 땅아

날은 어머니 제 아들의 조객이 되자고
그를 이날까지 길렀더니
정다운 학우들이 벗들이
그의 령구를 메고 앞이 흐려 비칠거리자고
사랑과 우정에 웃고울었더니

그도 이렇게 죽자고
살지 않았다
한강여울의 슬픈 호곡을 들으며
갈라진 강토의 오늘이 아파서
그 나이에 눈물도 많던 청춘

번지던 책갈피는 대학가에 접혀있는데
만지던 꽃가지는 어디서 피느뇨
그대 뛰어다니던 교정의 흙바닥에
지지 않은 자욱을 손으로 쓸며
어느 뉘 눈물이 흙을 적시느뇨

그대 마지막으로 바라본 하늘이
우리의 머리위에 추연히 드리웠구나
그대 마지막으로 호흡한 숨결이
바람이 되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고
그대 마지막으로 끌어안은 땅이
우리의 발밑에서 흐느끼는구나

서울은 그대의 무덤을 봤다
남녘이 그대로 무덤인 오늘에
수유리의 기막힌 4.19 위령탑아래
어제 오늘... 또 하나
비명의 봉분을 덧없으며
더는 울수가 없는 민족이다

현세의 야만
민족의 백정은
정의에 또하나의 피를 내며
림종의 단말마를 보여주었거니
으스러지게 틀어쥔

화염병을 뿌려던저도
불러본 자주와 민주는
철퇴를 맞을 때
그앞에 죽음으로 분기하며
온 남녘땅에 보복의 철퇴를 쥐여준 렬사여

피는 피로!
철퇴엔 철퇴로!
겨레는 복수의 철퇴를 들었다

받아내리라, 그대의 피값을
그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원썬들이 피를 토하며 알게 하리라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대를 영결하는 이 시각
우리의 가슴엔 피눈물이 교여서
걸음걸음이 비애로 줄편할게다

아니다, 렬사여
그대는 항거의 죽음으로
투쟁의 영생을 얻었나니
미제와 로태우의 머리통을 까부실
심판의 철퇴를 들고
분노한 대오앞에 선것이다
항쟁의 빛나는 폐지를 번져가는것이다

우리 비록 이날에
한줌한줌 젖은 흙을
입술 깨물며 없지만
용맹한 수리개는 하늘에 날고
조국의 추억엔 흙이 덮이는 일 없으리

고이 잠들라
고 강경대렬사여!

1991.4.26~5.20